

권왕가



[해제]

본 가사는 융희(隆熙) 2년(1908년) 범어사에서 간행한 목판본 『권왕문』에 순 한글로 표기되어 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가사이다. 1928년 각황사(覺皇寺)에서 소책자로 발행한 금속 활자본 『권왕가』, 그리고 임기중 편저 『역대가사문학전집』 제21권 1098번에 소개된 <권왕가> 역시 이 원전을 입력한 것이다. 작자는 금강산 건봉사(乾鳳寺)의 교학승(敎學僧)으로 있었던 동화(東化)로 알려져 있다. 그의 생몰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주로 1850년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미루어 가사의 제작 역시 19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위의 목판본 『권왕문』(한국가사문학관 소장)에는 <조칙가>와 <서왕가>가 함께 실려 있는 바, <권왕가>는 장1~31에 걸쳐, 가사 본문이 총 602행에 1203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는 2음보 형성으로서 3.4조 내지는 4.4조를 위주로 한 장편가사이다. 작품의 내용은 가사의 제목, 또는 이를 실고 있는 책 이름이 시사하는 대로 끊임없이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속계에서의 죄를 뉘우치고 선근 공덕(善根功德)을 쌓아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권하는 노래이다. 불교의 설법과 그 용어의 집중적인 열거로써 가사를 통한 불교사상의 학습을 기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장편 구성의 노래 내용이 중복감을 면치 못함은 물론 동일한 어휘 구사로 인한 유사한 사설의 나열이 많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각 30여 회에 걸쳐 빈출되는 극락 . 염불 . 아미타불 등의 용어를 비롯하여 금지사인 ‘마오’, 그리고 중생(衆生) . 정토(淨土) . 왕생(往生) . 무량(無量) . 수행(修行) 등 불교 용어를 각각 수차례 걸쳐 중복하여 관용하고 있음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는 불교가사로서의 조사상(措辭上) 특색으로 지적되어, <권왕가>의 내용상 특성으로 파악되는 그 한 면이라 하겠다.

[원문]

冊主 仁◆

권왕문 并三

권왕가

오호라 실푸도다 삼계가 화탁이요
 스심이 고히로다 어이허야 그러흐고
 텨상에 나눈스람 칠보궁전 슈신흐고
 의식이 조연허야 쾌락이 무량흐나
 텨복이 다흐오면 오쇠고가 닛타나셔
 삼도륜회 못면흐니 그아니 화탁인가
 인간에 전륜왕은 이만부인 일만디신
 일천티조 시위흐고 칠보가 구족허야
 스턴하를 거느리고 위덕이 조지흐나
 그복이 다흐오면 업보를 못면허야
 고취에 썩러지니 그도아니 화탁인가
 텨상인간 데일복도 오히려 저러커던
 황어요무 스셔인의 빈궁고독 무량고를
 다시무엇 언론히싸 하물며 삼악도에
 만스만싱 허노고통 무량겁을 지닌가니
 놀납고 두렵도다 이러한 화탁중에

어이허야 벗셔날소 우리세존 디범왕이
 퍽천방편 베푸르스 화탁제즈 구완홀제
 성교중에 일은말슴 십만억토 서편쪽에
 극낙이라 허는세계 황금으로 싸이되고
 퍽천진보 간촉하니 산천강희 오조업고
 평탄광박 엄녀허야 붉근광명 영철흠이
 천억일월 화합훈덧 곳곳지 보빅남고
 칠중으로 돌너시되 엇던남근 순금이요
 엇던남근 순은이요 쏘다시 엇던남근
 황금으로 쏠휘되고 퍽은으로 즐기되고
 뉴리로 가지벗고 진쥬엽이 번성커던
 즈거솟치 만발허야 무니과실 열녀시며
 쏘다시 엇던남근 근경지는 황금이요
 화과엽은 퍽은이며 가지가지 보빅남고
 금은뉴리 칠보로써 서로서로 싱것는디
 칠중난순 돌너잇고 칠중나망 덩퍼시되
 무비상묘 보빅로다 오퍽억천 묘화궁전
 남으가지 사이마다 상하에 버러잇고
 오퍽억천 동조들이 그궁전에 유희호되
 광명잇는 무니쥬로 화만영낙 장엄일닌
 팔중청풍 건들부니 보슈보망 나눈소리
 미묘하고 청철허야 퍽천풍악 진동하니
 그소리 듯는조는 탐진번외 소멸하고
 념불심이 절노나며 쏘다시 그나라에
 퍽보식조 잇스오되 퍽학이며 공족이며
 가름빈가 공명조라 쥬야늑시 우는소리
 화오하고 미묘허야 무싱법을 연설커던
 듯는조가 감동허야 념불심이 격발허며
 쏘다시 그국토에 가지가지 하날솟출
 쥬야늑시 비쥬거던 중싱들이 그솟트로
 시방세계 제불전에 두로가셔 공양하고
 순식간에 도라오며 죄보녀인 실노업고
 칠보로 싱긴뭇식 팔공덕슈 총만하고
 스식년화 폐엇거던 시방세계 념불중싱
 님명중시 당허오면 아미타불 디성존이
 그중싱을 다려다가 년화중에 화싱하니
 신식이 진금이요 디인상호 구족허며
 칠보궁전 상묘의식 싱각조촉 절노싱겨

임의조지 슈용하며 슈량이 무궁하야
 생노병스 우비고노 삼고팔고 모도업고
 불심불멸 불기불포 무량쾌락 슈호오며
 다시싱스 아니밧고 미타성존 슈기입어
 무심법을 증득하며 지혜신통 조지하고
 공덕선근 만족하야 보살도를 성취하며
 상선인이 취회하야 과거분행 의논홀제
 나눈과거 분행시에 념불삼미 성취하며
 디승경전 독송하고 이극낙에 나왓노라
 나눈과거 분행시에 삼보전에 공양하며
 국왕부모 충효하며 빈병걸인 보시하고
 이극낙에 슈심호라 나눈과거 분행시에
 욱되논일 능히총고 지혜를 슈습하야
 공경하고 하심하며 일체사람 권화하야
 념불식켄 공덕으로 이극낙에 나왓노라
 나눈과거 분행시에 탐스를 이륙하고
 불도량을 소쇄하며 죽는목숨 살너주며
 청정계행 슈지하야 삼귀오계 팔관지와
 십선업을 슈행하고 이극낙에 나왓노라
 나눈과거 분행시에 십지일에 묵묵하고
 지일성호 념송하며 비밀진언 지송하고
 이극낙에 나왓노라 나눈과거 분행시에
 우물파서 보시하며 험한도로 슈축하며
 무거운짐 디신지며 식벽마다 서항하야
 스성존게 네빅하며 평원광야 정조심어
 왕닌인을 쉬게하며 뉴월염턴 더운씨에
 참외심어 보시하며 큰강슈에 빅씩우고
 적은닛물 다리노와 왕닌인을 통섭하며
 산고곡심 험한길에 실노조를 지로하며
 금음칠야 밤길가는 저행인을 햇불주며
 압어더온 빙안인이 기천구렁 건너거던
 붓들어서 인도하며 타항각스 거리송장
 선심으로 무더주며 스고무친 병든사람
 지성으로 구완하며 이런공덕 가초닥거
 이극낙에 나왓노라 나눈과거 분행시에
 십악오역 두로짓고 무간지옥 가올너니
 님중시에 선우만나 겨우십념 념불하고
 이극낙에 나왓노라 나눈과거 분행시에

삼악도중 슈고러니 우리효순 권속들이
 날위하야 공덕닥거 이극낙에 나왓노라
 천초만별 본형사를 이갓치 의논하며
 극낙세계 공덕장엄 무량겁을 헤아려도
 불가사의 경계로다 어이하야 그런하고
 과거구원 무량겁에 유불출세 하오시니
 세조지왕 여리씨라 그씨에 전륜왕은
 일흠이 교시가라 국왕위를 바리시고
 발심출가 비구되니 승명이 법장이라
 세조지왕 여리전에 스십팔원 세우시니
 하늘에서 솟비오고 디지세계 진동터라
 그후로 무량겁을 난형고형 득겁하야
 스십팔원 성취하샤 극낙세계 장엄하고
 그가온디 성도하니 우리도스 으미타라
 삼계화택 동모들아 오욕낙만 탐착말고
 칭스장야 씬을씩여 이말숨을 신청하야
 으미타불 디성호를 일심으로 외오시되
 과거스도 분별말고 미리사도 스량말고
 삼계만법 원갓거시 몽환인줄 관찰하고
 십이시중 쥬야업시 어린으희 젓심각덧
 목마를제 물심각덧 역경계도 으미타불
 순경계도 으미타불 횡쥬좌와 어묵동정
 일체시와 일체처에 일념미타 노치마오
 일구월심 오리하면 허다정냥 업셔지고
 념불숨익 성취하야 전후삼제 쓴쳐지고
 인아스상 문허지면 십만억토 극낙세계
 조심중에 낫타나고 만덕존상 으미타불
 방촌중에 뵈오리니 조심외에 극낙업고
 극낙외에 조심업니 니마음이 으미타요
 으미타가 조성일식 시방세계 무변하나
 니의조성 변만하니 니조성이 변만고로
 제불심도 변만하고 니지육도 중심심도
 낫낫각각 변만하니 일이로되 일아니요
 다르되도 불별일식 한방안에 일천등불
 광명각각 변만호되 서로서로 걸님업니
 이마전지 이르오면 사바극낙 돌아니요
 범부성인 썩로업셔 쳐쳐극낙 현전하고
 념념미타 출세로다 이갓치 슈형인은

님명종시 당혹오면 팔만상호 장엄하신
 보신미타 영접하시 실보토와 향적광토
 상품년화 왕심하니 방가위지 디장부라
 정토왕심 허느법이 한가지로 정흠업니
 근괴조촉 무량하니 우리극낙 상선인의
 본형말습 허신중에 니근기에 맞는되로
 슈분하여 슈형하오 천포만류 흐르느물
 한바다로 들어가고 만형중선 모든공덕
 동귀조량 극낙일시 진실심만 판단하야
 왕심하게 발원하면 님명종시 죽을씨에
 근괴되로 왕심호되 상근기는 상품가고
 중근하근 되느이는 장녹팔척 화신미타
 각각영접 하오스되 방편토와 동거토에
 중근인은 중품연화 하근인은 하품년화
 니의심전 닥근되로 어귀업시 왕심하니
 으미타불 영접호되 미타실노 온바업고
 니의심식 왕심호되 나도실노 간바업니
 아니가고 아니와도 성범이 제회하고
 감응이 도교하야 영접하며 왕심하니
 이무숨 도리런고 청턴에 붉근달이
 천강슈에 빗춰오나 달이실노 온바업고
 물도실노 아니가되 강슈가 증청고로
 붉근달이 낮타나고 만일물이 흐리오면
 달그림조 업셔지니 물의청탁 타시언정
 달은본리 거러업니 이도쏘흔 이갓하야
 니마음이 흐린고로 불신을 못보다가
 님종일념 뭉근고로 불월이 낮타나니
 니마음이 청탁잇지 불은본리 거러업니
 두스람이 달을보되 한스람은 크게보고
 한스람은 적게보니 보느안정 다름잇지
 달은본리 디쇼업니 이도쏘흔 이갓하야
 팔만상호 보신불과 장녹팔척 화신불이
 근괴조촉 낮타나니 중심지견 초별잇지
 불은본리 디쇼업니 하날스람 밥먹을제
 보빅그릇 한가지나 과거복덕 지은되로
 음식밋치 부동하니 이도쏘흔 이갓하야
 극낙은 하나히나 스중정토 구품년화
 근괴조촉 각각보니 정토업을 슈형홀제

의심을 품고하면 이목숨 맞친후에
 명부에서 상관업고 미타아니 영접하니
 별노갈곳 업스오나 의성이라 흥곳에
 년디중에 몸을바다 오익세를 복낙맞고
 다시정업 닥근후에 극낙으로 왕싱하니
 필경에는 가드라도 오익세나 지체하여
 으미타불 못보오니 정토발원 흥스람
 결정신심 일아다셔 의심을 부디마오
 만일다시 분별니되 지은죄업 무량하고
 슈행흔지 불구하여 원결부채 마니저셔
 벗셔나게 어려오며 님중시에 으미타불
 영접하지 아니실싸 이분별을 부디마오
 정진슈행 흥드라도 이분별이 장인되야
 왕싱길을 막습느니 여하약하 못지말고
 필경왕싱 흥울줄노 결정이 신흔후에
 으미타불 한싱각을 단단적적 잡드려셔
 산란심이 동흔거던 더욱정신 가다듬쇼
 명쥬투어 탁슈하면 흐린물이 말가지고
 불호투어 난심하면 난심즉시 불심일식
 닉의활살 바로가면 저관혁을 못맛칠싸
 보름달이 원만케는 초싱달노 시작이요
 천리원정 득달흙은 첫거름이 시작일식
 극낙이 머다흔나 닉의일념 진실하면
 슈인결과 흥날에 미타성존 아니볼싸
 인싱일세 덧시업셔 퍅년광음 몽중이라
 달핑이썰 가관이나 무어시 쓰죗말고
 부귀영화 죗타흔나 달핑이썰 다름업니
 시벽이실 구실된들 얼마오라 보존홀쇼
 인간칠십 고리희나 시벽이실 다름업니
 칼삿티 무든술을 어린으희 활타먹다
 혀를필경 상커니와 지혜즈야 도라볼싸
 덧슨죗코 죽는음식 미련흔놈 먹고죽지
 지혜즈야 그러홀싸 여보오옥 슈락인들
 죽는음식 그만먹쇼 싱노병스 무셔온불
 화턱스면 붓터오니 그가온디 잇지말고
 이문으로 어셔오쇼 삼계화턱 닉닷게는
 정토문이 데일일식 고희중에 싸즌스람
 이빅을 어셔타쇼 싱스바다 건너게는

미타선이 데일일식 바다보빅 천가지는
 여이주가 엇듬이요 의약방문 만품이누
 무우산이 엇듬이요 팔만스천 방편문이
 슈왈문문 가입이누 싱스륜회 썰니벗고
 불법성에 바로감은 정토편문 엇듬일식
 제불보살 출세하스 천경만론 일온말숨
 미타정도 총찬하스 고구정녕 권하시니
 우리범부 스람들이 성인말숨 아니듯고
 뉘의말을 신청하며 극낙정토 아니가고
 다시어디 갈곳잇누 오락악세 나온스람
 과거죄업 김푼고로 이런말숨 불신하야
 비방하고 물너가니 불에드는 저나빅와
 곳치짓는 저뉘이를 그뉘라셔 구제홀싸
 정토슈헝 하느스람 신구의를 조섭하야
 십악업을 짓지마오 과거싱스 무량겁에
 녹도스싱 순환하니 예셔죽어 저가날제
 부모업시 나실년가 일노조초 싱각건된
 혈기잇는 준동흥녕 무비다싱 부모로다
 산목숨을 죽이니는 살부살모 달음업닉
 황어경에 하온말숨 혈기잇는 중싱뉴가
 필경성불 한다하니 살싱하느 저스람은
 미리불을 죽임이라 호싱오스 하느마음
 나와저와 일반인디 니욕심을 치우랴고
 남의목숨 죽이오니 형세강약 부동하야
 죽인바를 입스오나 뒷고잇는 원한심이
 구천에 스뭇초닉 싱스고락 순환하니
 특일삼도 저고통을 뉘가되신 바다줄소
 검슈도산 저지옥에 근단골절 멧번하며
 확탕노탄 저지옥에 혈육초란 슈잇던가
 지옥고를 필흔후에 피모디각 녹축되야
 목숨빗줄 갑플적에 나느한번 죽여썸만
 갑느슈느 무슈흔들 슈원슈구 한을홀소
 네적에 한념스가 다샷스슴 눈을썩고
 지옥고를 갓초밧고 인간에 스람되야
 오릭검을 눈썩이니 인과보응 넉넉커늘
 어이그리 불신하노 아모리 빈궁히도
 도적질을 부디마오 승야월장 하느것만
 도적업이 아니오라 남의지물 방편으로

비리횡취 하는거시 빅쥬딕적 이아닌가
 저울니고 되말님은 공번되게 후жат더니
 쥬고받는 여슈간에 그농간이 무슈하니
 야속홀사 인심이여 어이후야 그러흔고
 부모조식 텃룬이라 네것넉것 업건만는
 네적에 한노모가 녀조식이 가난커늘
 빅미닷되 돌너니여 으달몰니 쥬엇더니
 모녀갓치 죽어셔는 큰말되며 식고되야
 그으달을 토티시니 모조간도 저러커던
 남의거슬 의논홀싸 아모리 욱심나도
 스음을 부딕마오 나의쳐도 족후거던
 남의쳐첩 무슴일고 네적에 한스람이
 남의첩을 통간홀제 본부볼싸 두러후여
 스면으로 살피셔니 죽은후에 아귀되야
 괴화가 치성하야 오장늑부 모다타며
 스면철방 타살하니 고롭고 무섭도다
 고인이 일아스디 구시화문 이라하니
 입으로 짓논허물 몰난결에 가중만뜰
 발설지옥 고를보쇼 혀를썩여 밧출가니
 거짓말노 남속열싸 두말후야 니간마요
 빅설조가 이아닌가 하물며 악담죄논
 그중에 더중후니 네적에 한스람은
 한번악담 후온죄로 빅두어가 되여시며
 쏘네적에 한녀인은 지은허물 발명코조
 가지가지 악담후고 죽은후에 아귀되야
 제고기를 싹마니야 제가도로 먹어시니
 악담부딕 후지마오 남을향히 후는악담
 니가도로 밧느니다 하날노 밧튼침이
 니얼굴에 아니질싸 술을부딕 먹지마오
 술의허물 무량후다 윈갓죄를 다짓느니
 술집한번 가르치고 오빅검을 손업거던
 황어친이 먹을손가 의적이 작쥬어늘
 우님군이 멀니후고 나한이 딕취어늘
 세존이 꾸즈시니 술의허물 업실진틴
 성인이 금홀손가 송과오짐 싹는지옥
 저고통이 무셔워라 부딕탐심 니지마오
 살도음망 모든죄를 탐심으로 모도짓니
 네적에 한장조는 지물탐축 못노터니

죽은후에 복구되야 그지물을 직켜시며
 쏘네적에 한스람은 황금칠병 두고죽어
 비양의몸 바다시니 그아니 무셔온가
 부딪진심 니지마오 진심죄보 무량후야
 팔만장문 일어나니 네적에 흉도비구
 다검을 공부후야 거의성불 갓갑더니
 한번진심 일앗고셔 뒤망이몸 바다시니
 놀납고 두렵도다 만일스견 일아켜셔
 선악인과 불신후면 무간지옥 들어가셔
 천불출세 후드라도 나올그악 바히업니
 고로네적 선성비구 이십년을 시불후야
 십이부경 통달후고 스선정을 어덜더니
 악지식을 인연후야 인과를 불신타가
 심함지옥 후여시니 중심죄업 무량후중
 스견죄가 데일일니 파모놀을 먹지마오
 심으로는 진심돕고 익킨거슨 음심돕니
 담바일흠 다섯가지 담악초며 분스초라
 선신은 멀니가고 악귀가 뒤쫓치니
 알고춤아 먹을손가 여시죄목 무슈후야
 일우측냥 흘길업니 화탁중에 잇는중심
 뉘가야니 지어실까 과거붓터 이몸까지
 지은죄를 심각후면 죄가형상 잇실진턴
 허공계를 다치워도 남는죄가 만으리니
 이죄업을 거져두고 화탁엇지 벗셔너며
 극락엇지 왕심홀소 우리세존 뒤법왕이
 죄악중심 실패너겨 참회문을 세우시니
 승속남녀 노쇼업시 지은죄를 심각후야
 참괴심을 일아다셔 리참스참 두가지로
 삼보전에 참회후오 리참이라 후는거슨
 죄의조성 추구후디 두목슈족 스디식신
 혈육피골 모든중에 죄의조성 어디잇노
 닌신중에 업실진턴 식성향미 외경계에
 죄의조성 어디잇노 조세히 추구후디
 닌외에 업실진턴 중간인들 잇실손가
 닌외중간 모도업서 죄성이 공적후다
 죄성이 공적커니 죄상인들 잇실손가
 닌의조성 청정후야 본리일물 걸님업니
 티허공에 식가나니 식난조최 어디잇노

조성허공 청정하니 죄상조최 잇실손가
 담담총히 바람일어 천푸만랑 흥흥터니
 바람하나 그친후에 천푸만랑 간딤업니
 님의조성 바다중에 현전일념 허망하야
 죄구푸랑 분분터니 현전일념 진실하니
 무한죄구 간딤업니 리노실노 일어하느
 스상으론 불연하다 꿈이비록 허망하느
 흥몽에는 흥스잇고 길몽에는 경스보니
 꿈을일향 허망탈싸 죄가비록 허망하느
 후세업보 분명하니 삼보신력 아니시면
 죄를엇지 소멸홀소 아등도스 으미타불
 스십팔원 후온말습 니지십악 오역인이
 님종시에 일으여셔 지옥악상 낫타나도
 니명호를 지성으로 열번만 일카라도
 념불쇼리 한마디에 팔십억겁 칭스죄가
 춘설갓치 녹아지고 하품왕칭 한다하니
 디의지라 으미타여 고히보벌 아니신가
 누천년을 길운숨풀 일성화로 살오오며
 천년암실 어더움을 한등불노 파히도다
 으미타불 한소리에 텃막외도 공포하고
 도산검슈 썩어지니 과연숨계 도스로다
 정토편문 심신하야 극낙가게 발원하면
 영느디왕 문서중에 님의성명 에워니고
 극낙세계 칠보못식 년봉하나 소샤나셔
 님성명을 표제하고 님의슈형 후는디로
 년화점점 무성타가 안광낙지 후온후에
 그년턱에 난다하니 즉금념불 후는스람
 비록인간 잇스오느 발셔극락 빅성이라
 동방세계 약스여리 팔보살을 보니시고
 서방세계 으미타불 스물다섯 디보살노
 이스람을 호위하며 시방제불 호령하고
 텃룡귀신 공경하니 텃상인간 세계중에
 최존최귀 데일일식 만일도로 퇴전하면
 그년화가 마른다니 칭스론회 초치하고
 년숫아니 악가온가 여보념불 동모념니
 부디부디 퇴전마오 도도흔 동뉴슈는
 총히바다 가게전에 쉬는일이 잠깐업니
 최존최귀 스람되야 무정슈만 못홀손가

튜석낙정 거동보소 도져전에 안그치니
 한번시작 허온일을 성취전에 그칠손가
 남염부쥬 나온스람 심식이 무정허야
 으춤나잘 신허다가 저녁나잘 퇴전허며
 설스오라 신허여도 결정신근 전허업서
 목전경계 보논뒤로 다른쇼원 무슈허니
 불상허고 가련허다 만당쳐즈 의혹허고
 금은옥帑 탐심두니 목숨맛초 도라갈제
 어니쳐즈 썩라오며 금은가져 노즈홀싸
 싱스광야 험헌길에 너의고흔 홀노가니
 션근공덕 업스오면 삼악도 김푼구렁
 살갓치 들어가닉 쏘다시 엇던스람
 평시에논 념불타가 병이들면 아조잇고
 아픈것만 실어허며 살게로만 바라다가
 싱스노두 썰은씨에 삼척늑십 썩마디를
 바람칼노 의위니니 슈망각난 손발젓고
 출업식이 요요허야 말근정신 발셔나라
 명도지계 더진후에 념중념불 허여쥬니
 무숨호험 잇실넉고 도적간후 문닷으니
 무어실 좁오랴닉 싱전약간 념불공덕
 악업담즈 못니겨셔 슈업승침 룬회허니
 평시에 병법익켜 난시에 쓰жат더니
 적진보고 퇴징치니 평시적공 쓸디업니
 싱전에 념불허야 념중에 쓰жат더니
 정념을 미실허고 스므에 순복허니
 일심념불 와히로다 여보념불 동모념닉
 이말숨을 신청허오 병고만일 침노커던
 싱스무상 각금씩쳐 살게도 탐촉말고
 죽게도 두러말고 이세계를 실어허야
 극낙가게 싱각허며 이몸이 허환허야
 고로옴이 무량허니 년화디중 어서가게
 일심으로 기다리되 천리타향 십년만에
 고향으로 가논더시 부모일코 기결타가
 부모쳐져 가논더시 만덕홍명 으미타불
 지성으로 싱각허야 술과고기 드논약은
 부디부디 먹지말며 문병인과 시병인과
 집안권속 당부호디 니압픽셔 각담말고
 보드라운 의정으로 낙누허야 위로말며

가스범칙 못지말고 일심으로 념불하여
 너의정념 도와주며 니가만일 혼미커던
 각금씩쳐 권렴하며 님종시가 당하거던
 셔향하야 뉘여두고 일시조렴 렴불하며
 님종흔지 오린후에 곡성을 니게하소
 이갓치 님종하면 평시념불 안트라도
 즉지셔방 하오려던 황어념불 하던스람
 다시무숨 의심할싸 병이비록 중하어도
 귀신의게 비즈마오 슈요장단 정흔거슬
 저근귀신 어이할쏘 부처님 방광하니
 방광일흠 견불이라 님종인을 권렴하고
 이광명을 어덧다니 스람증심 물논하고
 죽는조를 만나거던 부딪념불 하여쥬오
 여보효순 권속들아 혼정신성 하온후와
 감지지공 밝은후에 념불법문 봉권하오
 싱전에만 효순하고 스후고락 모로오면
 지극효심 어디잇노 부모님께 죄되느일
 호읍슈지 간하옵고 모든선근 되느일은
 지성으로 권흔후에 부모평심 지은공덕
 낫낫치 기록하야 병환이 계시거던
 시탕하온 여가에는 념불노 권렴하며
 닥그신 선근공덕 자세히 일너들여
 정념을 격발하야 님종까지 이러하면
 바로극낙 가시리니 남의조식 되느스람
 이말숨을 잇즈마오 우리세존 셔그님도
 정반부왕 권흔말숨 으미타불 념불하야
 극낙으로 가라시며 중국에 장노선스
 그어마니 출가식켜 념불법문 권하올제
 권화문을 지어시되 세출세간 두효도를
 갓초말숨 하여시니 우리불조 효횡되로
 일체인이 봉지하오 무병인이 념불하미
 다병타고 비방마오 전세죄업 중흔고로
 스후지옥 가올거슬 즉금념불 공덕으로
 지옥죄를 소멸하고 겨부압게 바듬일식
 장병잇던 풍부인은 념불하고 병나으며
 눈어두온 양씨녀는 념불하고 눈찌시니
 너의정성 지극하면 이런효험 아니볼싸
 념불비방 하느스람 부귀충성 한다마소

전세에 종복하고 즉금부귀 밧거니와
 금세비방 하온죄는 후세필경 밧느니다
 농스흔 법을보소 팻심우면 팻시나고
 공심우면 공이나닉 즉금엇던 미련흔농
 ㄱ시나무 심어두고 베풀게를 기다리닉
 스람의몸 바다나게 링귀우목 어려오며
 불법난봉 희유흠이 우담화에 지닌거늘
 다형하다 우리스람 속세무슴 선근으로
 스람의몸 바다나고 불법까지 만났는고
 이런불법 만나실제 듯고아니 헉느니는
 불보살의 덕조빈들 저를엇지 제도홀소
 세계싱겐 최초에는 인슈팔만 스천세라
 복낙이 무량터니 빅년을 지닌후에
 정명일세 감흐오니 빅년마름 감흐야서
 삼십정명 되올씩에 괴근겁이 일어나니
 일체곡식 모도업고 인상식을 셔로하야
 칠년칠월 일어하니 스람인류 거의업닉
 이십정명 되올씩에 질병겁이 일어나니
 링화갓튼 독헌병이 변탄하에 두로하야
 칠월칠일 지닌도록 만닌조 즉스하니
 남은스람 얼마런고 십세정명 되올씩에
 도병겁이 일어나니 스람마다 악심نيا야
 초목와석 잡는디로 총검이 절노되야
 부모조식 상살하니 원세계에 죽음이라
 칠일을 지닌후에 멧스람이 나맛던고
 이거시 쇼슴지라 인슈팔만 스천세라
 십세정명 일으오면 이거슨 감겁이요
 다시빅년 지닌후에 정명일세 더흐오면
 이갓치 점증하야 도로팔만 스천되면
 이거슨 증겁이라 이십증감 지닌후에
 칠일이 병출하야 스바세계 빅억턴하
 일시에 불이일어 논폰산과 김폰바다
 옥계턴과 식계초선 낫낫치 직가되니
 그다음 비가와서 초선까지 물이차서
 이션턴이 문허지닉 쏘다시 덕풍불어
 삼션턴이 문허지니 이거슨 덕숨지라
 이세계 싱겐후에 팔증감은 이과호디
 부쳐님은 아니나고 즉금테구 감겁이라

인슈정명 늑만시에 구류손불 출세하고
 인슈정명 스만시에 구나함불 출현하고
 인슈정명 이만시에 7섭불이 출니하고
 우리세존 서가여리 디즈디비 증승하스
 인슈익세 정명시에 가비라국 출현하니
 금음칠야 어더온밤 추정만월 도드신덧
 칠년딴한 가문씨에 감노세우 나리신덧
 삼척여회 설법하야 도탈중심 하옵시고
 칠십구년 쥬세하스 니락군품 하온후에
 스라쌍슈 널반하니 훈구장야 도로되니
 불신은 상쥬하스 본릭심멸 업건마는
 중심근기 초별하야 심도보고 멸도보니
 정법상법 이천년은 발서임이 다지니고
 계법만년 더우잡아 팔척여세 이과하고
 즉금칠십 정명이라 스천년을 쏘지나여
 삼십정명 도라오면 남염부쥬 잇노나라
 십만오척 십륙국에 쇼슴지가 일썌시니
 념불안코 노는스람 설스악도 아니가고
 세세심심 스람된들 저슴지를 어이홀쇼
 저척중심 박복하야 불법이 업건마는
 오즉정도 미타경이 복년을 더머무스
 점인중심 하신다니 광딴하다 미타원력
 무어시로 비유홀쇼 고인이 일으키디
 오락이 증극하야 삼지겁이 갓가오니
 미타원력 아니시면 스윙스고 난탈이라
 이갓치 일너시니 공포심을 어셔니야
 부지런이 념불하오 근릭엇던 공부인은
 극낙미타 색로업셔 니마음이 극낙이요
 니즈성이 미타라고 아만심이 공고하야
 정토업을 멸시하니 박복다장 훈타시라
 무엇의논 홀것업니 니마음이 부처란들
 탐진번뇌 구족하니 제불만덕 어디잇누
 형산옥이 보빅란들 거저두어 쓸씩잇누
 냥장이 어더다가 탁막하야 망근후에
 운유지덕 낫타나셔 텃하보기 성취하니
 조심불도 이갓하야 번뇌무명 어디쓸쇼
 미타냥장 친근하고 만행으로 탁막하야
 번뇌숫글 제거하고 흥스성덕 낫타나면

조성불이 이아닌가 조성불에 축헌스람
 인적위조 부디마오 사바세계 청정흙이
 조지턴궁 갓탄거슬 나계범왕 홀노보고
 디지상덕 소리불도 토석으로 보아시니
 황어우리 구박범부 님종일념 실슈하면
 삼악도에 포복하니 조성극낙 미들손가
 아만심이 공고하고 하열심이 비루고로
 높푸산과 나즌구렁 험흔세계 낫거니와
 니마음이 평등하야 불지혜를 의지하면
 정토왕심 허옵느니 조성극낙 축헌스람
 집석위보 부디마오 거록하다 정토법문
 시방제불 총찬하고 흥스보살 왕심하느
 화엄경과 법화경은 일디교의 시종이라
 무상원돈 법이언만 극낙왕심 총찬하며
 마명보살 용슈보살 제불화신 강적하스
 정법안장 친전호디 권심극낙 김피하며
 진나라 혜원법스 반야경을 들으시다
 활연디오 하시고도 광녀산 결스하야
 십칠일을 정에들어 미타성상 친견하고
 극낙으로 바로가며 텃티산 지조디스
 법화삼미 증득하스 냉산회상 친견하고
 삼관을 원슈하야 상품왕심 하오시며
 히동신라 의상법스 계행이 청정하스
 텃공을 슈하오디 정토발원 견고하야
 좌필서향 하오시며 서역동토 현철들이
 고금왕심 무슈하니 뉘가감히 입을벌여
 정토법문 펴담하리 오장왕과 흥중황제
 만기여가 념불하야 왕심발원 김피하며
 장한과 왕시량은 공명이 현달하야
 환희에 처하여도 왕심업을 닦가시며
 유유민과 쥬숙지는 쳐조오욱 다바리고
 퍽년결스 촌네하야 두적산문 념불하며
 도연명 니티릭과 퍽낙턴 소동파는
 만고명현 문장이라 필봉이 능능하야
 귀신을 울녀시되 미타공덕 찬탄하고
 왕심하게 발원하며 당나라 정진이와
 송나라 도완이는 비구니의 몸으로써
 념불하야 왕승하며 슈문후와 형왕부인

빼죽지가 녀인이는 녀신보를 실어하야
 지성으로 녀불하고 녀티중에 남조되며
 파계비구 웅준이와 도우탄이 장선화는
 심전죄악 만은고로 지옥고가 현전커늘
 녀중일녀 회심하고 녀티중에 바로가며
 풍기사에 아간비조 승심전에 중이되야
 건봉스 만일회에 별좌하다 득죄하고
 순흥사에 옴쇼되야 그죄를 속후후에
 삼심만에 비조되여 미타도량 공급하고
 육신등공 왕심하니 고왕금니 살피건던
 승속남녀 현우귀천 니지죄악 범부까지
 다만발심 녀불하면 아니가리 누잇노가
 만경총포 널은바다 칠척유순 마갈어와
 적은고기 곤중이가 한가지로 린린하니
 월장경에 하온말숨 말세중심 억억인이
 기형슈도 하드라도 득도하리 하나업고
 녀불하야 구심하면 만불누일 한다시니
 스조왕의 결정설이 거짓말노 남속일싸
 연비연동 미물들도 교화은조 입는단티
 만물지중 스람되야 성인교화 못입을싸
 조익성변 세류안에 화류하는 소년들아
 춘흥이 날지라도 솟틀부티 썩지마오
 그솟밧티 독스잇셔 손상할싸 무셔워라
 무정지물 국화솟도 봄니비를 실어하야
 상강시에 숨어피니 흥화춘 녀조들아
 봉솟되게 조아마소 적막공산 식벽달에
 슬피우는 두견식은 소리마다 불여귀라
 망망한 성식도중 스부도셔 군조들아
 도라갈줄 외모로나 석양산로 저문날에
 북망산천 도라드니 효조순손 우는소리
 텃지일월 무식하다 오호라 실푸도다
 만고호걸 남우들아 장심불스 하조더니
 어젯날 거마직이 오날황천 고훈일식
 잠을씩소 잠을씩소 침스장야 잠을씩소
 조기도 잠든제가 천년되면 신다년티
 언제부터 자는잠을 멧부쳐님 출세토록
 어이엇티 아나씩노 디법고를 크게치고
 침스옥문 널어시니 갓친스람 어셔나소

문널어서 만나오면 그스람은 훔길업니
디비션을 크게무어 초안중싱 제도하니
션가업는 횡인들아 어셔타고 건너가식
빅를주어 아니타면 그스람은 훔길업니
보원침닉 제중싱은 유심정토 어셔가셔
조성미타 친견하고 환망진구 모든씩를
공덕슈에 목욕하고 탐진열뇌 더운고슬
보슈음에 흘휴하고 아귀도중 쥬린빅를
션열식에 표만하고 지옥도중 말은목을
법희슈에 히갈하고 곡향갓튼 설법성에
여환법인 증득하고 공화만횡 슈습하야
슈월도량 안쥬하야 경상턴막 흥복받고
몽중불과 성취후에 구화방편 시설하야
환화중싱 제도하고 법성토 너른씨에
임운등등 등등임운 무위진락 수용하식
나무으미타불

조칙가

쥬인공 쥬인공아 세간탐축 그만하고
총괴심을 일우와다 일즉념을 엇더하노
어젯날 쇼년으로 오날빅발 황공하다
아적나잘 무병타가 저녁나잘 못다가석
손발젓고 죽논인싱 목정에 꼭다하니
오날이야 무스흔들 명조를 정홀손가

[현대역]

冊主 仁◆

권왕문 并三

권왕가

오호(嗚呼)라2 슬프도다 삼계(三界)가 화택(火宅)이요3 사생(死生)이 고해(苦海)로다4 어이 하여 그러
하고 천상(天上)에5 나는 사람 칠보 궁전(七寶宮殿)에서6 수신(修身)하고7 의식(衣食)이 자연(自然)하
여 쾌락(快樂)이 무량(無量)하나8 천복(天福)이9 다 하오면 오쇠고(五衰苦)가10 나타나서 삼도 윤회(三
途輪廻)11 못 면하니 그 아니 화택(火宅)인가12 인간에 전륜왕(轉輪王)은13 이만 부인(夫人) 일만 대
신(大臣) 일천 태자(太子) 시위(侍衛)하고14 칠보(七寶)가 구족(具足)하여15 사천하(四天下)를16 거느
리고 위덕(威德)이17 자재(自在)하나18

그 복이 다 하오면 업보(業報)를19 못 면하여 고취(孤翠)에20 떨어지니 그도 아니 화택(火宅)인가 천상
인간(天上人間) 제일 복(第一福)도 오히려 저러하거든 황어요마사서인(況於玄糜士庶人)의21 빈궁 고
독 무량고(無量苦)를22 다시 무엇을 언론(言論)할 것인가 하물며 삼악도(三惡道)에서23 만사 만생(萬
死萬生)하는24 고통 무량겁(無量劫)을25 지내가니 놀랍고 두렵도다 이러한 화택(火宅) 중에 어이 하여
벗어날꼬 우리 세존(世尊) 대법왕(大法王)이26 백천 방편(百千方便)27 베푸시어 화택 제자(火宅諸子)
28 구원할 제 성교(聖敎)29 중에 이른 말씀 십만억토(十萬億土)30 서편 쪽에

극락(極樂)이라 하는 세계 황금(黃金)으로 땅이 되고 백천 진보(百千珍寶)31 간착(間錯)하니32 산천강
해(山川江海)33 아주 없고 평탄광박(平坦廣博)34 엄려(嚴麗)하야35 밝은 광명 영철(映徹)함이36 천억
일월(千億日月)에야37 화합한 듯 곳곳에 보배나무 칠중(七重)으로 둘렀으되38 어떤 나무는 순금(純金)
이요 어떤 나무는 순은(純銀)이요 또 다시 어떤 나무는 황금(黃金)으로 뿌리 되고 백은(白銀)으로 줄기
되고 유리(琉璃)로 가지 뺨고 진주엽(珍珠葉)이39 번성커든 자거꽃이40 만발하여 마니(摩尼)41 과실
열렸으며 또 다시 어떤 나무는 근경지(根莖枝)는42 황금이요

화과엽(花果葉)은43 백은이며 가지가지 보배 나무44 금은 유리(金銀琉璃) 칠보(七寶)로서45 서로서로
생겼는데 칠중 난순(七重欄楯)46 둘러 있고 칠중 나망(七重羅網)47 덮었으되 무비 상묘(無比上妙)48
보배로다 오백 억천(五百億千)의49 묘화 궁전(妙華宮殿)이50 나무 가지 사이마다 상하(上下)에 벌려있
고 오백 억천(五百億千) 동자(童子)들이51 그 궁전에 유희(遊戲)하되 광명 있는 마니주(摩尼珠)로52 화
만 영락(華鬘瓔珞)이53 장엄(莊嚴)하네 팔종 청풍(八種淸風) 건들거려 부니54 보수 보망(寶樹寶網)55
나는 소리 미묘하고 청철(淸澈)하며56 백천 풍악(百千風樂)57 진동하니 그 소리 듣는 자는 탐진 번뇌
(貪瞋煩惱)58 소멸하고

염불심(念佛心)이59 절로 나며 또다시 그 나라에 백보 색조(百寶色鳥)60 있으되 백학(白鶴)이며 공작
(孔雀)이며 가릉빈가(迦陵頻伽) 공명조(共命鳥)라61 주야 육시(晝夜六時)62 우는 소리 화아(和雅)하고
63 미묘(微妙)하여 무생법(無生法)을64 연설(演說)커든 듣는 자는 감동하여 염불심(念佛心)이 격발(激
發)하며65 또다시 그 국토(國土)에 가지가지 하늘 꽃을66 주야 육시(晝夜六時) 비주(飛酒)커든67 중생
(衆生)들이68 그 꽃으로 시방 세계(十方世界) 제불전(諸佛前)에69 두로 가서 공양(供養)하고 순식간(瞬
息間)에 돌아오니 죄보여인(罪報黎人)70 실로 없네 칠보(七寶)로 생긴 못에71 팔공덕수(八功德水)72
충만(充滿)하고

사색 연화(四色蓮花)73 피었거든 시방 세계(十方世界) 염불 중생 임명종시(臨命終時)74 당하면 아미타

불(阿彌陀佛) 대성존(大聖尊)이75 그 중생을 다려다가 연화(蓮花) 중에 화생(化生)하니76 신색(神色)이
 진금(眞金)이요77 대인 상호(大人相好)78 구족(具足)하며 칠보 궁전(七寶宮殿)79 상묘 의식(上妙衣食)
 80 생각조차 절로 생겨 임의자재(任意自在)81 수용하며 수량(壽量)이82 무궁하여 생로병사(生老病死)
 우비고로(憂悲孤老) 삼고 팔고(三苦八苦)83 모두 없고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기불포(不飢不飽)84 무량
 쾌락(無量快樂)85 수하오며 다시 생사(生死) 아니 받고 미타 성존(彌陀聖尊)의86 수기(授記)를 입어87
 무생법(無生法)을 증득(證得)하며88 지혜神通(智慧神通)이 자재(自在)하고89
 공덕 선근(功德善根)90 만족하여 보살도(菩薩道)를91 성취(成就)하며 상선인(上善人)이92 취회(聚會)
 하여 과거 본행(過去本行)93 의논할 제 나는 과거 본행 시(時)에 염불 삼매(念佛三昧)94 성취하고 대승
 경전(大乘經典)95 독송(讀誦)하며96 이 극락(極樂)에97 나왔노라 나는 과거 본행(本行) 시(時)에 삼보
 (三寶)98 전에 공양(供養)하며 국왕(國王)과 부모님께 충효(忠孝)하고 빈병 걸인(貧病乞人)에게99 보시
 (布施)하며100 이 극락에 수행(修行)호라101 나는 과거 본행(本行) 시에 욕되는 일 능히 참고 지혜를
 수습하여 공경하고 하심(下心)하며102 일체 사람 권화(勸化)하여103 염불(念佛)104 시킨 공덕으로 이
 극락(極樂)에 나왔노라
 나는 과거 본행(本行)105 시(時)에 탑사(塔寺)를106 이룩하고 불도량(佛道場)을107 소쇄(掃灑)하여
 108 죽는 목숨 살려주며 청정 계행(淸淨戒行)109 수지(受持)하여110 삼귀 오계(三歸五戒)111 팔관재
 (八關齋)와112 십선업(十善業)을113 수행하고 이 극락(極樂)에114 나왔노라 나는 과거 본행(本行)115
 시(時)에 십재일(十齋日)에116 목욕하고 재일 성호(齋日聖號)117 염송(念誦)하며118 비밀 진언(秘密
 眞言)119 지송(持誦)하고120 이 극락(極樂)에 나왔노라 나는 과거 본행 시에 우물 파서 보시(布施)하
 고121 험한 도로 수축하며 무거운 짐 대신 지고 새벽마다 서향(西向)하여 사성존(四聖尊)께122 예배하
 며 평원 광야(平原曠野)에123 정자(亭子) 심어
 왕래인(往來人)을 쉬게 하며 유월(六月) 염천(炎天)124 더운 때에 참외 심어 보시하며 큰 강수(江水)에
 배를 띄우고 적은 냇물에 다리를 놓아 왕래인을 통섭(通涉)하며125 산고 곡심(山高谷深)126 험한 길에
 실로자(失路者)를 지로(指路)하며127 그믐 칠야(漆夜)128 밤길 가는 저 행인(行人)을 햇불 주며 앞 어
 두운 맹안인(盲人)이129 개천구렁 건너거든 붙들어서 인도하며 타향 객사(他鄉客死) 거리의 송장 선
 심(善心)으로 묻어주며130 사고무친(四顧無親)으로131 병든 사람 지성으로 구완하며132 이런 공덕(功
 德)133 갖추어 닦아 이 극락(極樂)에 나왔노라 나는 과거 본행(本行) 시에
 십악 오역(十惡五逆)134 두루 짓고 무간지옥(無間地獄)135 갔을 터데 임종시(臨終時)에136 선우(善
 友)만나137 겨우 십념(十念)138 염불하고 이 극락에 나왔노라 나는 과거 본행 시에 삼악도(三惡道)139
 중에서 수고(愁苦)였는데140 우리 효순 권속(孝順眷屬)들이141 날 위하여 공덕 닦아 이 극락에 나왔노
 라 천차만별(千差萬別) 본행(本行)142 일을 이같이 의논하며 극락세계(極樂世界) 공덕 장엄(功德莊嚴)
 무량겁(無量劫)을 헤아려도143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경계(境界)로다144 어이 하여 그러하고 과거 구
 원(過去久遠) 무량겁에 유불 출세(濡佛出世)하오시니145 세자재왕(世自在王)146 여래씨(如來氏)라
 147 그 때에 전륜왕(轉輪王)은148
 이름이 교시가라149 국왕(國王)의 위(位) 버리시고 발심 출가(發心出家)하여150 비구(比丘)되니151
 승명(僧名)이152 법장(法藏)이라153 세자재왕(世自在王) 여래(如來)154 전에 사십팔원(四十八願)155
 세우시니 하늘에서 꽃비 오고 대지 세계(大地世界) 진동하더라 그 후로 무량겁(無量劫)을156 난행 고
 행(難行苦行) 다급(多劫)하여157 사십팔원(四十八願) 성취하사 극락세계(極樂世界) 장엄(莊嚴)하고
 158 그 가운데 성도(成道)하니159 우리 도사(導師)160 아미타(阿彌陀)라161 삼계화택(三界火宅)의

162 동무들아 오욕락(五慾樂)만163 탐착(貪着) 말고164 생사 장야(生死長夜)에165 꿈을 깨어 이 말씀을 신청(信聽)하여166 아미타불(阿彌陀佛) 대성호(大聖號)를167 일심(一心)으로 외우시되
 과거사(過去事)도 분별 말고 미래사(未來事)도 사랑(思量)168 말고 삼계(三界)의 만법(萬法)169 온갖 것이 몽환(夢幻)인170 줄 관찰(觀察)하고 십이시(十二時)171 중(中) 주야(晝夜) 없이 어린 아이 쫓 생각하듯 목마를 제 물 생각하듯 역경계(逆境界)도172 아미타불(阿彌陀佛) 순경계(順境界)도173 아미타불(阿彌陀佛) 행주 좌와(行住坐臥)와174 어묵 동정(語默動靜)의175 일체시(一切時)와 일체처(一切處)에176 일념 미타(一念彌陀)177 놓지 마오 일구 월심(日久月深)178 오래 하면 허다 정량(許多情量)179 없어지고 염불 삼매(念佛三昧)180 성취하여 전후의 삼제(三際)181 끊어지고 인아 사상(人我四相)182 무너지면 십만 억토(十萬億土)183 극락세계 자심(慈心)184 중에 나타나고 만덕 존상(萬德尊像)185 아미타불
 방촌(方寸)186 중에 보일 것이니 자심(慈心) 외에 극락 없고 극락 외에 자심(慈心) 없네 내 마음이 아미타요 아미타가 자성(自性)일새187十方세계(十方世界) 무변(無邊)하나188 내의 자성(自性) 변만하니189 내 자성((自性)이 변만고로 제불심(諸佛心)도190 변만하고 내지 육도(內智六道)191 중생심(衆生心)도192 날날각각 변만하니 일이로되 일 아니요 다른 데도 불별(不別)일새193 한 방안에 일천 등불 광명(光明) 각각 변만하되 서로서로 걸림 없네 임마 전지(徃麼傳持)194 이르면 사바 극락(娑婆極樂)이195 둘 아니요 범부 성인(凡夫聖人)196 따로 없어 처처(處處) 극락(極樂) 현전(現前)하고197
 영영 미타(念念彌陀)하며198 출세(出世)로다199 이같이 수행인(修行人)은200 임명종시(臨命終時)201 당하면 팔만 상호(八萬相好)202 장엄(莊嚴)한 보신미타(報身彌陀)203 영접(迎接)하사 실보토(實報土)와 향적 광토에 상품 연화(上品蓮花) 왕생(往生)하니204 방가위지(方可謂之)205 대장부(大丈夫)라 정토 왕생(淨土往生)하는 법이206 한가지로 정함이 없네 근기(根機)조차207 무량(無量)하니 우리 극락(極樂) 상선인(上善人)의208 본행(本行)209 말씀하신 중에 내 근기(根機)에 맞는 대로 수분(守分)하여 수행(修行)하오210 천파 만류(千波萬流)211 흐르는 물 한 바다로 들어가고 만행 중선(萬行衆善)212 모든 공덕 동귀(同歸)213 자랑 극락(極樂)일새 진실심(眞實心)만214 판단하여
 왕생(往生)하게 발원(發願)하면215 임명종시(臨命終時)216 죽을 때에 근기(根機)대로 왕생하되 상근기(上根機)는 상품(上品)가고 중근(中根) 하근(下根) 되는 이는217 장륙 팔척(丈六八尺)218 화신 미타(化身彌陀)219 각각 영접(迎接)하오시되 방편토(方便土)와 동거토(同居土)에220 중근인(中根人)은 중품 연화(中品蓮花)221 하근인(下根人)은 하품 연화(下品蓮花)222 내의 생전 님은 대로 어김없이 왕생(往生)하네223 아미타불(阿彌陀佛) 영접(迎接)하되 미타(彌陀)는224 실로 온바 없고 나의 심식(審識)으로225 왕생(往生)하되 나도 실로 간바 없네 아니 가고 아니 와도 성범(聖凡)이226 재회(齋會)하고227 감응(感應)이 도교(道交)하여228 영접(迎接)하며 왕생(往生)하니
 이 무슨 도리(道理)이런고 청천(青天)에 밝은 달이 천강수(天江水)에229 비취오나 달이 실로 온바 없고 물도 실로 아니 가되 강수(江水)가 징청(澄清)한230 고(故)로 밝은 달이 나타나고 만일 물이 흐리면 달 그림자 없어지니 물의 청탁(淸濁) 탓이언정 달은 본래 거래(去來)231 없네 이도 또한 이와 같아 내 마음이 흐린 고로 불신(佛身)을232 못 보다가 임종 일념(臨終一念)233맑은 고로 불월(佛月)이234 나타나니 내 마음이 청탁(淸濁)에 있지 불(佛)은 본래 거래가 없네 두 사람이 달을 보되 한 사람은 크게 보고
 한 사람은 작게 보니 보는 안정(眼睛)의235 다름에 있지 달은 본래 대소(大小) 없네 이도 또한 이와 같아서 팔만 상호(八萬相好)236 보신불(報身佛)과237 장륙 팔척(丈六八尺)238 화신불(化身佛)이239 근

기(根機)조차240 나타나니 중생의 지견(智見)에241 차별이 있지 불(佛)은 본래 대소(大小) 없네 하늘 사람 밥 먹을 제 보배 그릇 한가지나 과거에 복덕(福德)242 지은 대로 음식 빛이 부동(不同)하니 이도 또한 이와 같아서 극락(極樂)은243 하나이나 사중 정토(四種淨土) 구품 연화(九品蓮花)244 근기(根機)조차 각각 보네 정토업(淨土業)을245 수행할 제 의심을 품고하면 이 목숨 마친 후에 명부(冥府)에서246 상관없고 미타(彌陀)247 아니 영접(迎接)하니 별로 갈 곳 없사오나 의성(疑城)이라248 하는 곳에 연대(蓮臺)249 중에 몸을 받아 오백세(五百歲)를 복락(福樂)250 받고 다시 정업(淨業)251 닦은 후에 극락(極樂)으로 왕생(往生)하니 필경(畢竟)에는 가드라도 오백세(五百歲)나 지체(遲滯)하여 아미타불(阿彌陀佛) 못 뵈오니 정토발원(淨土發願)하는252 사람 결정 신심(決定信心)253 이루어서 의심(疑心)을 부디 마오 만일 다시 분별(分別)254 내되 지은 죄업(罪業) 무량(無量)하고255 수행(修行)한 지 불구(不久)하여 원결 부채(怨結負債)256 많이 저서 벗어나기 어려우면 임종시(臨終時)에257 아미타불(阿彌陀佛) 영접(迎接)하지 아니실까 이 분별(分別)을 부디 마오 정진 수행(精進修行)하드라도258 이 분별이 장애(障礙)가 되어 왕생(往生)259 길을 막으오니 여하 약하(如何若何)260 묻지 말고 필경(畢竟) 왕생(往生)하올 줄로 결정(決定)이 신(信)한 후(後)에261 아미타불 하는 생각 단단 적적(端端的)262 붙들어서 산란심(散亂心)이263 동(動)하거든 더욱 정신을 가다듬소 명주투어탁수(明珠投於濁水)하면264 흐린 물이 맑아지고 불호투어난심(佛號投於亂心)하면265 난심(亂心) 즉시 불심(佛心)일새266 내의 화살 바로 가면 저 관혁(貫革)을267 못 맞출까 보름달이 원만(圓滿)키는268 초승달로 시작이요 천리 원정(千里遠程)269 득달(得達)함은270 첫걸음이 시작일세 극락(極樂)이 멀다 하나 나의 일념(一念)271 진실(眞實)하면 수인 결과(修因結果)하는272 날에 미타 성존(彌陀聖尊)273 아니 볼까 인생 일세(人生一世)274 덧없어 백년 광음(百年光陰) 몽중(夢中)이라275 달팽이 뿔 가관(可觀)이나 무엇에 쓰잔 말고 부귀 영화(富貴榮華) 좋다 하나 달팽이 뿔 다름없네 새벽이슬 구슬 된들 얼마 오래 보존할꼬 인간 칠십 고래희(人間七十古來稀)나276 새벽이슬 다름이 없네 칼끝에 묻은 꿀을 어린 아이 활아먹다 혀를 필경 상하거니와 지혜자(智慧者)야277 돌아볼 것인가 맛은 좋아 죽는 음식 미련한 놈 먹고 죽지 지혜자(智慧者)야 그러할까 여보 오욕(五慾) 수락인(受樂人)들278 죽는 음식 그만 먹소 생로병사(生老病死)279 무서운 불 화택(火宅) 사면(四面)280 붙어오니 그 가운데 잊지 말고 이문(二門)으로281 어서 오소 삼계(三界)의282 화택(火宅) 내닫기는 정토문(淨土門)이283 제일일세 고헤(苦海)284 중에 빠진 사람 이 배를 어서 타소 생사(生死) 바다285건너기는 미타선(彌陀船)이286 제일일세 바다의 보배 천 가지나 여의주(如意珠)가287 으뜸이요 의약 방문(醫藥方文) 만품(萬品)이나288 무산(無憂散)이289 으뜸이요 팔만 사천(八萬四千) 방편문(方便門)290 수월문문가입(雖曰門門可入)이나291 생사윤회(生死輪迴)292 빨리 벗고 불법성(佛法城)에293 바로 감은 정토법문(淨土法門)이294 으뜸일세 제불보살(諸佛菩薩) 출세(出世)하사295 천경 만론(千經萬論)296 이른 말씀 미타 정토(彌陀淨土)297 칭찬하사 고구(苦口)로 정녕(丁寧) 권하시니298 우리 범부(凡夫) 사람들이 성인(聖人) 말씀 아니 듣고 누구 말을 신청(信聽)하며 극락정토(極樂淨土)299 아니 가고 다시 어디 갈 곳 있나 오탁 악세(五濁惡世)300나온 사람 과거(過去) 죄업(罪業)301 깊은 고로 이런 말씀 불신(不信)하여 비방(誹謗)하고302 물러가니 불에 드는 저 나비와 고치 짓는 저 누에를 그 뒤라서 구제(救濟)할까 정토 수행(淨土修行)하는303 사람 신구의(身口意)를 조섭(調攝)하여304 십악업(十惡業)을305 짓지 마오 과거 생사(生死)는306 무량겁(無量劫)에307 육도 사생(六道死生)308 순환(循環)하니 예서 죽어 제

가 날 제 부모 없이 나실런가 일로 좇아 생각건대 혈기 있는 준동 함령(蠢動含靈)309 무비다생부모(無非多生父母)로다310 산목숨 죽이는 이는 살부 살모(殺父殺母)나311 다름이 없네 황어경(況於經)에 하온 말씀312 혈기 있는 중생류(衆生類)가313 필경 성불(成佛)한다314 하니 살생(殺生)하는 저 사람은 미래불(未來佛)을315 죽임이라 호생 오사(好生惡死)하는316 마음 나와 저와 일반인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남의 목숨 죽이오니 형세 강약(形勢強弱)317 부동(不同)하여 죽인 바를 입사오나 맺고 맺는 원한심(怨恨心)이318 구천(九泉)에319 사무치네 생사고락(生死苦樂)320 순환(循環)하니 타일 삼도(他日三途)의 321 저 고통을 누가 대신 받아줄꼬 검수 도산(劍樹刀山)322 저 지옥에 근단 골절(筋斷骨折)323 몇 번 하며 확탕 노탄(鑊湯爐炭)324 저 지옥에 혈육 초란(血肉焦爛)325 수326 있던가. 지옥고(地獄苦)를327 필(畢)한 후에 피모 대각(被毛戴角) 육축(六畜)되어328 목숨 빛을 갚을 적에 나는 한번 죽었건만 갚는 수는 무수(無數)한들 수원수구(誰怨誰咎)329 한(恨)을 할꼬 옛적에 한 엽사(獵師)가330 다섯 사슴의 눈을 빼고

지옥고(地獄苦)를 갖추어 받고 인간에 사람 되어 오백겁(五百劫)을331 눈 빼이니 인과 보응(因果報應) 332 역력(歷歷)커늘 어이 그리 불신(不信)하는고 아무리 빈궁(貧窮)해도 도적질을 부디 마오 승야월장(乘夜越牆)하는333 것만 도적업(盜賊業)이334 아니오라 남의 재물 방편(方便)으로 비리 행취(非理行取)하는335 것이 백주 대적(白晝大賊)336 이 아닌가 저물을 내놓고 되와 말 내놓음은 공변되게337 하자는 것이나 주고받는 여수간(與受間)에338 그 농간이 무수하니 야속하다 인심이여 어이 하여 그러한고 부모와 자식은 천륜(天倫)이라339 네 것 내 것 없건마는

옛적에 한 노모(老母)가 여자식(女子息)이 가난하거늘 백미(白米) 닷 되 돌려내어 아들 몰래 주었더니 모녀(母女) 같이 죽어서는 큰 말이 되며 새끼 되어 그 아들을 태웠으니 모자간(母子間)도 저러하거든 남의 것을 의론(議論)할까340 아무리 욕심이 나도 사음(邪淫)을341 부디 마오 나의 처(妻)도 족(足)하거든 남의 처첩(妻妾)342 무슨 일인고 옛적에 한 사람이 남의 첩을 통간(通姦)할343 제 본부(本夫)가 344 볼까 두려워 사면(四面)으로 살폈더니 죽은 후에 아귀(餓鬼)되어345 기화(飢火)가 치성(熾盛)하여 346 오장 육부(五臟六腑)가347 모두 타며

사면(四面)의 철방(鐵槊)으로348 타살(打殺)하니 괴롭고 무섭도다 고인(古人)이 이르시되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349 하니 입으로 짓는 허물 모르는 겨를에 가장 많다 발설 지옥(拔舌地獄)의350 고(苦)를 보소 혀를 빼어 발을 가니 거짓말로 남 속일까 두 말하여 이간(離間)을351 말아요. 백설조(百舌鳥)가 352 이 아닌가 하물며 악담죄(惡談罪)는353 그중에 더 중하니 옛적에 한 사람은 한번 악담하온 죄로 백두어(白頭魚)가354 되었으며 또 옛적에 한 여인은 지은 허물 발명(發明)하고자355 가지가지 악담(惡談)하고 죽은 후에 아귀(餓鬼)되어356

제 고기를 삶아내어 제가 도로 먹었으니 악담 부디 하지 마오 남을 향해 하는 악담 내가 도로 받느니라 하늘로 밝은 침이 내 얼굴에 아니 질까 술을 부디 먹지 마오 술의 허물 무량(無量)하다357 온갖 죄를 다 짓나니 술집 한번 가리키고 오백겁(五百劫)을358 손이 없거든 황어(況於)359 친히 먹을 손가 의적(儀狄)이 작주(作酒)어늘360 우(禹) 임금은361 멀리 하고 나한(羅漢)이362 대취(大醉)하거늘 세존(世尊)이363 꾸짖으시니 술의 허물이 없을진데 성인(聖人)이 금할 것인가 똥과 오줌 끓는 지옥(地獄) 저 고통이 무서워라 부디 탐심(貪心)364 내지 마오 살도음망(殺盜淫妄)365 모든 죄를 탐심으로 모두 짓네 옛적에 한 장자(長者)는366 재물 탐착(貪着)367 못 놀더니 죽은 후에 백구(白駒)368되어 그 재물을 지켰으며 또 옛적에 한 사람은 황금 칠병을369 두고 죽어 뱀의 몸 받았으니 그 아니 무서운가 부디

진심(塵心)370 내지 마오 진심 죄보(塵心罪報)371 무량하여 팔만 장문(八萬牆門)372 일어나네 옛적에
 흥도 비구(弘道比丘) 다겁(多劫)을373 공부하여 거의 성불(成佛) 가깝더니 한번 진심(塵心) 일으키고
 서 대망(大蟒)의374 몸 받았으니

놀랍고 두렵도다 만일 사견(邪見)375 일으키어 선악 인과(善惡因果)를376 불신(不信)하면 무간지옥
 (無間地獄)377 들어가서 천불(千佛) 출세(出世)하드라도378 나올 기약 바이379 없네 고(故)로 옛적 선
 성 비구(善星比丘)380 이십년을 시불(侍佛)하여381 십이부경(十二部經)을382 통달하고 사선정(四禪
 定)을 얻었더니383 악지식(惡知識)을384 인연하여 인과(因果)를385 불신(不信)타가 생함 지옥(生陷地
 獄)하였으니386 중생 죄업(衆生罪業)387 무량(無量)한 중 사견죄(邪見罪)가388 제일이네 파 마늘을
 먹지 마오 생으로는 진심(塵心)을389 돕고 익힌 것은 음심(淫心)390 돕네 담배 이름 다섯 가지 담약초
 며 분사초라

선신(善神)은391 멀리 가고 악귀(惡鬼)가392 뒤쫓으니 알고 차마 먹을 것인가 여시죄목(如是罪目)393
 무수하여 일우측량(日尤測量)할 길 없네394 화택중(火宅中)에395 있는 중생(衆生)396 누가 아니 지었
 을까 과거부터 이 몸까지 지은 죄(罪)를397 생각하면 죄가 형상(形象) 있을진대 허공계(虛空界)를398
 다 채워도 남는 죄가 많으니 이 죄업(罪業)을399 거저 두고 화택(火宅) 어찌 벗어나며 극락(極樂) 어
 지 왕생(往生)할고400 우리 세존(世尊) 대법왕(大法王)이401 죄악중생(罪惡衆生)402 슬피 여겨 참회
 문(懺悔門)을403 세우시니 승속 남녀노소(僧俗男女老少)404 없이 지은 죄를 생각하여

참고심(慙愧心)을405 일으켜서 이참 사참(理懺事懺)406 두 가지로 삼보전(三寶前)에407 참회(懺悔)하
 오 이참(理懺)이라 하는 것은 죄의 자성(自性)408 추구하지만 두목수족(頭目手足) 사대 색신(四大色
 身) 혈육 피골(血肉皮骨)409 모두 중에 죄의 자성 어디 있나 내 신중(身中)에 없을진댄 색성 향미(色聲
 香味) 외경계(外境界)에410 죄의 자성(自性) 어디 있나 자세히 추구하되 내외(內外)에 없을진댄 중간
 (中間)인들 있을 것인가 내외 중간(內外中間)에 모두 없어 죄성(罪性)이 공적(空寂)하다411 죄성이 공
 적하니 죄상(罪狀)인들412 있을 손가 내의 자성(自性) 청정(淸淨)하여 본래 일물(本來一物) 걸림이 없
 네413

태허공(太虛空)에414 새가 나니 새는 자취 어디 있나 자성(自性)은 허공(虛空)에415 청정하니 죄상(罪
 狀)의 자취 있을 손가 담담 창해(淡淡滄海)에416 바람 일어 천파만랑(千波萬浪) 흥흥(洶洶)417터니 바
 람 하나 그친 후에 천파만랑(千波萬浪) 간 데 없네 내의 자성(自性) 바다 중(中)에 현전 일념(現前一念)
 418 허망(虛妄)하여 죄구 파랑(罪垢波浪)419 분분(紛紛)터니 현전 일념 진실하니 무한 죄구(無限罪垢)
 도420 간 데 없네 이(理)는421 실로 이러하나 사상(事相)으론 불연(不然)하다422 꿈이 비록 허망하나
 흉몽(凶夢)에는 흉사(凶事)가423 있고 길몽(吉夢)에는 경사(慶事)를424 보니 꿈을 일향(一向)425 허망
 하다 할까 죄가 비록 허망하나

후세 업보(後世業報)426 분명하니 삼보 신력(三寶神力)427 아니시면 죄를 어찌 소멸(掃滅)할고428 아
 등 도사(我等導師)429 아미타불(阿彌陀佛) 사십팔원(四十八願)하온430 말씀 내지십악오역인(來至十
 惡五逆人)이431 임종시(臨終時)에432 이르러서 지옥 악상(地獄惡相)433 나타나도 내 명호(名號)를
 434 지성으로 열 번만 일컬어도 염불 소리 한 마디에 팔십 억겁(八十億劫) 생사죄(生死罪)가435 춘설
 (春雪) 같이 녹아지고436 하품 왕생(下品往生)한다437 하니 대의재(大矣哉)라 아미타(阿彌陀)여438
 고해 보벌(苦海寶筏)이439 아니신가 누천년(累千年)을440 기른 수플 일성화(一星火)로441 불사르며
 천년 암실(庵室)442 어두움을 한 등불로 파(破)했도다

아미타불(阿彌陀佛) 한 소리에 천마 외도(天魔外道) 공포(恐怖)하고443 도산 검수(刀山劍樹)444 부러

지니 과연 삼계 도사(三界道士)로다445 정도 법문(淨土法門) 심신(深信)하여446 극락(極樂) 가게 발원(發願)하면447 염라대왕(閻羅大王)448 문서(文書) 중에 나의 성명(姓名) 외워내고 극락세계(極樂世界) 칠보(七寶) 못에449 연봉(蓮峰)450 하나 솟아나서 내 성명을 표제(標題)하고 나의 수행(修行)하는451 대로 연화(蓮花) 점점 무성타가 안광 낙지(眼光落地)하온452 후에 그 연태에453 난다 하니 즉금(卽今)454 영불하는 사람 비록 인간에 있사오나 벌써 극락(極樂)의455 백성이라 동방 세계(東方世界) 약사여래(藥師如來) 팔보살(八菩薩)을456 보내시고

서방 세계(西方世界)457 아미타불 스물다섯 대보살(大菩薩)로458 이 사람을 호위하며 시방 제불(十方諸佛) 호념(護念)하고459 천룡 귀신(天龍鬼神)460 공경하니 천상(天上) 인간 세계(人間世界)461 중에 최존 최귀(最尊最貴)함이462 제일일세 만일 도로 퇴전(退轉)하면463 그 연화(蓮花)가 마른다 하니 생사윤회(生死輪廻)는464 차치(且置)하고465 연꽃 아니 아까운가 여보 영불 동무님네 부디부디 퇴전(退轉)을 마오 도도(滔滔)한466 동류수(東流水)는467 창해(滄海)바다468 가기 전에 쉬는 일이 잠간도 없네 최존 최귀(最尊最貴)한 사람 되어 무정수(無情水)만469 못할 손가. 투석 낙정(投石落井)470 거동 보소 도저(到底)471 전엔 안 그치네

한번 시작하온 일을 성취(成就) 전에 그칠 것인가 남염부주(南閻浮州)472 나온 사람 심식(深識)이473 무정하여 아침나절 신(信)하다가 저녁나절 퇴전(退轉)하며 서러워라 신(信)하여도 결정 신근(決定信根)474 전혀 없어 목전 경계(目前境界)475 보는 대로 다른 소원 무수하니 불상하고 가련하다 만당 처자(滿堂妻子) 애착(愛着)하고476 금은 옥백(金銀玉帛)에 탐심(貪心)477 두니 목숨 마치고 돌아갈 제 어느 처자(妻子) 따라오며 금은(金銀) 가져 노자(路資)할까478 생사 광야(生死廣野)479 험한 길에 나의 고혼(孤魂)480 홀로 가니 선근 공덕(善根功德)481 없으면 삼악도(三惡道)의482 깊은 구렁 화살 같이 빠르게도 들어가네 또다시 어떤 사람 평시(平時)에는 영불타가 병(病)이 들면 아주 잊고 아픈 것만 싫어하며 살기만 바라다가 생사 노두(生死路頭)483 빠른 때에 삼백 육십(三百六十) 뼈마디를484 바람칼로 에워내니 수망 각란(手忙脚亂)485 손발을 짓고 출입식(出入息)이 요요(寥寥)하여486 맑은 정신이 벌써 날아나 명도지계(冥途之界)에487 던진 후에 임종(臨終)488 영불하여 주니 무슨 효험이 있을 것인가 도적이 나간 후 문 닫으니 무엇을 잡으려나 생전의 약간 영불 공덕(念佛功德) 악업 담자(惡業擔子)489 못 이겨서 수업 승침(隨業昇沈) 윤회(輪廻)하네490

평시(平時)에 병법(兵法) 익혀 난시(亂時)에 쓰자드니 적진(敵陣) 보고 퇴쟁(退鎗)491 치니 평시(平時) 적공(積功)492 쓸 데 없네 생전에 영불하여 임종(臨終)에 쓰자드니 정념(正念)을 미실(迷失)하고493 사마(邪魔)에 순복(順服)하니494 일생 영불 와해(瓦解)로다495 여보 영불 동무님네 이 말씀을 신청(信聽)하오496 병고(病苦) 만일 침노(侵擄)커든 생사 무상(生死無常)을497 가끔 깨쳐 살기도 탐착(貪着)498 말고 죽기도 두려워 말고 이 세계를 싫어하여 극락(極樂)499 가게 생각하며 이 몸이 허환(虛幻)하여500 괴로움이 무량(無量)하니501 연화대(蓮花臺)502 속 어서 가게

일심(一心)으로 기다리되 천리 타향(千里他鄉) 십년(十年)만에 고향(故鄉)으로 가는 듯이 부모 잃고 개걸(丐乞)타가503 부모 찾아 가는 듯이 만덕 홍명(萬德鴻名)504 아미타불 지성(至誠)으로 생각하여 술과 고기 드는 악은 부디부디 먹지 말며 문병인(問病人)과 시병인(侍病人)과505 집안 권속(眷屬)506 당부하되 내 앞에서 객담(客談)507 말고 부드러운 애정(愛情)으로 낙루(落淚)하여508 위로 말며 가사 범백(家事凡百)509 묵지 말고 일심(一心)으로 영불하여 나의 정념(正念)510 도와주며 내가 만일 혼미(昏迷)커든 가끔 깨우쳐 권념(勸念)하며511 임종시(臨終時)가512 당하거든

서향(西向)하여 누워두고 일시 조념(助念)513 영불하며 임종한 지 오랜 후에 곡성(哭聲)을 내게 하소

이같이 임종(臨終)하면 평소 염불(平時念佛) 않더라도 즉지서방(卽至西方)하오거든514 황어(況於)515
 염불하던 사람 다시 무슨 의심(疑心)할까 병이 비록 중하여도 귀신에게 비지 마오 수요장단(壽夭長短)
 516 정한 것을 적은 귀신 어이 할고 부처님 방광(放光)하니517 방광이 이름은 견불(見佛)이라518 임종
 인(臨終人)을 권념(勸念)하고 이 광명을 얻었다니 사람 짐승 물론하고 죽는 자를 만나거든 부디 염불하
 여 주오

여보 효순(孝順)하는 권속(眷屬)들아519 혼정신성(昏定晨省)하온520 후와 감지지공(甘旨之供)521 바
 친 후에 염불 법문(念佛法文) 봉권(奉勸)하오522 생전(生前)에만 효순(孝順)하고 사후 고락(死後苦樂)
 523 모르오면 지극 효심(至極孝心)524 어디 있나 부모님께 죄 되는 일 호읍수지(號泣隨之) 간(諫)하옵
 고525 모든 선근(善根)526 되는 일은 지성으로 권한 후에 부모 평생 지은 공덕 날날이 기록하여 병환
 (病患)에 계시거든 시탕(侍湯)하온527 여가(餘暇)에는 염불로 권념(勸念)하며528 다투신 선근 공덕(善
 根功德)529 자세히 일러드려 정념(正念)을 격발(激發)하여530 임종(臨終)까지 이러하면

바로 극락(極樂)531 가시리니 남의 자식 되는 사람 이 말씀을 잊지 마오 우리 세존 석가(世尊釋迦)님도
 532 정반 부왕(淨飯父王)533 권한 말씀 아미타불 염불하여 극락(極樂)으로 가라 하시며 중국에 장로
 선사(長老禪師)534 그 어머니 출가(出家)535 시켜 염불 법문(念佛法文)536 권할 제에 권화문(勸化文)
 을537 지었으되 세출 세간(世出世間)538 두 효도를 갖춘 말씀하였으니 우리 불조(佛祖)539 효행(孝
 行)대로 일체인(一切人)이 봉지(奉旨)하오540 무병인(無病人)이541 염불하매 다병(多病)타고 비방(誹
 謗)542 마오 전세 죄업(前世罪業)543 중한 고로 사후 지옥(死後地獄)544 가올 것을 즉금(卽今) 염불
 공덕으로

지옥죄(地獄罪)를 소멸(掃滅)하고545 가볍게 받음이로세 장병(長病)546 있던 풍부인은 염불하고 병 나
 으며 눈 어두운 양씨의 여(女)는547 염불하고 눈 뚫으니 내의 정성 지극하면 이런 효험 아니 볼까 염불
 비방하는 사람 부귀 창성(富貴昌盛)한다548 마소 전세(前世)에 종복(種福)하고549 즉금 부귀 받거니와
 금세(今世) 비방(誹謗)하온 죄는 후세(後世)에 필경 받느니라 농사하는 법을 보소 팔 심으면 팔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네 즉금 어떤 미련한 놈 가시나무 심어두고 버 피기를 기다리네

사람의 몸 바다에 나가 맹귀우목(盲龜遇木)550 어려우며 불법 난봉(佛法難逢) 희유(稀有)함이551 우담
 화(優曇華)에552 지내거늘 다행하다 우리 사람 속세(宿世)에553 무슨 선근(善根)으로554 사람의 몸
 받아나고 불법까지 만났는고 이런 불법 만났을 제 듣고 아니 하는 이는 불보살(佛菩薩)의 대자비(大慈
 悲)인들555 저를 어찌 제도(濟度)할고556 세계(世界) 생긴 최초에는 인수(人壽)가 팔만 사천 세(八萬
 四千歲)라557 복락(福樂)이 무량(無量)터니558 백년(百年)을 지낸 후에 정명(定命)559 일세(一歲) 감
 하오니 백년만큼 감하여서 삼십 정명(三十定命)560되올 때에 기근겁(饑饉劫)이561 일어나니

일체 곡식 모두 없고 인상식(人相食)을562 서로 하여 칠년 칠월 이러하니 사람 인류(人類) 거의 없네
 이십 정명(定命) 되올 때에 질병겁(疾病劫)이563 일어나니 맹화(猛火)564 같은 독한 병이 변천하(變天
 下)에565 두루 하여 칠월 칠일 지내도록 만나는 자 즉사(卽死)하니566 남은 사람 얼마 이르고 십세 정
 명(十歲定命)되올567 때에 도병겁(刀兵劫)이568 일어나니 사람마다 악심(惡心)569 내어 초목 와석(草
 木瓦石)570 잡는 대로 창검(槍劍)이 절로 되어 부모 자식 상살(相殺)하니571 온 세계에 죽음이라 칠일
 을 지낸 후에 몇 사람이 남았던고

이것이 소삼지라572 인수(人壽) 팔만 사천 세(八萬四千歲)라573 십세 정명(定命) 이르면 이것은 감겁
 (減劫)이요574 다시 백년 지낸 후에 정명 일세(定命一歲) 더 하오면 이같이 점증(漸增)하여575 도로 팔
 만 사천(八萬四千) 되면 이것은 증겁(增劫)이라576 이십 증감(增減)577 지낸 후에 칠일이 병출(竝出)

하여578 사바세계(娑婆世界) 백억 천하(百億天下)579 일시에 불이 일어 높은 산과 깊은 바다 욕계천(欲界天)과580 색계(色界) 초선(初禪)581 날날이 재가 되니 그 다음 비가 와서 초선(初禪)까지 물이 차서 이선천(二禪天)이582 무너지네 또다시 대풍(大風)이 불어 삼선천(三禪天)이583 무너지니 이것은 대삼재(大三災)라584 이 세계 생긴 후에 팔증감(八增減)은585 이과(已過)하되586 부처님은 아니 나고 즉금(卽今)은 제구 감겁(第九減劫)이라587 인수 정명(人壽定命)588 육만(六萬)일 때 구류손불(拘留孫佛)589 출세하고 인수 정명 사만 시(四萬時)에 구나함불(俱那含佛)590 출현하고 인수 정명 이만 시(二萬時)에 가섭불(迦葉佛)이591 출래(出來)하고 우리 세존(世尊) 석가여래(釋迦如來)592 대자대비(大慈大悲)함이 증승(曾勝)하사593 인수 백세(人壽百歲) 정명시(定命時)에594 가비라국(迦毘羅國)595 출현하니 그믐 칠야(漆夜)596 어두운 밤 추정 만월(秋庭滿月)597 돌아온 듯 칠년 대한(七年大旱)598 가운 때에 감로 세우(甘露細雨)599 내리신 듯 삼백여 회(三百餘回) 설법(說法)하여600 도탈 중생(度脫衆生)하옵고601 칠십 구년(七十九年) 주세(住世)하사602 이락 군품(移樂群品)하온603 후에 사라쌍수(沙羅雙樹) 열반(涅槃)하니604 혼구 장야(昏瞶長夜)605 도로 되네 불신(佛身)은 상주(常住)하사606 본래 생멸(生滅)이607 없건마는 중생 근기(衆生根機)608 차별하여 생(生)도 보고 멸(滅)도 보네 정법 상법(正法像法)609 이천 년(二千年)은 벌써 이미 다 지내고 계법(戒法)으로610 만년(萬年) 더위잡아 팔백여 세(八百餘歲) 이과(已過)하고 즉금(卽今)은 칠십 정명(七十定命)이라611 사천년(四千年)을 또 지내어 삼십 정명(三十定命) 돌아오면 남염부주(南閻浮州)612 있는 나라 십만 오백 십육 국(十萬五百十六國)에 소삼재(小三災)가613 일 것이니 영불 앓고 노는 사람 설사 악도(惡道)614 아니 가고 세세생생(世世生生)615 사람 된들 저 삼재(三災)를616 어이 할꼬 저 때 중생 박복(薄福)하여 불법(佛法)이 없건마는 오직 정토(淨土)의 미타경(彌陀經)이617 백년을 더 머무시어 접인중생(接引衆生) 하신다니618 광대(廣大)하다 미타 원력(彌陀願力)619 무엇으로 비유할꼬 고인(古人)이 이르시되 오탁(五濁)이 증극(增極)하여620 삼재겁(三災劫)이621 가까우니 미타 원력(彌陀願力) 아니시면 사행 사고(四苦) 난탈(難脫)이라622 이같이 일렀으니 공포심(恐怖心)을623 어서 내어 부지런히 영불하오 근래 어떤 공부인(工夫人)은624 극락 미타(極樂彌陀) 따로 없어625 내 마음이 극락(極樂)이요 내 자성(資性)이626 미타(彌陀)라고 아만심(我慢心)이627 공고(鞏固)하여 정토업(淨土業)을 멸시하니628 박복 다장(薄福多障)한629 탓이라 무슨 의논 할 것 없네. 내 마음이 부처라 한들 탐진 번뇌(貪瞋煩惱) 구족(具足)하니630 제불 만덕(諸佛萬德)이631 어디 있나 형산옥(荊山玉)이632 보배라 한들 거저 두어 쓸 때가 있나 양장(良匠)이633 얻어다가 탁마(琢磨)하여634 만든 후에 온유지덕(溫柔之德)635 나타나서 천하 보기(天下寶器)636 성취하니 자심불(慈心佛)도637 이와 같아 번뇌 무명(煩惱無明)638 어디 쓸 것인가 미타 양장(彌陀良匠)639 친근하고 만행(萬行)으로640 탁마(琢磨)하여 번뇌 뜻을 제거하고 항상 성덕(恒沙聖德)641 나타나면 자성불(自性佛)이642 이 아닌가 자성불에 착한 사람 인적위자(認賊爲子)643 부디 마오 사바세계(娑婆世界) 청정(淸淨)함이644 자재천궁(自在天宮)645 같은 것을 나계범왕(螺髻梵王)646 홀로 보고 대지 상덕(大智上德) 사리불(舍利弗)도647 토석(土石)으로648 보았으니 황어(況於) 우리 구박범부(具縛凡夫)가649 임종 일념(臨終一念)650 실수하면 삼악도(三惡道)에 포복(匍腹)하니651 자성 극락(自性極樂)652 믿을 것인가 아만심(我慢心)이653 공고(鞏固)하고 하열심(下劣心)이 비루(鄙陋)한654 고로 높은 산과 낮은 구렁 험한 세계 낫거니와 내 마음이 평등하여 불 지혜(佛智慧)를655 의지하면 정토왕생(淨土往生)하옵나니656 자성 극락(自性極樂) 착한 사람 집석위보(執石爲寶)657 부디 마오 거

록하다 정도 법문(淨土法門)658十方諸佛659 칭찬하고 항사 보살(恒沙菩薩)660 왕생하네 화엄경(華嚴經)과 법화경(法華經)은661 일대교(一代敎)의 시종(始終)이라662 무상원(無常院)도663 법이건만 극락왕생(極樂往生)664 칭찬하며 마명 보살(馬鳴菩薩) 용수 보살(龍樹菩薩)665 제불 화신(諸佛化身)이666 강적(降跡)하사667 정법안장(正法眼藏)668 친전(親傳)하되 권생극락(勸生極樂)669 깊이하며 진(晉)나라 혜원 법사(慧遠法師)670 반야경(般若經)을671 들으시다가 활연 대오(豁然大悟)하시기도672 광려산(匡廬山) 결사(結社)하여673 십칠 일(十七日)을 정(定)에674 들어 미타 성상(彌陀聖上) 친견(親見)하고675

극락으로 바로 가며 천태산(天台山) 지자 대사(智者大師)676 법화 삼매(法華三昧)677 증득(證得)하사 678 영산회상(靈山會上)679 친견하고 삼관(三觀)을 원수(圓修)하여680 상품 왕생(上品往生)하오시며 681 해동 신라(海東新羅) 의상 법사(義湘法師) 계행(戒行)이682 청정하사 천공(天供)을683 수(受)하되 정도발원(淨土發願)이684 견고하여 좌필서향(坐必西向) 하오시며685 서역 동토(西域東土) 현철(賢哲)들이686 고금 왕생(古今往生)687 무수(無數)하니 누가 감히 입을 벌려 정도 법문(淨土法門) 펴담(賤談)하리688 오장왕(烏藏王)과 흥종 황제(興宗皇帝)689 만기(萬機)690 여가(餘暇)에 영불하여 왕생 발원(往生發願)691 깊이하며 장한(張翰)과 왕시랑(王侍郎)은692공명(功名)이 현달(顯達)하여693 환해(宦海)에694 처하여도 왕생업(往生業)을695 닦았으며 유유민(劉遺民)과 주숙지(周淑之)는696 처자(妻子) 오욕(五慾)697 다 버리고 백련 결사(白蓮結社) 참례(參禮)하여698 두적 산문(杜跡山門)699 영불하며 도연명(陶淵明) 이태백(李太白)과 백낙천(白樂天) 소동파(蘇東坡)는700 만고 명현(萬古名賢)701 문장(文章)이라 필봉(筆鋒)이702 능름하여 귀신을 울렸으되 미타 공덕(彌陀功德) 찬탄(讚嘆)하고 703 왕생(往生)하게 발원(發願)하며704 당(唐)나라 정진(正眞)이와 송(宋)나라 도완(道完)이는705 비구니(比丘尼)의706 몸으로서 영불하여 왕생하며 수문후(隋文侯)와 형왕부인(衡王夫人)707 비록 재가(在家)708 여인(女人)이나 여신보(女身報)를709 싫어하여

지성으로 영불하고 연대(蓮臺)710 중에 남자 되며 파계 비구(破戒比丘)711 웅준(雄俊)이와 도우(屠牛)하던 장선화(張善和)712 생전 죄악(生前罪惡) 많은 고로 지옥고(地獄苦)가 현전(現前)커늘713 임종 일념(臨終一念)으로714 회심(回心)하고 연태715 중에 바로 가며 풍기(豐基)716 땅에 아간 비자(婢子) 삼생(三生)717 전에 중이 되어 건봉사(乾鳳寺) 만일회(萬日會)에718 별좌(別座)하다719 득죄(得罪)하고 순흥 땅에 암소 되어 그 죄를 속(贖)한720 후에 삼생(三生)만에 비자(婢子) 되어 미타 도량(彌陀道場)721 공급하고 육신 등공(肉身騰空)722 왕생(往生)하니 고왕금래(古往今來)723 살피건대 승속 남녀(僧俗男女) 현우 귀천(賢愚貴賤)724 내지 죄악 범부(罪惡凡夫)까지725

다만 발심 영불(發心念佛)하면726 아니 같 이 누가 있을까 만경창파(萬頃蒼波)727 너른 바다 칠백 유순(由旬)의 마갈어(摩竭魚)와728 적은 고기 곤쟁이가 한가지로 인린(鱗鱗)하네729 월장경에 하온 말씀 말세에 중생(衆生) 억억인(億億人)이730 기행 수도(幾行修道)하드라도731 득도(得道)할 이 하나 없고 영불하여 구생(求生)하면 만불누일(萬不漏一)한다732 했으니 사자왕(獅子王)의 결정설(決定說)이733 거짓말로 남 속일까 연비 연동(蜎飛蠕動) 미물(微物)들도734 교화 은자(教化恩慈)735 입는다는데 만물 지중(萬物之中)736 사람이 되어 성인 교화(聖人教化) 못 입을까 자맥 성변(紫陌城邊) 세류안(細柳岸)에737 화류(花柳)하는738 소년들아

춘흥(春興)이739 날지라도 꽃을 부디 꺾지 마오 그 꽃 밑에 독사(毒蛇) 있어 손 상할까 무서워라 무정 지물(無情之物)740 국화꽃도 봄 나비를 싫어하여 상강시(霜降時)에741 숨어 피니 행화촌(杏花村)742 여자들아 봉꽃743 되게 좋아 마소 적막공산(寂寞空山)744 새벽달에 슬피 우는 두견새는 소리마다 불

여귀(不如歸)라745 망망(茫茫)한 성색 도중(聲色途中)746 사부 도서(死父悼逝)하는 군자(君子)들이
 747 돌아갈 줄 왜 모로나 석양 산로(夕陽山路)748 저문 날에 북망산천(北邙山川)749 돌아드니 효자 순
 손(孝子順孫)750 우는 소리 천지 일월(天地日月) 무색(無色)하다 오호(嗚呼)라751 슬프도다
 만고 호걸(萬古豪傑)752 남아(男兒)들이 장생불사(長生不死) 하자더니753 지난날 거마객(車馬客)이
 754 오늘은 황천 고혼(黃泉孤魂)일세755 잠을 깨소 잠을 깨소 생사 장야(生死長夜)756 잠을 깨소 조개
 도 잠든 제가 천년 되면 깬다는데 언제부터 자는 잠을 몇 부처님 출세(出世)토록757 어이 여태 아니 깨
 는고 대법고(大法鼓)를758 크게 치고 생사 옥문(生死獄門)759 열었으니 갇힌 사람 어서 나소 문 열어
 서 안 나오면 그 사람은 할길 없네 대비선(大悲船)을760 크게 무어 차안 중생(此岸衆生) 제도(濟度)하
 니761 선가(船價)762 없는 행인(行人)들이 어서 타고 건너가세
 배를 주어 아니 타면 그 사람은 할길 없네 보원침닉(普願沈溺) 제중생(諸衆生)은763 유심정토(唯心淨
 토)764 어서 가서 자성 미타(自性彌陀)765 친견(親見)하고 환망 진구(幻妄塵垢)766 모든 때를 공덕수
 (功德水)에767 목욕하고 탐진 열뇌(貪瞋熱惱)768 더운 곳을 보수음(寶樹陰)에 흘흠(吃虧)하고769 아
 귀도(餓鬼道)770 중 주린 배를 선열식(禪悅食)에 표만(臆滿)하고771 지옥도(地獄道)772 중 마른 목을
 법희수(法喜水)에 해갈(解渴)하고773 곡향(谷響)같은 설법성(說法聲)에774 여환법인(如幻法印) 증득
 (證得)하고775 공화 만행(空華萬行)을 수습(修習)하여776 수월 도량(水月道場)에 안주(安住)하여777
 경상 천마(鏡像天魔)778 항복 받고 몽중 불과(夢中佛果)779 성취 후에 구화 방편(漚和方便)780 시설
 하여
 환화 중생(幻化衆生) 제도(濟度)하고781 법성토(法性土)782 너른 땅에 임운 등등(任運騰騰) 등등 임운
 (騰騰任運)783 무위 진락(無爲眞樂)784 수용하세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785

[각주]

- 2) 오호(嗚呼) : 슬플 때나 탄식할 때 ‘아’, ‘어허’ 등의 뜻으로 내는 소리.
- 3) 삼계(三界) : ① 삼유(三有). 중생이 사는 세 세계. 즉,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 (無色界) ② 천계(天界) . 지계(地界) . 인계(人界). 화택(火宅) :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 곧, 사바세계인 속세.
- 4) 고해(苦海) : 고타(苦河).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해 이르는 말.
- 5) 천상(天上) : 천상계(天上界)의 준말. 하늘 위의 세계.
- 6) 칠보궁전(七寶宮殿) : 칠보로 장식된 으리으리한 궁전. 칠보(七寶) : ① 일곱 가지의 보배. 법화경(法華經)에서는 금 . 은 . 마노 . 유리 . 거거 . 진 주 . 매괴 등을 이름. ②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금 . 은 . 유리 . 파리 . 마노 . 거거 . 산 호 등을 이름. ③ 전륜성왕(轉輪聖王)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의 보배. 곧, 윤보(輪寶) . 상 보(象寶) . 마보(馬寶) . 여의주보(如意珠寶) . 장보(將寶) . 주장신보(主藏臣寶).
- 7) 수신(修身) :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것.
- 8) 무량(無量) : 헤아릴 수 없는 것.
- 9) 천복(天福) : 하늘에서 내려준 복.
- 10) 오쇠고(五衰苦) :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계(下界) 사람과 왕래한다는 여자 선인(仙人= 천인(天人))이 죽으려 할 때 겪는 다섯 가지 쇠퇴의 고통. 오쇠(五衰) : 천인 오쇠(天人五衰).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계(下界) 사람과 왕래한다는 천 인이 복락(福樂)을 다하여 죽으려 할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쇠퇴의 모양. 곧, 몸에서 나던 광명이 흐려지고,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며, 화만(華鬢)이 마르고, 제자리가 즐겁지 않게 되는 일.
- 11) 삼도(三道) : 삼악도(三惡道)의 준말. 육도(六道) 중에서 악인이 죽어서 간다는 세 괴로운 세계. 곧, 지옥도(地獄道) . 축생도(畜生道) . 아귀도(餓鬼道)의 세 가지. 윤회(輪廻) : 윤회생사(輪廻生死). (輪廻轉生). 차륜의 회전이 그지없는 것처럼 중생이 삼계 육도(三界六道)의 미혹의 세계에서 생사를 되풀이하는 일.
- 12) 화택(火宅) : 앞에 든 각주 3 참조.
- 13) 전륜왕(轉輪王) : 몸에 32 상(相)을 갖추고, 즉위할 때에 하늘에서 윤보(輪寶)를 감득(感得)하여, 이것을 굴러 가며 악을 없애버리며 천하를 위엄으로 굴복시키고, 선한 정치로 백성을 교화한다는 인도 신화상의 왕.
- 14) 시위(侍衛) : 임금을 곁에서 모시고 호위하는 것.
- 15) 칠보 구족(七寶具足) : 칠보를 빠짐없이 고루 갖추는 것. 칠보(七寶) : 앞에 든 각주 6 참조.
- 16) 사천하(四天下) : 사주(四洲). 수미산(須彌山)을 에워싸는 구산팔해(九山八海)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4개의 대주(大洲).
- 17) 위덕(威德) : 위엄과 덕망.
- 18) 자재(自在) : 저절로 있는 것. 속박이나 장애가 없이 마음대로인 것.
- 19) 업보(業報) : 전세의 악한 짓에 대한 짓값.
- 20) 고취(孤翠) :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푸른 산.
- 21) 황어요마사서인(況於玄麼士庶人) : 하물며 작고 변변하지 못한 사서인에 있어서는. 요마(玄麼) : 작고 변변하지 못한 사람. 사서인(士庶人) : 사대부와 서인(庶人)
- 22) 무량고(無量苦) :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괴로움.
- 23) 삼악도(三惡道) : 앞에 든 각주 11 참조.

- 24) 만사 만생(萬死萬生) : 천만 번 죽 살고 하는 일.
- 25) 무량겁(無量劫) : 영겁(永劫).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또는 끝이 없는 시간.
- 26) 세존(世尊) 대법왕(大法王) : 석가세존(釋迦世尊)이신 대승(大乘)의 왕. 세존(世尊) :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준말. 불세존(佛世尊). 석가모니를 높이어 이르는 말. 대법(大法) : 대승(大乘)의 별칭. 후기 불교에서 소승(小乘)과 더불어 두 가지 큰 유파 중의 하나. 이타 구제(弛惰救濟)의 입장에서 널리 인간 전체의 평등과 성불(成佛)을 주장하여,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 27) 백천 방편(百千方便) : 온갖 방편. 방편(方便) :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묘한 수단. 또는, 진실한 교법에 끌어넣기 위해 가설(假設)한 법문(法門).
- 28) 화택 제자(火宅諸子) : 사바세계의 여러 제자. 앞에 든 각주 3 참조. 제자(諸子) : 제군(諸君). 여러 분. 통솔자나 지도자가 여러 명의 아랫사람들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 29) 성교(聖敎) : 석가 소설(釋迦所說)의 교법. 또는, 그 밖의 성자의 불교 전적.
- 30) 십만억토(十萬億土) :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와 극락세계의 중간에 있는 불토(佛土)의 총칭.
- 31) 백천 진보(百千珍寶) : 온갖 진귀한 보배.
- 32) 간착(間錯) : 중간 중간에 섞여 있음.
- 33) 산천 강해(山川江海) : 자연에 있는 강과 바다.
- 34) 평탄 광박(平坦廣博) : 지면이 평평하고, 너르거나 넓음.
- 35) 엄려(嚴麗) : 장엄(莊嚴)하고 미려(美麗)함.
- 36) 영철(映徹) : 비치어 빛남.
- 37) 천억 일월(千億日月) : 한없이 많은 세월. 천억(千億) : 매우 많은 수. 일월(日月) : 날과 달이라는 뜻으로 세월을 이르는 말.
- 38) 보배나무 칠중(七重)으로 둘러싸여 : 보수(寶樹)가 일곱 줄로 둘러있음을 두고 이름. 보수(寶樹) : 칠중보수(七重寶樹)의 준말. 극락(極樂)에 있는 일곱 줄로 벌여 선 보물나무. 곧, 금 . 은 . 유리(琉璃) . 산호(珊瑚) . 마노(瑪瑙) . 파리(玻璃) . 거거(거거)의 각 나무.
- 39) 진주엽(珍珠葉) :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나뭇잎.
- 40) 차거꽃 : 차거(碑磔)처럼 아름다운 꽃을 가리키는 뜻? 차거(碑磔) : 차거(車磔). 조개의 하나. 껍질을 간 것은 칠보(七寶)의 하나로 자식에 씀.
- 41) 마니(摩尼) : 여의주(如意珠).
- 42) 근경지(根莖枝) :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
- 43) 화과엽(花果葉) : 나무의 꽃과 열매와 잎.
- 44) 보배 나무 : 보수(寶樹)를 뜻함. 앞에 든 각주 38 참조.
- 45) 칠보(七寶) : 앞에 든 각주 6과 38 참조.
- 46) 칠중 난순(七重欄楯) : 일곱 줄의 겹겹으로 된 난간(欄干). 난순(欄楯) : 난간(欄干).
- 47) 칠중 나망(七重羅網) : 칠중망(七重網)을 가리킴. 몇 겹으로 짜서 엮어낸 보배로운 그물. 부처 공덕의 비유. 나망(羅網) : 구슬을 꿰어서 그물처럼 만든 불전(佛前)을 장식하는 기구.
- 48) 무비 상묘(無比上妙) : 견줄 데가 없이 아주 뛰어난 으뜸가는 신묘(神妙).
- 49) 오백 억천(五百億千)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이룸. 오백(五百) : 불가어(佛家語)에서 보는 오백계(五百戒), 오백생(五百生), 오백진점겁(五百塵點劫) 등에서와 같이, ‘온갖, 몇 번이고 자주, 측량할 수 없이 한없는’ 등 그 수가 많음을 헤아리게 하는 데에 쓰는 말. 억천(億千) : 억만(億萬). 억천만(億千

萬). 썩 많은 수효.

50) 묘화 궁전(妙華宮殿) : 묘화로 장식한 화려한 궁전. 묘화(妙華) : 유별나게 신묘한 꽃.

51) 동자(童子) : ① 종이 될 뜻을 가지고 절에 와서 불교를 배우면서도 아직 출가하지 않은 사내아이. ② 여래의 왕자이고 음욕이 없는 아이와 같다는 뜻에서, 보살을 달리 이르는 말.

52) 마니주(摩尼珠) : 마니주(摩尼). 여의주(如意珠).

53) 화만(華鬘) : 불상의 머리에 장식하는 생화 또는 금. 은의 조화를 달아 늘어뜨리는 장식. 영락(瓔珞) : 몸. 팔. 등에 두르는 구슬을 꿰 장식품.

54) 팔종 청풍(八種淸風) : 팔음(八音)이 나오는 팔종 악기의 맑은 바람. 팔음(八音) : 부처가 지닌 여덟 가지 특색 있는 목소리. 곧, 극호음(極好音). 유연음(柔軟音). 화적음(和適音). 존혜음(尊慧音). 불녀음(不女音). 불오음(不誤音). 심원음(深遠音). 불갈음(不竭音). 건들거려 불다 : 바람이 술술 불다. 건들바람, 즉 화풍(和風)이 부는 모양을 두고 이름.

55) 보수 보망(寶樹寶網) : 칠보수(七寶樹)의 칠중 나망(七重羅網). 보수(寶樹) : 앞에 든 각주 6과 38 참조. 보망(寶網) : 칠중 나망(七重羅網). 앞에 든 각주 47 참조.

56) 청철(淸澈) : 조출하고 맑음.

57) 백천 풍악(百千風樂) : 온갖 풍악 소리. 풍악(風樂) :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58) 탐진 번뇌(貪瞋煩惱) : 삼독(三毒)에 속하는 탐(貪)과 진(瞋)의 번뇌. 삼독(三毒) : 사람의 착한 마음을 해하는 세 가지 번뇌. 즉, 탐(욕심). 진(성냄). 치(癡 : 어리석음)의 세 가지.

59) 염불심(念佛心) : 염불하고자 하는 마음. 염불(念佛) : ① 소리를 내어 경을 외우는 일. ② 부처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거나 불명(佛名)을 부르는 일.

60) 백보 색조(百寶色鳥) : 보배처럼 아름다운 빛을 띤 새. 백보(百寶) : 온갖 보배.

61) 가릉빈가(迦陵頻伽) : 가라빈가(迦羅頻伽). 묘음조(妙音鳥). 인두조신(人頭鳥身)의 상상의 새. 히말라야 산에 살고, 미묘한 소리를 내며, 극락정토(極樂淨土)에 깃들인다고 함. 공명조(共命鳥) : 동명조(同命鳥). 꾀의 일종이라 함. 하나의 몸에 두 머리를 가지고 있어 명을 같이 하는 새라고도 함.

62) 주야 육시(晝夜六時) : 밤낮을 통한 여섯 때. 육시(六時) : 하루를 여섯으로 나눈 염불 독경의 시간. 즉, 신조(晨朝). 일중(日中). 일몰(日沒). 초야(初夜). 중야(中夜). 후야(후야).

63) 화아(和雅) : 온화하고 우아함.

64) 무생법(無生法) : 무생(無生)의 법. 불변의 진리. 무생(無生) : 생(生)함이 없음. 즉, 일체의 사물이 나 현상이 공(空)이므로 생멸(生滅)의 변화란 있을 수 없다는 말.

65) 격발(激發) : 감정 등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 또는, 격렬히 일어나게 하는 것.

66) 하늘꽃 : 천화(天華). 천상계(天上界)에 핀다는 영묘한 꽃. 또는, 천상계의 꽃에 비길 만 한 영묘한 꽃.

67) 주야 육시(晝夜六時) : 앞에 든 각주 62 참조. 비주(飛酒) : 분배(分配)한다는 뜻.

68) 중생(衆生) : 많은 사람. 또는,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

69)十方 세계(十方世界) :十方 찰(十方刹). 온 세계. 제불전(諸佛前) : 여러 부처님 앞.

70) 죄보 여인(罪報黎人) : 죄보하는 일반 백성. 죄보(罪報) : 죄업(罪業)에 대한 응보(應報). 여인(黎人) : 여민(黎民). 검수(黔首). 일반 백성.

- 71) 칠보(七寶)로 생긴 못 : 칠보지(七寶池)를 두고 이름. 칠보지(七寶池) : 칠보, 즉 일곱 가지의 보배로 장식된 연못. 칠보(七寶) : ① 일곱 가지의 보배. 법화경(法華經)에서는 금 . 은 . 마노 . 유리 . 거거 . 진주 . 매괴 등을 이름. ②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금 . 은 . 유리 . 파리 . 마노 . 거 거 . 산호 등을 이름. ③ 전륜성왕(轉輪聖王)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의 보배. 곧, 윤보(輪寶) . 상보(象寶) . 마보(馬寶) . 여의주보(如意珠寶)
- 72) 팔공덕수(八功德水) : 여덟 가지의 공덕이 있다는 극락정도의 물. 이설이 있으나 구사론(俱舍論)에서는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가 없고, 마실 때 목이 상 하는 일이 없고, 마시고 나서 배탈 나는 일이 없는 물이라 함.
- 73) 사색 연화(四色蓮花) : 적(赤) . 청(靑) . 백(白) . 흑(黑) 등 네 가지 빛깔의 연꽃.
- 74) 임명종시(臨命終時) : 임종(臨終)할 때. 임명종시(臨命終時) : 임명(臨命). 임종(臨終). 목숨이 끊어지는 것. 또는 그 때.
- 75) 대성존(大聖尊) : 대성(大聖). 석가(釋迦)의 존칭.
- 76) 화생(化生) : 사생(四生) 중의 하나. 사생(四生) : 생물의 네 가지 생식 상태. 곧, 태생(胎生) . 난생(卵生) . 습생(濕生) . 화생(化生)의 네 가지.
- 77) 신색(神色) : 남을 높이어 그의 안색을 이르는 말. 진금(眞金) : 순금(純金). 진짜 금
- 78) 대인 상호(大人相好) : 대인군자(大人君子)의 얼굴 형상. 대인(大人) : 대인군자(大人君子)의 준말. 말과 행실이 바르고 정잡으며 덕이 높은 사람.
- 79) 칠보 궁전(七寶宮殿) : 칠보(七寶)로 장식된 화려한 궁전. 칠보(七寶) : 앞에 든 각주 71 참조.
- 80) 상묘 의식(上妙衣食) : 으뜸가는 의복과 음식. 상묘(上妙) : 앞에 든 각주 48 참조.
- 81) 임의자재(任意自在) : 마음먹은 대로 자유자재인 것. 자재(自在) : 속박이나 장애가 없이 마음대로 인 것.
- 82) 수량(壽量) : 수명(壽命)의 헤아림.
- 83) 생로병사(生老病死) : 중생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네 가지 고통. 즉,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 우비고로(憂悲孤老) : 걱정하고, 슬퍼하며, 외롭고, 늙어가는 일. 삼고(三苦) : 세 가지 고통. 즉, 고(苦)의 인연으로 받는 고고(苦苦), 즐거운 일이 무너짐으로써 받는 괴고(壞苦), 세상 모든 현상의 변화가 끝이 없음으로써 받는 행고(行苦). 팔고(八苦) :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누구나 면하기 어려운 여덟 가지의 괴로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사고(四苦)
- 84) 불생불멸(不生不滅) :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음. 진여 실상(眞如實相)의 존재. 불기 불포(不飢不飽) : 굶주리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음.
- 85) 무량 쾌락(無量快樂)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쾌락. 쾌락(快樂) : 삶이 유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
- 86) 미타 성존(彌陀聖尊) : 아미타불이 성스럽고 존엄함을 이르는 말. 미타(彌陀) : 아미타불의 준말. 안양교주(安養教主). 대승불교에서 정토교(淨土教)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 자력으로 성불(成佛)할 수 없는 사람도 염불하면 그 구제력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함.
- 87) 수기(授記) : ① 문답식 또는 분류적 설명으로 되어 있는 부처의 설법. ② 부처가 그 제자에게 미래의 증과(證果)에 대하여 미리 지시한 예언적인 교설(敎說). 또는 그러한 예언을 주는 일.
- 88) 무생법(無生法) : 앞에 든 각주 64 참조. 증득(證得) : 수행(修行)에 의해 진리를 깨닫고, 지혜와 공덕을 체득하는 것.
- 89) 지혜神通(智慧神通) : 지혜가 신기할 정도로 묘함. 지혜(智慧) : ① 슬기.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 ② 미혹(迷惑)을 없애고 보리(菩提)를 성취하는 함. 자재(自在) : 앞에 든 각주 18 참조.

90) 공덕(功德) : 착한 일을 많이 한 공과 불도를 닦은 덕. 선근(善根) : 선본(善本). 좋은 고보(果報)를 얻을 수 있는 원인. 곧, 선근 공덕(善根功德) 또는 일체의 선의 근본.

91) 보살도(菩薩道) : 불과(佛果)를 구하는 보살이 닦는 길.

92) 상선인(上善人) : 선을 행한 가장 훌륭한 사람.

93) 과거 본행(過去本行) : 지난날의 본행(本行). 본행(本行) : 성불할 인(因)이 되는 근본의 행법(行法) : 불도를 닦는 방법.

94) 염불 삼매(念佛三昧) : 염불에 의하여 잡념을 없애고 부처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경지.

95) 대승 경전(大乘經典) : 대승경(大乘經). 대승의 교법을 해설한 다섯 가지의 경전. 대승(大乘) : 앞에 든 각주 26 참조.

96) 독송(讀誦) : 소리를 내어 불경을 읽는 것.

97) 극락(極樂) : 극락세계(極樂世界).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도로, 괴로움이 없는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 인간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난 곳에 있다고 함.

98) 삼보(三寶) : 불보(佛寶) . 법보(法寶) . 승보(僧寶).

99) 빈병 걸인(貧病乞人) :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거지.

100) 보시(布施) : 단시(檀施) ① 자비심으로 남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 ② 불공 불사(불 사)를 할 때에 신도들이 절에 올리는 돈이나 물품.

101) 수행(修行) : 불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

102) 하심(下心) :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높임.

103) 권화(勸化) : 절이나 부처를 위하여 재물을 바칠 것을 청함.

104) 염불(念佛) : 앞에 든 각주 59 참조.

105) 본행(本行) : 앞에 든 각주 93 참조.

106) 탑사(塔寺) : 절. 불당(佛堂).

107) 불도량(佛道場) : 불도를 닦는 신성한 곳.

108) 소쇄(掃灑) : 비로 쓸고 물을 뿌리는 것.

109) 청정 계행(淸淨戒行) :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계율을 잘 지켜 닦는 일. 청정(淸淨) : 허물이나 번뇌가 없이 깨끗함.

110) 수지(受持) : 경전을 받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가지는 것.

111) 삼귀(三歸) : 귀의(三歸依)의 준말. 불(佛) . 법(法) . 승(僧)의 삼보(三寶)에 돌아가 의지함. 오계(五戒) : 오상(五常). 세속에 있는 신자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금계(禁戒). 살생(殺生) . 투도(偷盜) . 사음(邪淫) . 망어(妄語) . 음주(飲酒)를 금하는 일.

112) 팔관재(八關齋) : 팔관재계(八關齋戒). 팔계(八戒). 출가(出家)하지 않고 세속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녀가 육재일(六齋日)에 지켜야 하는 여덟 가지 계행.

113) 십선업(十善業) : 십선(十善). 십악(十惡)을 행하지 않는 일. 또는 십계(十戒)를 지키는 것.

114) 극락(極樂) : 앞에 든 각주 97 참조.

115) 본행(本行) : 앞에 든 각주 93 참조.

116) 십재일(十齋日) : 매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의 일을 멀리하도록 정해진 10일.

- 117) 재일 성호(齋日聖號) : 재계(齋戒)하는 날 부르는 부처님의 이름.
- 118) 염송(念誦) : 염불 송경(念佛誦經). 마음속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불경을 외는 것.
- 119) 비밀(秘密) : 진언종(眞言宗)에서 자가(自家)의 교의를 일컫는 말. 진언(眞言) : ① 부처의 말. ② 다라니. ③ 진언종(眞言宗)의 준말.
- 120) 지송(持誦) : 경전이나 다라니 등을 가지고 읽고 외우는 것.
- 121) 보시(布施) : 앞에 든 각주 100 참조.
- 122) 사성존(四聖尊) : 사성(四聖)을 말함. 즉, 아미타불(阿彌陀佛) .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 대해중보살(大海衆菩薩) 등.
- 123) 평원 광야(平原曠野) : 평평하고 넓은 벌판.
- 124) 염천(炎天) : 몹시 더운 날씨.
- 125) 통섭(通涉) : 서로 사귀어 내왕하는 것.
- 126) 산고 곡심(山高谷深) :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음.
- 127) 실로자(失路者) 지로(指路) :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인도하는 것.
- 128) 그믐칠야(漆夜) : 음력 그믐개의 매우 어두운 밤.
- 129) 맹안인(盲眼人) : 눈이 먼 장님.
- 130) 타향 객사(他鄉客死) : 고향이 아닌 객지에서 죽는 것. 선심(善心) : 보리심(菩提心). 스스로 불도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써 널리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
- 131) 사고무친(四顧無親) : 의지할만한 사람이 전혀 없음.
- 132) 구완 : 병구완 . 해산구완 등의 통칭.
- 133) 공덕(功德) : 앞에 든 각주 90 참조.
- 134) 십악 오역(十惡五逆) : 극악의 죄업(罪業)인 십악과 오역. 십악(十惡) :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열 가지 죄악. 즉, 살생(殺生) . 투도(偷盜) . 사음(邪淫) . 어(妄語) . 기어(綺語) . 양설(兩舌) . 악구(惡口) . 탐욕(貪慾) . 진에(嗔恚) . 사견(邪見). 오역(五逆) :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질 다섯 가지 악행(惡行). 즉, 살부(殺父) . 살 모(殺母) . 살아라한(殺阿羅漢) . 파화합승(破和合僧) . 출불신혈(出佛身血).
- 135) 무간 지옥(無間地獄) : 무간나라.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 팔열 지옥(八熱地獄)의 하나.
- 136) 임종시(臨終時) : 앞에 든 각주 74 참조.
- 137) 선우(善友) : 착하고 어진 벗.
- 138) 십념(十念) : 십념칭명(十念稱名)의 준말. 비로자불 등 열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것.
- 139) 삼악도(三惡道) : 앞에 든 각주 11 참조.
- 140) 수고(愁苦) :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것.
- 141) 효순 권속(孝順眷屬) : 효성이 있고 유순한 집안 식구.
- 142) 본행(本行) : 성불할 이(因)이 되는 근본의 행법(行法).
- 143) 극락세계(極樂世界) : 앞에 든 각주 97 참조. 덕 장엄(功德莊嚴) : 앞에 든 각주 90 참조. 장엄(莊嚴) : 경건하고 엄숙함. 무량겁(無量劫) : 앞에 든 각주 25 참조.
- 144) 불가사의(不可思議) : 보통사람의 생각으로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아름다운 일. 경계(境界) : 인과 응보(因果應報)의 이치에 따라 자기가 놓이게 되는 처지.
- 145) 과거 구원 무량겁(過去久遠 無量劫) : 지난날이 까마득하게 멀고 오래 된 무량겁. 유불(濡佛) : 노불(露佛). 노천에 안치한 부처. 출세(出世) :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오는 것.

- 146) 세자재왕(世自在王) :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전신으로서, 사십팔원(四十八願)을 세우고 출가한 법장 비구(法藏比丘)의 스승. 세간을 잘 살피어 중생을 구한 사람임.
- 147) 여래씨(如來氏) : 석가모니 여래씨의 준말. 석가모니를 신성하게 높이어 이르는 말.
- 148) 전륜왕(轉輪王) : 앞에 든 각주 13 참조.
- 149) 교시가 : 미상
- 150) 발심(發心) :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준말. 일념발기(一念發起).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 보리심(菩提心) : 선심(善心). 스스로 불도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써 널리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 앞에 든 각주 130 참조. 출가(出家) : 사가(捨家). 속가(俗家)를 떠나 불문에 드는 일.
- 151) 비구(比丘) :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남자 중.
- 152) 승명(僧名) : 법명(法名). 중이 된 사람에게 종문(宗門)에서 지어준 이름.
- 153) 법장(法藏) : 법장 보살(法藏菩薩). 아미타불의 성불(成佛)하기 전의 이름.
- 154) 세자재왕(世自在王) 여래(如來) : 앞에 든 각주 146과 147 참조.
- 155) 사십팔원(四十八願) : 아미타불이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마음먹었던 마흔 여덟 가지의 서원(誓願).
- 156) 무량겁(無量劫) : 앞에 든 각주 25 참조.
- 157) 난행고행(難行苦行) : 난행과 고행. 곧,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하는 수행(修行). 다겁(多劫) : 헤아릴 수 없이 길고 긴 시간.
- 158) 사십팔원(四十八願), 극락세계(極樂世界), 장엄(莊嚴) : 앞에 든 각주 143과 155 참조.
- 159) 성도(成道) : 깨달아 불타(佛陀)가 되는 일.
- 160) 도사(導師) : 부처 . 보살의 통칭.
- 161) 아미타(阿彌陀) :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준말. 안양교주(安養教主). 대승불교에서 정토 교(淨土敎)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 자력으로 성불(成佛)할 수 없는 사람도 영불하면 그 구제력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함.
- 162) 삼계(三界) : 앞에 든 각주 3 참조. 화택(火宅) : 앞에 든 각주 3 참조.
- 163) 오욕락(五慾樂) : 오욕을 추구하는 즐거움. 오욕(五慾) : 오진(五塵).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다섯 가지. 즉, 색(色) . 성(聲) . 향(香) . 미(味) . 촉(觸).
- 164) 탐착(貪着) : 만족할 줄 모르고 사물에 더욱 집착하는 것.
- 165) 생사 장야(生死長夜) : 생사의 긴긴 밤. 생사(生死) : 인간의 사고(四苦)인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시작과 끝.
- 166) 신청(信聽) : 믿고 곧이듣는 것.
- 167) 대성호(大聖號) : 대성에 대한 부름. 대성(大聖) : 석가(釋迦)의 존칭.
- 168) 사랑(思量) : 사료(思料).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
- 169) 삼계(三界) : 앞에 든 각주 3 참조. 만법(萬法) : 제법(諸法). 우주간의 모든 존재.
- 170) 몽환(夢幻) : 꿈과 환상. 허황한 생각.
- 171) 십이시(十二時) : 하루를 12 등분하여 십이지(十二支)의 이름을 붙여 일컫는 열두 시.
- 172) 역경계(逆境界) : 경계(境界)에 거슬림. 경계(境界) :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이치에 따라 자기가 놓이게 되는 처지.
- 173) 순경계(順境界) : 경계(境界)에 따름. 자기가 놓이게 되는 처지에 좇음.

174) 행주좌와(行住坐臥) :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의 위(威儀). 일상의 기거동작(起居動作)을 이르는 말.

175) 어묵 동정(語默動靜) : 말하고 침묵하는 사이나 움직이고 멈추는 것 등 일상생활.

176) 일체시 일체처(一切時一切處) : 모든 때와 모든 곳. 곧, 어느 때나 어느 곳이든 간에.

177) 일념 미타(一念彌陀) : 일념 미타불(一念彌陀佛). 일념 미타불 즉멸무량죄(一念彌陀佛即滅無量罪). 한 번 아미타불을 마음속에 염불하는 것으로 그 때까지 지은 무량의 죄장(罪障)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말.

178) 일구월심(日久月深) :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진다는 뜻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해 감을 이르는 말.

179) 허다 정량(許多情量) : 허다하게 많은 속된 정의와 헤아림.

180) 염불 삼매(念佛三昧) : 앞에 든 각주 94 참조.

181) 삼제(三際) : 삼세(三世). 과거 . 현재 . 미래. 또는, 전세 . 현세 . 내세.

182) 인아 사상(人我四相) : 인아에 남기고 있는 네 가지 상. 인아(人我) : 사람 안에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있다는 미망(迷妄). 즉, 아(我)가 있다는 생각. 사상(四相) : 중생이 실제라고 믿는 네 가지 상(相). 즉, 아상(我相) . 인상(人相) . 중생상(衆生相) . 수명상(壽命相).

183) 십만 억토(十萬億土) :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와 극락세계의 중간에 있는 불토(佛土)의 총칭.

184) 자심(慈心) : 자비심(慈悲心). 중생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185) 만덕 존상(萬德尊像) : 많은 덕행을 쌓아 풍기는 존귀한 상.

186) 방촌(方寸) : 사람의 마음은 가슴속의 한 치 사방 넓이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라 하여 마음속을 이르는 말.

187) 자성(自性) : 자성 본불(自性本佛)의 준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

188)十方 세계(十方世界) : 방 찰(十方刹). 앞에 든 각주 69 참조. 무변(無邊) : 무변 세계(無邊世界)를 두고 이름. 끝없이 넓고 큰 세계.

189) 변만 : 편만(遍滿)의 변한 말. 널리 차서 그득함.

190) 제불심(諸佛心) : 자비로운 여러 부처의 마음. 불심(佛心) : 자비스러운 부처의 마음. 깊이 깨달아 속세의 번뇌에 흐려지지 않는 마음.

191) 내지(內智) : 삼지(三智)의 하나. 번뇌를 끊고 자기 무명(無明)을 깨닫는 지(智). 육도(六道) : 육계(六界). 육취(六趣). 중생이 선악의 업인(業因)에 따라 이르는 여섯 세계. 즉, 지옥도(地獄道) . 아귀도(餓鬼道) . 축생도(畜生道) . 아수라도(阿修羅道) . 인간도(人間道) . 천상도(天上道).

192) 중생심(衆生心) : 중생이 지니고 있는 마음. 중생(衆生) : 살타(薩埵).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

193) 불별(不別) : 구별할 수 없음.

194) 임마(恁麼) : 이처럼. 이와 같이. 전지(傳持) : 법(法)을 받아 전하여 유지하는 것.

195) 사바 극락(娑婆極樂) : 사바세계와 극락세계. 사바(娑婆) : 사바세계(娑婆世界) : 석존(釋尊)이 교화하는 경토(境土). 곧, 인간세계. 극락(極樂) : 극락세계. 앞에 든 각주 97 참조.

196) 범부 성인(凡夫聖人) : 번뇌에 시달리는 범부(凡夫)와 덕과 지혜가 뛰어난 성인(聖人). 범부(凡夫) : 이생(異生). 번뇌에 얽매어서 생사를 초월하지 못한 사람. 성인(聖人) : 성자(聖者). 모든 번뇌를 끊고 정리(正理)를 초월한 사람.

197) 현전(現前) : 눈앞. 또는 그 앞에 나타나 있음.

- 198) 염염 미타(念念彌陀) : 아미타불을 외우고 외우는 것. 미타(彌陀) :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준말. 앞에 든 각주 161 참조.
- 199) 출세(出世) : 앞에 든 각주 145 참조.
- 200) 수행인(修行人) : 수행자(修行者). 불도를 닦는 사람. 수행(修行) : 불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
- 201) 임명종시(臨命終時) : 앞에 든 각주 74 참조.
- 202) 팔만 상호(八萬相好) : 극히 여러 가지 얼굴의 형상. 팔만(八萬) : 팔만 사천(八萬四千)의 준말. 극히 많은 것의 형용. 상호(相好) : 앞에 든 각주 78 참조.
- 203) 보신미타(報身彌陀) : 공덕을 갚춘 아미타불(阿彌陀佛). 보신(報身) : 삼신(三身)의 하나. 공덕이 갚추어진 몸. 미타(彌陀) : 앞에 든 각주 86 참조.
- 204) 실보토(實報土) : 과보토(果報土). 실보 무장애토(實報無障礙土)의 준말. 사토(四土)의 하나. 중도(中道)의 이치를 깨달아 얻은 사람이 가서 나는 정토. 향적 광토 : 상적 광토(常寂光土)의 표기로 판단됨. 사토(四土)의 하나. 변하지 않는 광명의 세계. 부처의 거처나 변하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이르는 말. 상품 연화(上品蓮花) : 극락정토의 최상급 연꽃. 왕생(往生) : 이 세상을 떠나 정토(淨土)에 가 태어나는 일.
- 205) 방가위지(方可謂之) : 방가위(方可謂). 과연 그럴다고 이를 만하게.
- 206) 정토 왕생(淨土往生) : 극락왕생(極樂往生). 왕생극락(往生極樂). 죽어서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남.
- 207) 근기(根機) : 중생이 교법(教法)을 듣고 닦아 얻을 수 있는 능력.
- 208) 상선인(上善人) : 앞에 든 각주 92 참조.
- 209) 본행(本行) : 앞에 든 각주 93 참조.
- 210) 근기(根機) : 앞에 든 각주 207 참조. 수분(守分) : 분수나 본분을 지키는 것. 수행(修行) : 앞에 든 각주 200 참조.
- 211) 천파 만류(千波萬流) : 천파 만파(千波萬波). 수없이 많이 이루어진 물결.
- 212) 만행(萬行) : 수행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중선衆善 : 많은 선사(善事). 또는 못사람의 선사(善事).
- 213) 동귀(同歸) : 함께 돌아감. 또는 귀착하는 곳이 같음.
- 214) 진실심(眞實心) :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된 마음.
- 215) 발원(發願) : 바라고 원하는 생각을 내는 것.
- 216) 임명종시(臨命終時) : 앞에 든 각주 74 참조.
- 217) 상근기(上根機) : 상근(上根). 상기(上機). 불도를 잘 닦는 사람. 앞에 든 각주 207 참조. 상품(上品) : 극락정토의 최상급. 중근(中根) : 중등(中等)의 근기(根機). 부처의 교화를 받아야 발동하는, 능력 소질이 중 정도의 사람을 이룸. 하근(下根) : 도를 닦을 힘이 적은 사람.
- 218) 장륙(丈六) : 장륙불(丈六佛). 높이가 일장 육척(一丈六尺)의 불상을 일컫는 말. 팔척(八尺) : 팔척불(八尺佛). 8척이나 되는 매우 큰 부처를 두고 이룸.
- 219) 화신 미타(化身彌陀) : 화신(化身)의 아미타불. 화신(化身) :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형상을 바꾸어 이 세상에 나타난 부처의 몸. 미타(彌陀) : 앞에 든 각주 86 참조.
- 220) 방편토(方便土) : 방편 유여토(方便有餘土)의 준말. 사토(四土)의 하나. 무명의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한 삼계 밖의 세상. 동거토(同居土) : 범성 동거토(凡聖同居土)의 준말. 사토(四土)의 하나. 범부와

성인이 함께 섞여 사는 세상.

221) 중근인(中根人) : 앞에 든 각주 217 참조. 중품 연화(中品蓮花) : 중등 품위의 연꽃.

222) 하근인(下根人) : 앞에 든 각주 217 참조. 하품 연화(下品蓮花) : 낮은 품위의 연꽃.

223) 왕생(往生) : 앞에 든 각주 204 참조.

224) 미타(彌陀) : 앞에 든 각주 86 참조.

225) 심식(審識) : 잘 조사하여 아는 것.

226) 성범(聖凡) : 성인과 범인.

227) 재회(齋會) :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중을 공양하는 것.

228) 감응(感應) : 믿는 마음이 신(神)에 통하는 것. 도교(道交) : 도의심으로 서로 사귀는 것.

229) 천강수(天江水) : 하늘에 있는 은하(銀河)의 물. 천강(天江) : 천하(天河). 천한(天漢). 하늘의 시내.

230) 징청(澄清) : 맑고 깨끗함.

231) 거래(去來) : 서로 오고가거나 주고받거나 하는 것.

232) 불신(佛身) : 불체(佛體). 부처의 몸.

233) 임종 일념(臨終一念) : 죽을 때에 전심(專心)으로 하는 염불. 임종(臨終) : 앞에 든 각주 74 참조.

일념(一念) : 전심(專心)으로 염불하는 일.

234) 불월(佛月) : 부처의 광명을 달에 비유해서 이름. 중생의 마음이 맑아야 부처가 이에 응해서 나타나는 일.

235) 안정(眼睛) : 눈동자.

236) 팔만 상호(八萬相好) : 앞에 든 각주 202 참조.

237) 보신불(報身佛) : 삼신불(三身佛)의 하나. 보신으로서의 부처를 일컫는 말. 앞에 든 각주 203 참조.

238) 장륙 팔척(丈六八尺) : 앞에 든 각주 218 참조.

239) 화신불(化身佛) : 화신의 부처. 앞에 든 각주 219 참조.

240) 근기(根機) : 앞에 든 각주 207 참조.

241) 지견(智見) : 슬기와 식견.

242) 복덕(福德) : 복스러운 공덕.

243) 극락(極樂) : 극락세계. 앞에 든 각주 97 참조.

244) 사종 정토(四種淨土) : 네 가지 종류의 정토(淨土). 즉, 방편토(方便土) . 동거토(同居土) . 실보토(實報土) . 상적광토(常寂光土). 정토(淨土) : 번뇌의 속박을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 불(佛) . 보살(菩薩)이 있는 곳으로 그 수효가 많음에 따라 정토의 수효도 많아진다고 함. 구품 연화(九品蓮花) : 구품(九品)으로 나눈 극락세계의 연꽃.

245) 정토업(淨土業) : 정토사업(淨土事業). 참선(參禪)을 떠나 염불을 주로 하는 일.

246) 명부(冥府) : 명토(冥土). 저승.

247) 미타(彌陀) : 아미타불(阿彌陀佛). 앞에 든 각주 161 참조.

248) 의성(疑城) : 성처럼 보이는 것.

249) 연대(蓮臺) : 연화대(蓮花臺). 극락세계에 있다는 대.

250) 오백세 복락(五百歲福樂) : 500년 동안의 행복과 안락.

- 251) 정업(淨業) : 깨끗한 행위.
- 252) 정토발원(淨土發願) : 죽어 극락에 가기를 원하는 법.
- 253) 결정 신심(決定信心) : 옳다고 꼭 믿는 결정적인 마음.
- 254) 분별(分別) : 시름. 걱정.
- 255) 죄업(罪業) : 몸 . 입 . 마음의 삼업(三業)으로 저지르는 죄악. 또는, 죄의 과보(果報). 무량(無量) : 앞에 든 각주 8 참조.
- 256) 원결 부채(怨結負債) : 원한으로 얽혀져서 남에게 진 마음의 빚.
- 257) 임종시(臨終時) : 앞에 든 각주 74 참조.
- 258) 정진(精進) : ① 일심으로 불도를 닦아 게을리 하지 않는 것. ② 세속의 인연을 끊고 재계하고 채식 하면서 불도에 몸을 바치는 것. 수행(修行) : 앞에 든 각주 101 참조.
- 259) 왕생(往生) : 앞에 든 각주 204 참조.
- 260) 여하 약하(如何若何) : 어떠한가. 어떻게 하는가.
- 261) 신(信)한 후(後) : 믿어진 뒤
- 262) 단단 적적(端端的) : 단적(端的)을 강조한 말. 단적(端的) : 곧바르고 명백한 것. 단단(端端) : 각각 올바른 모양. 적적(的的) : 명백한 모양.
- 263) 산란심(散亂心) :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마음.
- 264) 명주투어탁수(明珠投於濁水) : 아름다운 구슬을 흐린 물에 던짐.
- 265) 불호투어난심(佛號投於亂心) : 부처님의 이름을 어지러운 마음에 던짐
- 266) 불심(佛心) : ① 자비스러운 부처님의 마음. ② 깊이 깨달아 속세의 번뇌에 흐려지지 않는 마음.
- 267) 관혁(貫革) : 과녁의 원말. 활 . 총 따위를 쏠 때의 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
- 268) 원만(圓滿) : 둥글고 가득 참.
- 269) 천리 원정(千里遠程) : 천리나 되는 썩 먼 길.
- 270) 득달(得達) : 목적인 곳에 도달하는 것. 또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
- 271) 일념(一念) : 앞에 든 각주 233 참조.
- 272) 수인(修因) : 선악의 인(因)을 닦는 것. 결과(結果) : 결실(結實). 열매를 맺는 일. 또는 그 열매.
- 273) 미타 성존(彌陀聖尊) : 앞에 든 각주 86 참조.
- 274) 인생 일세(人生一世) : 사람의 일생.
- 275) 백년 광음(百年光陰) : 썩 오랜 세월. 몽중(夢中) : 몽리(夢裏). 꿈속.
- 276) 인간 칠십 고래희(人間七十古來稀) : 사람의 생명은 덧없이 짧아서, 예로부터 70세까지 살기는 드물다는 뜻.
- 277) 지혜자(智慧者) : 지혜 있는 사람. 지혜(智慧) : ① 슬기.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 ② 미혹(迷惑)을 없애고 보리(菩提)를 성취하는 힘.
- 278) 오욕(五慾) : 앞에 든 각주 163 참조. 수락인(受樂人) : 몸의 안락을 추구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 279) 생로병사(生老病死) : 앞에 든 각주 83 참조.
- 280) 화택(火宅) : 앞에 든 각주 3 참조. 사면(四面) : 전후좌우 둘레의 네 면.
- 281) 이문(二門) : 성도문(聖道門)과 정토문(淨土門), 혹은 본문(本門)과 적문(迹門) 등 두 가지의 문.
- 282) 삼계(三界) :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 등 중생이 사는 세 세계.

- 283) 정토문(淨土門) : 불교 중의 타력문(他力門)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발원(發願)하면 아미타불(阿彌陀佛)의 극락정토(極樂淨土)에 왕생하여 성불(成佛)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교문(敎門)을 말함.
- 284) 고해(苦海) : 앞에 든 각주 4 참조.
- 285) 생사(生死) 바다 : 생사대해(生死大海)를 뜻함.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인생을 큰 바다에 비유한 말. 생사(生死) : 인생의 사고(四苦)인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시작과 끝.
- 286) 미타선(彌陀船) : 아미타불(阿彌陀佛)의 배.
- 287) 여의주(如意珠) :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 이를 얻으면 온갖 조화를 부릴 수 있다고 함.
- 288) 의약 방문(醫藥方文) : 약방문(藥方文). 약을 짓기 위하여 약의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 만품(萬品) : 만 가지. 온갖 종류.
- 289) 무우산(無憂散) :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가루약.
- 290) 팔만 사천(八萬四千) : 극히 많은 것의 형용. 방편문(方便門) : 보살(菩薩)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의 문. 방편(方便) : 앞에 든 각주 27 참조.
- 291) 수월문문가입(雖曰門門可入) : 비록 문 마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 292) 생사윤회(生死輪廻) : 윤회생사(輪廻生死). 윤회(輪廻). 차륜(車輪)의 회전이 그지없는 것처럼 중생이 삼계 육도(三界六道)의 미혹의 세계에서 생사를 되풀이하는 일.
- 293) 불법성(佛法城) : 중생이 불법으로 들어가는 단단한 성(城).
- 294) 정토 법문(淨土法門) : 아주 깨끗한 정토의 법문(法門). 정토(淨土) : 앞에 든 각주 244 참조. 법문(法門) : 중생이 불법으로 들어가는 문.
- 295) 제불 보살(諸佛菩薩) : 여러 부처와 보살. 보살(菩薩) : 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의 버금이 되는 성인. ② 고승(高僧)의 존칭. ③ 보살승(菩薩乘)의 준말. 출세(出世) : 앞에 든 각주 145 참조.
- 296) 천경 만론(千經萬論) : 천만 경론(千萬經論).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만(千萬)의 경(經)과 논(論). 경론(經論) : 부처의 말을 적은 경(經)과 이를 해석한 논(論).
- 297) 미타 정토(彌陀淨土) :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정토(淨土). 미타(彌陀) : 아미타불(阿彌陀佛). 앞에 든 각주 86과 161 참조. 정토(淨土) : 앞에 든 각주 244 참조.
- 298) 고구(苦口) : 고언(苦言). 고어(苦語). 듣기에는 거슬리나 유익한 말. 정녕(丁寧) : 정녕(叮嚀). 정말로. 틀림없이.
- 299) 신청(信聽) : 믿고 곧이듣는 것. 극락정토(極樂淨土) : 앞에 든 각주 97과 244 참조.
- 300) 오탁악세(五濁惡世) : 오탁으로 가득 찬 최악의 세상. 오탁(五濁) : 세상의 다섯 가지 더러운 것. 곧, 명탁(命濁) . 중생탁(衆生濁) . 번뇌탁(煩惱濁) . 견탁(見濁) . 겁탁(劫濁).
- 301) 죄업(罪業) : 몸 . 입 . 마음의 삼업(三業)으로 저지르는 죄악.
- 302) 비방(誹謗) : 기방(譏謗).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
- 303) 정토(淨土) : 앞에 든 각주 244 참조. 수행(修行) : 앞에 든 각주 101 참조.
- 304) 신구의(身口意) : 행동과 언어와 정신. 즉,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 조섭(調攝) : 조리(調理). 음식 . 거처 . 동작을 적당히 하여 쇠약해진 몸을 낫게 하는 것.
- 305) 십악업(十惡業) : 전생에 지은 열 가지의 나쁜 행위. 십악(十惡) : 앞에 든 각주 134 참조.
- 306) 생사(生死) : 앞에 든 각주 165 참조.
- 307) 무량겁(無量劫) : 앞에 든 각주 25 참조.

- 308) 육도 사생(六道死生) : 육도에 있어서의 죽음과 삶.
- 309) 준동 함령(蠢動含靈) : 날뛰고 움직이는 함령. 함령(含靈) :有情(有情 : 마음이 있는 중생).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것.
- 310) 무비다생부모(無非多生父母) : 모두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함이 없음.
- 311) 살부 살모(殺父殺母) : 부모를 죽이는 일.
- 312) 황어경(況於經)에 하온 말씀 : 하물며 불경(佛經)에서 하온 말씀.
- 313) 중생류(衆生類) :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 따위. 중생(衆生) : 앞에 든 각주 68 참조.
- 314) 성불(成佛) : 득불(得佛).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불과(佛果)를 얻는 것. 부처가 되는 것.
- 315) 미래불(未來佛) : 장차 말세가 되면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부처. 곧, 미륵불(彌勒佛).
- 316) 호생 오사(好生惡死) :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함.
- 317) 형세 강약(形勢強弱) :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 강하고 약함.
- 318) 원한심(怨恨心) : 원망스럽고 한이 되는 마음.
- 319) 구천(九泉) : 땅속 깊은 밑바닥. 또는, 저승. 무덤.
- 320) 생사고락(生死苦樂) : 삶과 죽음과 괴로움과 즐거움.
- 321) 타일 삼도(他日三途) : 다른 날에 겪는 삼악도(三惡道). 삼도(三途) : 삼악도(三惡道). 앞에 든 각주 11 참조.
- 322) 검수(劍樹) : 가지 . 잎 . 꽃 . 과실이 모두 칼로 되어 있는 지옥의 나무. 도산(刀山) : 지옥에 있다는 칼을 심어놓은 산.
- 323) 근단 골절(筋斷骨折) :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
- 324) 확탕(鑊湯) : 가마솥의 끓는 물. 솥의 끓는 물에 넣어 삶아 죽이는 형벌. 노탄(爐炭) : 화로 속의 숯.
- 325) 혈육 초란(血肉焦爛) : 피와 살이 타서 얼어짐.
- 326) 수 :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단.
- 327) 지옥고(地獄苦) : 지옥에서 겪는 옥살이. 지옥(地獄) : 나락(奈落).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세계.
- 328) 피모 대각 육축(被毛戴角六畜) : 몸에는 털을 덮고 머리에 뿔이 돋은 갖가지 짐승. 피모 대각(被毛戴角) : 몸을 덮고 있는 털과 머리에 돋아 이고 있는 짐승의 뿔. 육축(六畜) :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의 가축. 즉, 소 . 말 . 양 . 돼지 . 개 . 닭.
- 329) 수원수구(誰怨誰咎) : 수원숙우(誰怨孰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라’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 330) 엽사(獵師) : ‘사냥꾼’의 높임말
- 331) 오백 겁(五百劫) : 오백 진점겁(五百塵點劫)의 준말.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
- 332) 인과보응(因果報應) : 인과응보(因果應報). 전생에서의 행위의 결과로서 현재의 행 .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행위의 결과로서 내세에서의 행 . 불행이 생기는 일.
- 333) 승야월장(乘夜越牆) : 밤을 틈타서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감.
- 334) 도적업(盜賊業) : 도적질. 도둑질.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일삼는 것.
- 335) 비리 행취(非理行取) : 도리에 어긋나는 일로써 취하는 것.

- 336) 백주 대적(白晝大賊) : 대낮에 공공연하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큰 도적. 대적(大賊) : 큰 도둑. 매우 나쁜 사람.
- 337) 공변되게 :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게.
- 338) 여수간(與受間) : 주고받는 사이.
- 339) 천륜(天倫) : 부자(父子)나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 340) 의론(議論) : 의견을 주장하거나 논의하는 것. 또는, 그 의견이나 논의.
- 341) 사음(邪淫) : 간사하고 음란함.
- 342) 처첩(妻妾) : 아내와 첩.
- 343) 통간(通姦) : 간통(姦通).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맺는 불의(不義)의 성적 관계(性的關係).
- 344) 본부(本夫) : 본남편.
- 345) 아귀(餓鬼) : 파율(破律)의 악업을 저질러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진 귀신.
- 346) 기화(飢火) : 이는 불기운과 같이 굶주림이 심하다는 것으로, 아주 심한 굶주림을 이룸. 치성(熾盛) : 불같이 성하게 일어나는 것.
- 347) 오장 육부(五臟六腑) : 내장의 총칭. 즉, 오장과 육부.
- 348) 철방(鐵柵) : 쇠처럼 단단한 목탁.
- 349) 구시화문(口是禍門) : 말을 짓거리는 사람의 입은 재앙을 일으키는 단서가가 됨을 이룸.
- 350) 발설 지옥(拔舌地獄) : 말로써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가 떨어진다는 지옥. 혀를 잡아 뺀다고 함.
- 351) 이간(離間) : 반간(反間). 두 사람 사이를 하리놀아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
- 352) 백설조(百舌鳥) : 새의 이름으로, ① 지빠귀. ② 때까치.
- 353) 악담죄(惡談罪) : 남을 비방하거나 못 되도록 저주하는 말로써 저지르는 죄.
- 354) 백두어(白頭魚) : 대가리가 하얀 물고기.
- 355) 발명(發明) : 죄나 잘못이 없음을 변명하여 밝히는 것.
- 356) 아귀(餓鬼) : 앞에 든 각주 345 참조.
- 357) 무량(無量) : 헤아릴 수 없는 것.
- 358) 오백겁(五百劫) : 앞에 든 각주 331 참조.
- 359) 황어(況於) : 황차(況且). 하물며.
- 360) 의적(儀狄) : 중국 하(夏)나라 때에 처음으로 술을 만들었다는 사람. 작주(作酒) : 술을 만드는 것.
- 361) 우(禹)임금 : 중국 하(夏)나라의 시조 우(禹)를 임금으로서 분명하게 일컫는 이름.
- 362) 나한(羅漢) : 라한(阿羅漢)의 준말. 소승 불교에서, 온갖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공덕을 갖춘 성자(聖者)를 이르는 말.
- 363) 세존(世尊) : 석가세존의 준말. 앞에 든 각주 26 참조.
- 364) 탐심(貪心) : 탐을 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 365) 살도음망(殺盜淫妄) :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십악(十惡) 가운데 살생(殺生) . 투도(偷盜) . 사음(邪淫) . 망어(妄語) 등을 가리킴. 앞에 든 각주 134 참조.
- 366) 장자(長者) :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 367) 탐착(貪着) : 앞에 든 각주 164 참조.
- 368) 백구(白駒) : 흰 망아지. 현자(賢者)가 타는 말을 두고 이룸.

- 369) 황금 칠병 : 黃金七輶인 듯함. 황금 일곱 수레나 되는 많은 재산을 뜻하는 듯함.
- 370) 진심(塵心) : 속세에 더럽혀진 마음.
- 371) 죄보(罪報) : 죄업(罪業)에 대한 응보(應報).
- 372) 팔만 장문(八萬牆門) : 수없이 많은 담장. 즉 불심을 막는 번뇌.
- 373) 홍도 비구(弘道比丘) : 도(道)를 널리 퍼던 한 비구. 비구(比丘) :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남자 중. 다겁(多劫) : 앞에 든 각주 157 참조.
- 374) 대망(大蟒) : 이무기. 거대한 뱀의 속칭. 용이 되려다가 못 되고 물속에 산다는 큰 구렁이.
- 375) 사견(邪見) : 견(五見)의 하나. 또는, 십악(十惡)의 하나.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여 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악의 두려움도 돌아보지 않는 잘못된 견해.
- 376) 선악 인과(善惡因果) : 선과 악의 인과. 인과(因果) : 선악의 업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보(果報)를 받는 일.
- 377) 무간 지옥(無間地獄) : 앞에 든 각주 135 참조.
- 378) 천불(千佛) : 과거 . 현재 . 미래의 삼겁(三劫)의 각각의 천 부처 가운데서 현재에 나타난다는 천 부처. 출세(出世) : 앞에 든 각주 145 참조.
- 379) 바이 : 아주 전혀.
- 380) 선성(善星) : 석가(釋迦)가 태자로 있을 때의 아이로서, 뒤에 불(佛) 제자가 되었다고 함. 비구(比丘) : 앞에 든 각주 373 참조.
- 381) 시불(侍佛) : 부처님을 모심.
- 382) 십이부경(十二部經) : 십이분경(十二分經). 불교 경전의 형태를 형식이나 내용에 따라 열둘로 나눈 것. 그중 셋은 경문(經文)의 형식에서, 나머지 아홉은 경문의 내용면으로 분류한 것임.
- 383) 사선정(四禪定) : 사선(四禪). 욕계(欲界)를 떠나 색계(色界)에서 도를 닦는 초선 . 이선 . 삼선 . 사선의 네 단계. 선정(禪定) : 선(禪). 참선하여 삼매경에 이르는 것.
- 384) 악지식(惡知識) : 사람을 가르치어 좋지 못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 385) 인과(因果) : 앞에 든 각주 376 참조.
- 386) 생함 지옥(生陷地獄) : 목숨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 387) 중생 죄업(衆生罪業) : 앞에 든 각주 68과 301 참조.
- 388) 사견죄(邪見罪) : 정견(正見)을 저버리고 사견에 빠져든 죄. 사견(邪見) : 앞에 든 각주 375 참조.
- 389) 진심(塵心) : 앞에 든 각주 370 참조.
- 390) 음심(淫心) : 음탕한 마음.
- 391) 선신(善神) : 사람에게 복을 주는 신.
- 392) 악귀(惡鬼) : 몃쓸 귀신.
- 393) 여시죄목(如是罪目) : 이와 같은 범죄 사실의 명목(名目).
- 394) 일우측량(日尤測量)할 길 없네 : 날로 더욱 헤아릴 길이 없네.
- 395) 화택중(火宅中) : 앞에 든 각주 3 참조.
- 396) 중생(衆生) : 앞에 든 각주 68 참조.
- 397) 죄(罪) : 교법을 어긴 무자비한 짓.
- 398) 허공계(虛空界) : 텅 빈 공중의 세계.
- 399) 죄업(罪業) : 앞에 든 각주 255와 301 참조.

- 400) 왕생(往生) : 앞에 든 각주 204 참조.
- 401) 세존(世尊) : 앞에 든 각주 26 참조. 대법왕(大法王) : 석가여래를 크게 높이어 이르는 말. 법왕(法王) : 법(法)을 설하는 주왕(主王)이라는 뜻으로 석가여래를 높이어 이르는 말.
- 402) 죄악중생(罪惡衆生) : 죄악에 빠진 중생. 앞에 든 각주 68 참조. 죄악(罪惡) : 죄가 될 만한 악한 짓.
- 403) 참회문(懺悔門) : 참회하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세운 문. 참회(懺悔) :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것.
- 404) 승속 남녀노소(僧俗男女老少) : 종과 속인,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 405) 참괴심(慙愧心) : 부끄러워하는 마음.
- 406) 이참(理懺) : 사견(邪見)이 정견(正見)을 해롭게 하는 장애 즉 이장(理障)을 뉘우쳐 깨뜨리는 일. 사참(事懺) : 기도하며 죄과(罪過)를 뉘우쳐 회개하는 일.
- 407) 삼보전(三寶前) : 불보(佛寶) . 법보(法寶) . 승보(僧寶) 등 삼보 앞.
- 408) 자성(資性) : 천성(天性). 타고난 성품.
- 409) 두목수족(頭目手足) : 머리와 눈과 손과 발. 사대 색신(四大色身) : 사대색신. 사대육신(四大六身)을 속되게 이르는 말. 즉,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두 팔, 두 다리, 머리, 몸뚱이라는 뜻으로, 온몸을 일컫는 말. 혈육 피골(血肉皮骨) : 피와 살과 살가죽과 뼈.
- 410) 색성 향미(色聲香味) : 예쁜 소리와 향기로운 맛. 외경계(外境界) : 구분되는 한계에서 바깥 경계. 경계(境界) :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이치에 따라 자기가 놓이게 되는 처지.
- 411) 공적(空寂) : 공공 적적(空空寂寂). 우주 만상의 실체가 고정성이 없이 비어있어 사려(思慮)로서 포착할 수 없음.
- 412) 죄상(罪狀) : 어떤 범죄의 실상.
- 413) 자성 청정(自性淸淨) : 앞에 든 각주 408 참조. 본래 일물(本來一物) 걸림이 없네 : ‘본래 무일물(本來無一物)’을 두고 이름. 만물은 실체가 아니고 공(空)에 지나지 않으므로, 집착해야 할 대상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선종(禪宗)에서 쓰는 말임.
- 414) 태허공(太虛空) : 하늘. 텅 빈 공중.
- 415) 허공虛空) : 모양과 빛이 없는 상태.
- 416) 담담 창해(淡淡滄海) : 맑고 맑은 넓은 바다.
- 417) 천파만랑(千波萬浪) : 천파만파(千波萬波).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물결. 흥흥(洶洶) : 물결이 어지럽게 일어나 세참.
- 418) 현전 일념(現前一念) : 눈앞에 바로 떠오르는 일념. 일념(一念) : 앞에 든 각주 233 참조.
- 419) 죄구 파랑(罪垢波浪) : 몸을 더럽히는 죄구의 물결. 죄구(罪垢) : 죄악이 몸을 더럽히는 것을 이르는 말.
- 420) 무한 죄구(無限罪垢) : 죄악으로 한없이 몸을 더럽히는 죄구.
- 421) 이(理) : 이치. 까닭.
- 422) 사상(事相)으론 불연(不然) : 현상계의 모양으로는 그럴지 아니한 것. 사상(事相) : 본체 진여에 대하여 현상계의 낱낱의 차별된 모양.
- 423) 흉몽(凶夢)에는 흉사(凶事) : 불길한 꿈에는 흥흥하고 언짢은 일.
- 424) 길몽(吉夢)에는 경사(慶事) :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의 꿈에는 기쁘고 좋은 일.

- 425) 일향(一向) : 일직(一直). 언제나 한결같이.
- 426) 후세 업보(後世業報) : 후세에 받을 업과(業果). 업보(業報) : 앞에 든 각주 19 참조.
- 427) 삼보 신력(三寶神力) : 삼보의神通하고 영묘한 작용. 삼보(三寶) : 앞에 든 각주 407 참조.
- 428) 소멸(掃滅) : 싹 쓸어서 없애는 것.
- 429) 아등 도사(我等導師) : 우리들의 도사. 도사(導師) : 부처와 보살의 통칭.
- 430) 사십팔원(四十八願) : 앞에 든 각주 155 참조.
- 431) 내지십악오역인(來至十惡五逆人) : 장차 극악의 죄업인 십악과 오역을 범할 사람. 십악 오역(十惡五逆) : 앞에 든 각주 134 참조.
- 432) 임종시(臨終時) : 임종할 때. 앞에 든 각주 74 참조.
- 433) 지옥 악상(地獄惡相) : 지옥에 떨어져서 갖는 흉측한 얼굴 모양.
- 434) 명호(名號) : 이름과 호.
- 435) 팔십 억겁(八十億劫) : 죄업(罪業)에 의하여 죽고 사는 동안에 유전(流轉)하는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이름. 억겁(億劫) : 무한히 긴 오랜 세상 또는 세월. 겁(劫) : 천지가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기간. 무한한 시간을 이르는 말. 생사죄(生死罪) : 사고(四苦)의 시작과 끝에 이르는 동안의 죄. 생사(生死) : 앞에 든 각주 165 참조.
- 436) 춘설(春雪) 같이 녹아지고 : '봄눈 녹듯'을 이르는 말. 무엇이 빨리 슬어 없어지는 모양.
- 437) 하품 왕생(下品往生) : 구품 정토(九品淨土)의 하품이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 하품(下品) : 구품 정토(九品淨土)의 하위의 세 품. 왕생(往生) : 앞에 든 각주 204 참조.
- 438) 대의재(大矣哉) : 훌륭하도다. 크도다. 아미타(阿彌陀) : 앞에 든 각주 161 참조.
- 439) 고해 보벌(苦海寶筏) : 고해를 건너 불법(佛法)에 귀의함의 비유. 고해(苦海) : 앞에 든 각주 4 참조. 보벌(寶筏) : 보배로 만든 뗏목(큰 배)를 타는 것과 같음. 불법)에 귀의함을 비유.
- 440) 누천년(累千年) : 여러 해 동안. 긴긴 세월.
- 441) 일성화(一星火) : 하나의 성화(몹시 작은 숯불. 불티).
- 442) 암실(庵室) : 중의 주거(住居).
- 443) 천마 외도(天魔外道) : 욕계(欲界)의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과 불교 이외의 가르침을 심봉하는 일. 공포(恐怖) : 무섭고 두려운 것.
- 444) 도산 검수(刀山劍樹) : 앞에 든 각주 322 참조.
- 445) 삼계(三界) : 앞에 든 각주 2 참조. 도사(道士) : 불도를 다 깨달은 사람.
- 446) 정토 법문(淨土法門) : 정토의 불법으로 들어가는 법문. 정토(淨土) : 앞에 든 각주 244 참조. 법문(法門) : 앞에 든 각주 294 참조. 심신(深信) : 깊이 믿는 것.
- 447) 극락발원(極樂發願) : 극락에 가기를 원함. 발원(發願) : 앞에 든 각주 215 참조.
- 448) 염라대왕(閻羅大王) : 염마왕(閻魔王). 염라국의 임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인간의 생전의 행동을 심판하고 다스림.
- 449) 극락세계(極樂世界) : 앞에 든 각주 97 참조. 칠보(七寶) 못 : 칠보지(七寶池)를 두고 이름. 앞에 든 각주 71 참조.
- 450) 연봉(蓮峰) : 연꽃 봉오리.
- 451) 표제(標題) : 책이나 장부 속의 항목을 찾기 편하도록 설정한 제목. 수행(修行) : 앞에 든 각주 101 참조.

- 452) 안광 낙지(眼光落地) : 눈의 정기(눈빛)가 땅에 떨어짐. 곧,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름.
- 453) 그 연태 : 그 연(蓮)의 태(胎), 즉 그 연꽃이 나온 곳을 말하는 뜻함.
- 454) 즉금(卽今) : 곧 이제. 그 자리에서 곧.
- 455) 극락(極樂) : 극락세계. 앞에 든 각주 97 참조.
- 456) 약사여래(藥師如來) :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의 준말.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 중생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고, 법약(法藥)을 준다는 부처. 팔보살(八菩薩) : 팔대보살(八大菩薩). 팔체(八體)의 보살. 정법(正法)을 지키며 중생을 옹호한다는 여덟 보살.
- 457) 서방 세계(西方世界) : 서방 극락(西方極樂).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 458) 스물다섯 대보살(大菩薩) : 이십오 보살(二十五菩薩). 아미타불을 염(念)하는 중생을 늘 지켜준다는 스물다섯 보살. 대보살(大菩薩) : 지덕(智德)이 뛰어난 보살.
- 459)十方 제불(十方諸佛) :十方(十方)에 있는 여러 부처. 십방(十方) : 앞에 든 각주 69 참조. 호념(護念) : 부처나 보살을 늘 마음에 두고 선행을 쌓으면 부처나 보살이 보살펴 준다는 말.
- 460) 천룡 귀신(天龍鬼神) : 천룡이라 이르는 귀신. 천룡(天龍) : 천상계(天上界)에 사는 귀신 및 용.
- 461) 천상(天上) : 천상계(天上界)의 준말. 하늘 위의 세계. 인간 세계(人間世界) : 중생계(衆生界). 중생이 사는 세계.
- 462) 최존 최귀(最尊最貴) : 가장 존귀함을 강조한 말. 가장 지위가 높고 귀함.
- 463) 퇴전(退轉) : 불교를 믿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 464) 생사윤회(生死輪廻) : 생사유전(生死流轉). 유전윤회(流轉輪廻). 윤회생사(輪廻生死). 앞에 든 각주 292 참조.
- 465) 차치(且置) : 차치 물론(且置勿論)의 준말.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음.
- 466) 도도(滔滔) : 물이 그득 퍼져 흘러가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참.
- 467) 동류수(東流水) : 동쪽으로 흐르는 물.
- 468) 창해(滄海) : 넓고 큰 바다.
- 469) 무정수(無情水) : 감각성이 없는 물.
- 470) 투석 낙정(投石落井) : 우물에 돌을 던져 떨어뜨리는 것.
- 471) 도저(到底) : 행동이나 몸가짐이 빗나가지 않고 철저함.
- 472) 남염부주(南閻浮州) : 남염부제(南閻浮提). 염부제(閻浮提). 염부나무가 우거진 땅이라는 뜻으로, 수미산(須彌山)의 남쪽 해상에 있다는 대륙. 인간이 사는 세계를 말함.
- 473) 심식(深識) : 깊은 식견.
- 474) 결정 신근(決定信根) : 소신 있게 정해진 신근. 신근(信根) : 오근(五根)의 하나. 부처의 가르침을 깊이 믿는 힘의 바탕.
- 475) 목전 경계(目前境界) : 눈앞의 경계. 경계(境界) : 인과응보(因果應報)에 따라 자기가 놓이게 되는 처지.
- 476) 만당 처자(滿堂妻子) : 집안에 가득한 처자식들. 처자(妻子) : 처자식(妻子息). 아내와 자식. 애착(愛着) : 애집(愛執). 자기의 소견이나 소유를 너무 생각하는 일.
- 477) 금은 옥백(金銀玉帛) : 금과 은과 옥과 비단 등 온갖 귀중한 것. 탐심(貪心) : 앞에 든 각주 364 참조.

- 478) 노자(路資) : 노비(路費). 여행에 드는 돈.
- 479) 생사 광야(生死廣野) :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사고(四苦)를 겪는 광야. 생사(生死) : 앞에 든 각주 165 참조. 광야(廣野) : 광원(曠原). 아득하게 너른 들.
- 480) 고혼(孤魂) : 조상(弔喪)하여 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혼.
- 481) 선근 공덕(善根功德) : 앞에 든 각주 90 참조.
- 482) 삼악도(三惡道) : 앞에 든 각주 11 참조.
- 483) 생사 노두(生死路頭) : 생사 관두(生死關頭)를 두고 이르는 듯? 노두(路頭) : 길거리. 생사 관두(生死關頭) : 사생 관두(死生關頭). 죽느냐 사느냐의 위태위태한 고비. 관두(關頭) : 가장 중요한 지경. 고비.
- 484) 삼백 육십(三百六十) 뼈마디 : 삼백 육십절(三百六十節). 사람의 몸에 있는 삼백 육십(三百六十)의 골절(骨節)을 말함.
- 485) 수망 각란(手忙脚亂) : 수족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 매우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 486) 출입식(出入息) : 내뿜고 들이키는 호흡의 숨. 요요(寥寥) : 몹시 쓸쓸함.
- 487) 명도지계(冥途之界) : 명계(冥界). 황천(黃泉). 죽은 후에 간다는 영혼의 세계.
- 488) 임종(臨終) : 임명(臨命). 앞에 든 각주 74 참조.
- 489) 악업 담자(惡業擔子) : 악업의 짐. 악업(惡業) : 전생의 나쁜 행위. 담자(擔子) : 짐. 하물(荷物). 또는 어깨에 지는 상여(喪輿).
- 490) 수업 승침(隨業昇沈) : 과응보(因果應報)에 따 생기는 성함과 쇠함. 승침(昇沈) : 인생의 영고(榮枯). 윤회(輪廻) : 앞에 든 각주 292 참조.
- 491) 적진(敵陣) : 적의 진영. 퇴쟁(退錚) : 싸움터에서 물러나면서 치는 징.
- 492) 평시 적공(平時積功) : 평상시에 쌓은 공로의 실적.
- 493) 정념(正念) : 팔정도(八正道)의 하나. 잡념을 떠나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는 일. 미실(迷失) :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떤 일을 잘못하는 것.
- 494) 사마(邪魔) : 불도의 수행(修行)을 방해하는 악마. 순복(順服) : 순순히 복종하는 것.
- 495) 와해(瓦解) : 무너짐. 어떤 원인으로 인해 사물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
- 496) 신청(信聽) : 앞에 든 각주 166 참조.
- 497) 생사 무상(生死無常) : 사람의 생사는 덧없음. 생사(生死) : 앞에 든 각주 165 참조.
- 498) 탐착(貪着) : 앞에 든 각주 164 참조.
- 499) 극락(極樂) : 극락세계(極樂世界). 앞에 든 각주 97 참조.
- 500) 허환(虛幻) : 헛되게 미혹(迷惑)됨.
- 501) 무량(無量) : 앞에 든 각주 8 참조.
- 502) 연화대(蓮花臺) : 앞에 든 각주 249 참조.
- 503) 개걸(丐乞) : 빌어먹음. 거지 노릇을 하는 것.
- 504) 만덕 홍명(萬德鴻名) : 많은 덕행(德行)과 큰 명성(名聲).
- 505) 문병인(問病人) : 앓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는 사람. 시병인(侍病人) : 병자(病者)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 506) 권속(眷屬) : 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
- 507) 객담(客談) : 객설(客說). 쓸데없는 말.

- 508) 낙루(落淚) : 영루(零淚). 눈물을 흘리는 것.
- 509) 가사 범백(家事凡百) : 집안 일 모든 것. 범백(凡百) : 여러 가지의 모든 것.
- 510) 정념(正念) : 앞에 든 각주 493 참조.
- 511) 권념(勸念) : 염불을 권하는 것.
- 512) 임종시(臨終時) : 임종할 때. 앞에 든 각주 74 참조.
- 513) 조념(助念) : 염불하는 것을 도움.
- 514) 즉지서방(卽至西方) : 즉시 서방 정토(西方淨土)에 이룸. 서방(西方) : 서방 극락(西方極樂)의 준말. 앞에 든 각주 457 참조.
- 515) 황어(況於) : 하물며. 앞에 든 각주 359 참조.
- 516) 수요장단(壽夭長短) : 장수(長壽)나 요절(夭折)로서 명이 길고 짧은 것.
- 517) 방광(放光) : 부처가 백호(白毫)의 빛을 내쏘는 것.
- 518) 견불(見佛) : 수행이나 신앙의 힘에 의지하여 부처를 얻어 보는 것. 즉, 본디 갖추어진 자기의 불성을 깨닫는 것.
- 519) 효순 권속(孝順眷屬) : 앞에 든 각주 141과 506 참조.
- 520) 혼정신성(昏定晨省) : 정성(定省).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
- 521) 감지지공(甘旨之供) : 감지공친(甘旨供親) 맛 좋은 음식으로 부모를 공양함.
- 522) 염불 법문(念佛法文) : 염불하는 법문. 법문(法文) : 불건의 글. 봉권(奉勸) : 받들어 권함.
- 523) 사후 고탁(死後苦樂) : 죽은 뒤 닥쳐올 고탁. 고탁(苦樂) : 감고(甘苦). 괴로움과 즐거움.
- 524) 지극 효심(至極孝心) : 어버이께 극진히 효도하는 마음.
- 525) 호읍수지(號泣隨之) : 목놓아 소리 높여 울면서 따라다님. 간(諫) : 윗사람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 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함.
- 526) 선근(善根) : 앞에 든 각주 90 참조.
- 527) 시탕(侍湯) : 부모의 병에 약 시중을 드는 일.
- 528) 권념(勸念) : 앞에 든 각주 511 참조.
- 529) 선근 공덕(善根功德) : 앞에 든 각주 90 참조.
- 530) 정념(正念) : 앞에 든 각주 493 참조. 격발(激發) : 감정이 격렬히 일어나는 것. 또는, 격렬히 일어나게 하는 것.
- 531) 극락(極樂) : 극락세계(極樂世界). 앞에 든 각주 97 참조.
- 532) 세존 석가(世尊 釋迦) : 석가 세존(釋迦世尊). 석가모니를 높이어 이르는 말. 세존(世尊) : 앞에 든 각주 26 참조. 석가(釋迦) :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준말. 성(姓)은 고타마. 이름은 싯다르타. 세계 사성인(四聖人)의 하나로서 불교의 개조(開祖).
- 533) 정반 부왕(淨飯父王) : 석가(釋迦)의 부왕인 정반왕(淨飯王)을 가리킴. 정반왕(淨飯王) : 슈도다나의 한자식 이름.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 카필라바스투 나라의 왕으로 서석가의 아버지임.
- 534) 장로 선사(長老禪師) : 덕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중. 선사(禪師) : 중의 높임 말. 선종(禪宗)의 법리(法理)에 통달한 중.
- 535) 출가(出家) : 앞에 든 각주 150 참조.
- 536) 염불 법문(念佛法文) : 앞에 든 각주 522 참조.
- 537) 권화문(勸化文) : 절이나 부처를 위하여 재물을 바칠 것을 청하는 글.

- 538) 세출 세간(世出世間) : 세간으로부터 출세간하는 일. 출세간(出世間) : 생멸(生滅) 변화하는 미(迷)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 세간(世間) : 중생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세상.
- 539) 불조(佛祖) : 불교의 개조(開祖). 즉, 석가모니.
- 540) 일체인(一切人) : 모든 사람들. 봉지(奉旨) : 임금의 명령을 받드는 것.
- 541) 무병인(無病人) : 병이 없는 사람.
- 542) 다병(多病) : 병이 많음. 또는, 병이 잦음. 비방(誹謗) : 기방(譏謗).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
- 543) 전세 죄업(前世罪業) : 전생(前生)에 저지른 죄업. 전세(前世) : 전생(前生). 속세(宿世). 삼생(三生)의 하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 죄업(罪業) : 앞에 든 각주 255와 301 참조.
- 544) 지옥(地獄) : 앞에 든 각주 327 참조.
- 545) 소멸(掃滅) : 앞에 든 각주 428 참조.
- 546) 장병(長病) : 장질(長疾). 오랜 병.
- 547) 여(女) : 딸. 딸에 대한 기록에서의 문어적 칭호.
- 548) 부귀(富貴)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 창성(昌盛) : 번성하여 잘되어 가는 것.
- 549) 전세(前世) : 전생(前生). 앞에 든 각주 543 참조. 종복(種福) : 복을 퍼는 것.
- 550) 맹귀우목(盲龜遇木) : 맹귀부목(盲龜浮木). 눈먼 거북이 우연히 떠내려 오는 나무를 만났다는 뜻으로, 어렵던 차에 뜻밖의 행운을 얻음.
- 551) 불법(佛法) 난봉 : 불교에 허랑방탕한 짓을 하는 사람. 희유(稀有) : 흔하지 않고 드문 것.
- 552) 우담화(優曇華) : 우담발화(優曇鉢華). 인도에서,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핀다는 상상의 식물. 꽃이 필 때에는 금륜명왕(金輪明王)이 나타난다고 함.
- 553) 속세(宿世) : 앞에 든 각주 543 참조.
- 554) 선근(善根) : 앞에 든 각주 90 참조.
- 555) 불보살(佛菩薩) : 부처와 보살. 대자비(大慈悲) : 대자대비(大慈大悲). 넓고 커서 끝이 없는 자비. 특히, 관세음보살의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룸.
- 556) 제도(濟度) : 일체 중생을 부처의 도로써 고해(苦海)에서 건져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
- 557) 인수(人壽) : 인간의 수명(수명). 팔만 사천 세(八萬四千歲) : 극히 많은 것의 형용.
- 558) 복락(福樂)이 무량(無量) : 앞에 든 각주 8과 250 참조.
- 559) 정명(定命) : 전세의 인연에 의하여 정해진 목숨.
- 560) 삼십 정명(三十定命) : 정해진 수명이 삼십 세임.
- 561) 기근겁(饑饉劫) : 기근재(饑饉災). 소삼재(小三災)의 하나.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모자라는 굶주림의 재앙(災殃).
- 562) 인상식(人相食) : 흉년에 배가 고파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
- 563) 질병겁(疾病劫) : 질병재(疾病災). 소삼재(小三災)의 하나. 악귀(惡鬼)와 야차(夜叉) 등이 독기를 토하여 사람의 몸에 온갖 병이 일게 하였다는 재앙.
- 564) 맹화(猛火) : 열화(熱火). 세차게 타는 불.
- 565) 변천하(變天下) : 북동쪽의 하늘 아래. 변천(變天) : 구천(九天)의 하나인 북동쪽의 하늘을 이르는 말.
- 566) 즉사(卽死) : 직사(直死). 현장 사망. 그 자리에서 곧 죽는 것.
- 567) 십세 정명(十歲定命) : 정해진 수명이 십 세임.

- 568) 도병겁(刀兵劫) : 도병재(刀兵災). 소삼재(小三災)의 하나. 병기(兵器)와 군사로 인해 사람이 죽는 재앙.
- 569) 악심(惡心) : 나쁜 마음.
- 570) 초목 와석(草木瓦石) : 풀과 나무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업는 기와와 돌.
- 571) 상살(相殺) : 서로 죽이는 것.
- 572) 소삼지 : 소삼재(小三災)의 오기(誤記)임. 세계가 괴멸(壞滅)하여 공무(空無)로 돌아가기까지에 일어난다는 도병재(刀兵災) . 질역재(疾疫災) . 기근재(饑饉災)의 세 가지를 가리키는 말.
- 573) 인수(人壽) 팔만 사천 세(八萬四千歲) : 앞에 든 각주 8과 557 참조.
- 574) 감겁(減劫) : 백년 마다 나이 한 살씩을 줄여서 8만 살에서 열 살로 줄 때까지의 동안을 일컫는 말.
- 575) 점증(漸增) : 점점 늘어남. 점점 증가하는 것.
- 576) 증겁(增劫) : 사람의 나이 열 살 때부터 해마다 또는 백년마다 한 살씩 더해서 8만 살에 이를 때까지의 동안을 일컫는 말.
- 577) 증감(增減) : 많아지는 것과 적어지는 것. 앞에 든 증겁(增劫)과 감겁(減劫)을 두고 이름.
- 578) 병출(竝出) : 함께 나타나는 것.
- 579) 사바세계(娑婆世界) : 앞에 든 각주 195 참조. 백억 천하(百億天下) : 백억 세계(百億世界). 부처가 백억 화신(百億化身)이 되어 교화시키는 세계. 온 세상.
- 580) 욕계천(欲界天) : 욕계의 세계. 삼계(三界)의 하나. 식욕(食慾) . 음욕(淫慾) . 물욕(物慾) 따위가 강한 중생이 머무르는 세계.
- 581) 색계(色界) : 삼계(三界)의 하나. 욕계(欲界)와 무색계의 중간 세계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으나 색심(色心)까지는 벗지 못한 세계. 초선(初禪) : 초선천(初禪天). 욕계(欲界)의 위에 있는 색계 사선천(色界四禪天)의 하나.
- 582) 이선천(二禪天) : 색계 사선천(色界四天)의 하나. 앞에 든 색계(色界) 참조.
- 583) 삼선천(三禪天) : 색계 사선천(色界四天)의 하나. 앞에 든 색계(色界) 참조.
- 584) 대삼재(大三災) : 세계가 괴멸하는 괴겁(壞劫)의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하는 화재(火災) . 수재(水災) . 풍재(風災)의 세 가지 천재(天災).
- 585) 팔증감(八增減) : 여덟 증겁(增劫)과 감겁(減劫). 앞에 든 각주 574와 576 참조.
- 586) 이과(已過) : 이미 지나감.
- 587) 제구 감겁(第九減劫) : 아홉 번째의 감겁. 감겁(減劫) : 앞에 든 각주 574 참조.
- 588) 인수 정명(人壽定命) : 앞에 든 각주 557과559 참조.
- 589) 구류손불(拘留孫佛) : 과거 칠불(七佛)의 하나. 4만 세 때 나서 시리수(尸利樹) 아래서 성불하였다고 함.
- 590) 구나함불(俱那含佛) : 나함모니불(俱那含牟尼佛) : 과거 칠불(七佛)의 하나. 오잠바라 나무 아래에서 성도하고, 한 번 설법에 3만의 비구와 아라한을 제도하였다는 부처.
- 591) 가섭불(迦葉佛) : 가섭(迦葉). 카시아파의 한자식 이름. 마하카시아파의 준말. 불타의 10대 제자의 한 사람. 욕심이 적고 죽할 줄을 알아 엄격한 계율로 두타(頭陀)를 행하였고, 교단의 우두머리로 존경을 받았음.
- 592) 세존 석가여래(世尊 釋迦如來) : 앞에 든 각주 26과 532 참조.

- 593) 대자대비(大慈大悲) : 앞에 든 각주 555 참조. 증승(曾勝) : 일찍부터 뛰어남.
- 594) 인수 백세(人壽百歲) 정명시(定命時) : 사람의 수명 백세로서 정명일 때. 앞에 든 각주 557과 559 참조.
- 595) 가비라국(迦毘羅國) : 가비라(迦毘羅)의 나라. 가비라(迦毘羅) : 가비라위(迦毘羅衛)의 준말. 싯타르타(실달다悉達多) 즉 석가(釋迦)가 탄생한 곳.
- 596) 칠야(漆夜) : 흑야(黑夜). 아주 캄캄한 밤.
- 597) 추정 만월(秋庭滿月) : 추색이 짙은 가을 정원에 휘영청 밝게 떠오르는 달. 만월(滿月) : 영월(盈月). 가장 완전하게 둥근 달. 보름달
- 598) 칠년 대한(七年大旱) : 칠 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큰 가뭄.
- 599) 감로 세우(甘露細雨) : 하늘에서 내리는 단 이슬과 가늘게 내리는 가랑비. 감로(甘露) : 하늘에서 내리는 불사(不死)의 단 이슬. 부처의 교법이 중생을 잘 제도함을 비유하는 말.
- 600) 설법(說法) : 담의(談義). 불교의 교의(教義)를 풀어 밝히는 것.
- 601) 도탈 중생(度脫衆生) : 중생들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함. 도탈(度脫) : 생사의 괴로움을 초월하여 번뇌를 씻고 편안한 심정에 이르도록 하는 일. 중생(衆生) : 앞에 든 각주 68 참조.
- 602) 주세(住世) : 세상에 머물러 있음.
- 603) 이락 군품(移樂群品) : 공덕으로 중생들을 이익 되고 즐겁게 함. 이락(移樂) : 내세의 이익과 현세의 낙. 낙은 현세에 있어서의 부처의 공덕을 이룸. 군품(群品) : 중생(衆生). 또는, 만물(萬物)
- 604) 사라쌍수(沙羅雙樹) : 사라수(沙羅樹). 쌍수(雙樹). 석가가 입적(入寂)한 곳의 주위 사방에 두 그루씩 서있던 사라수. 석가가 입적하자 나무 빛깔이 하얗게 변하여 말라죽었다고 함. 열반(涅槃) : 멸도(滅道). 불도를 완전하게 이루어 일체의 번뇌를 해탈한 최고의 경지.
- 605) 혼구(昏衢) : 어두운 거리. 장야(長夜) : 가을이나 겨울의 긴 밤.
- 606) 상주(常住) : 생멸 변화가 없이 늘 있는 것.
- 607) 생멸(生滅) : 우주 만물의 생김과 없어짐.
- 608) 중생 근기(衆生根機) : 중생이 교법을 닦을 수 있는 능력. 근기(根機) : 앞에 든 각주 207 참조.
- 609) 정법(正法) : 정법시(正法時)의 준말. 정법이 행하여지는 때. 부처의 입적 후 5백년 또는 천년 동안 상법(像法) : 상법시(像法時)의 준말. 삼시(三時)의 하나. 정법시(正法時) 다음의 천 년간. 이 시대에는 신앙이 형식적으로만 흘러 증과(證果)를 얻는 자가 없다 함.
- 610) 계법(戒法) : 부처가 제정한 율법.
- 611) 즉금(卽今)은 칠십 정명(七十定命) : 이제는 70이 정해진 운명임. 정명(定命) :宿命(宿命). 앞에 든 각주 559 참조
- 612) 남염부주(南閻浮州) : 앞에 든 각주 472 참조
- 613) 소삼재(小三災) : 앞에 든 각주 572 참조
- 614) 악도(惡道) : 악처(惡處). 악업을 지어서 죽은 뒤에 가는 고통의 세계. 지옥(地獄) . 아귀(餓鬼) . 축생(畜生) . 수라(修羅)의 네 가지가 있음.
- 615) 세세생생(世生生生) : 몇 번이든지 다시 환생하는 일. 또는, 그때 생생세세(生生世世)
- 616) 삼재(三災) : 세계를 파멸하는 큰 재난으로, 화재(火災) . 수재(水災) . 풍재(風災)를 이르는 말.
- 617) 정토(淨土) : 앞에 든 각주 244 참조 미타경(彌陀經) : 불설 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의 약칭. 중국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한역한 경전. 아미타의 공적과 극락세계의 일, 또는 그 곳에 태어

나기 위하여 중생이 갖추어야 할 바를 기록함.

618) 접인중생(接引衆生) : 중생을 맞이하여 인도함.

619) 미타 원력(彌陀願力) :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원력. 원력(願力) : 부처에게 빌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염력(念力).

620) 오탁(五濁)이 증극(增極) : 오탁이 더하여 아주 심함. 오탁(五濁) : 앞에 든 각주 300 참조.

621) 삼재겁(三災劫) : 삼재(三災). 앞에 든 각주 616 참조

622) 사영 : 사영(四殃)을 가리키는 뜻함. 수(水) . 한(旱) . 기(饑) . 황(荒) 등 네 가지의 재해(災害). 사고(四苦) : 사환(四患). 인생의 네 고통. 즉, 생고(生苦) . 노고(老苦) . 병고(病苦) . 사고(死苦). 난탈(難脫) : 벗어나기 어려움.

623) 공포심(恐怖心) : 무서워하는 마음.

624) 공부인(工夫人) : 배우고 익히는 사람.

625) 극락 미타(極樂彌陀) : 극락세계와 아미타불. 앞에 든 각주 86과 97 참조.

626) 자성(資性) : 앞에 든 각주 408 참조.

627) 아만심(我慢心) : 자신을 뽐내는 아만(我慢)하는 마음. 아만(我慢) : 사만(四慢)의 하나. 자신을 뽐내며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628) 정토업(淨土業) : 앞에 든 각주 245 참조.

629) 박복 다장(薄福多障) : 복이 적고 장애됨이 많음.

630) 탐진 번뇌(貪瞋煩惱) : 사람의 착한 마음을 해하는 세 가지의 번뇌 즉 삼독(三毒) 가운데 탐(貪 : 욕심)과 진(瞋 : 성냄)의 번뇌. 번뇌(煩惱) : 염오(染汚). 심신을 괴롭히는 노여움 욕망 따위의 망념(妄念).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운 것. 구족(具足) : 구존(具存). 다 갖추고 있음.

631) 제불 만덕(諸佛萬德) : 여러 부처의 많은 덕행(德行).

632) 형산옥(荊山玉) : 형산 백옥(荊山白玉) : 중국 형산에서 나는 백옥(白玉)이라는 뜻으로, 현량한 사람을 이르는 말.

633) 양장(良匠) : 양공(良工). ① 재주가 뛰어난 공인(工人). ② 가사(袈裟)를 짓는 침공(針工).

634) 탁마(琢磨) : ① 옥이나 돌을 쪼고 가는 것. ② 학문이나 덕행을 닦는 것.

635) 온유지덕(溫柔之德) : 온화하고 부드러운 덕성.

636) 보기(寶器) : 보배로 만든 그릇.

637) 자심불(慈心佛) :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부처.

638) 번뇌 무명(煩惱無明) : 번뇌의 근원이 되는 무명. 무명(無明) : 십이 인연(十二因緣)의 하나. 사견(邪見)이나 망집(妄執)에 빠져서 불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마음의 상태.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됨.

639) 미타 양장(彌陀良匠) :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양공(良工).

640) 만행(萬行) : 수행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641) 항사 성덕(恒沙聖德) : 항하사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성덕. 항사(恒沙) : 항하사(恒河沙)의 준말. 항하(恒河)의 모래 수. 그 수가 많음을 비유. 성덕(聖德) : 성인의 거룩한 덕.

642) 자성불(自性佛) : 자성본불(自性本佛)의 준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

643) 인적위자(認賊爲子) : 도적(盜賊)을 망견(妄見)에, 자식을 진각(眞覺)에 비유하는 것. 망견을 인정하여 자식으로 삼는 것의 비유.

644) 사바세계(娑婆世界) : 앞에 든 각주 195 참조. 청정(淸淨) : 허물이나 번뇌가 없이 깨끗함.

- 645) 자재천궁(自在天宮) : 자재천(自在天)의 궁전. 자재천(自在天) : 대자재(大自在). 대자재천(大自在天)의 준말.大千세계(大千世界)의 주(主)로서 큰 위덕을 가졌음.
- 646) 나게범왕(螺髻梵王) : 소라 껍데기와 같은 꼬불꼬불한 머리를 한 범천왕(梵天王). 범왕(梵王) : 범천왕(梵天王)의 준말. 범천(梵天)은 제석천(帝釋天)과 함께 부처를 좌우에서 모시는 불법 수호의 신.
- 647) 대지 상덕(大智上德) 사리불(舍利弗) : 큰 지혜와 훌륭한 덕이 있는 사리불. 대지(大智) : 아주 뛰어난 지혜. 상덕(上德) : 훌륭한 큰 덕. 사리불(舍利弗) : 사리푸트라(Śāriputra)의 한자식 이름. 석가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많은 사람. 16 나한(羅漢)의 하나임. 제자 250명을 데리고 불제자가 되었는데, 석가의 아들 라훌라의 수계자(授戒者)로 유명함.
- 648) 토석(土石) : 흙과 돌.
- 649) 황어(況於) : 하물며. 구박 범부(具縛凡夫) : 번뇌로 생사에 얽매어 있는 평범한 사람. 구박(具縛) : 번뇌로 말미암아 생사에 속박되는 일. 범부(凡夫) : 번뇌에 얽매어서 생사를 초월하지 못한 사람.
- 650) 임종 일념(臨終一念) : 앞에 든 각주 74와 233 참조.
- 651) 삼악도(三惡道) : 앞에 든 각주 11 참조. 포복(匍匐) : 배를 땅 대고 기는 것.
- 652) 자성 극락(自性極樂) :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에서 믿는 극락세계. 앞에 든 각주 642 참조.
- 653) 아만심(我慢心) : 앞에 든 각주 627 참조.
- 654) 하열심(下劣心) : 천하고 비열한 마음. 비루(鄙陋) :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못나다.
- 655) 불 지혜(佛智慧) : 불의(佛意). 부처의 원만한 지혜. 지혜(智慧) : 미혹(迷惑)을 없애고 보리(菩提)를 성취하는 힘.
- 656) 정토왕생(淨土往生) : 앞에 든 각주 206 참조.
- 657) 집석위보(執石爲寶) : 돌을 가지고서 보배라 하는 일.
- 658) 정토 법문(淨土法門) : 극락 정토로 가는 법문. 법문(法門) : 중생이 불법으로 들어가는 문.
- 659)十方 제불(十方諸佛) : 시방에 있는 여러 부처.十方(十方) : 앞에 든 각주 69와 459 참조.
- 660) 항사 보살(恒沙菩薩) : 항하(恒河)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보살. 항사(恒沙) : 앞에 든 각주 641 참조. 보살(菩薩) : 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의 버금인 되는 성인. ② 고승(高僧)의 존칭.
- 661) 화엄경(華嚴經) : 석가가 도를 이룬 뒤 깨달은 대로 설법했다는 경문.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계 평등의 진리를 깨우친 불의 만행(萬行). 만덕(萬德)을 칭찬한 것임. 법화경(法華經)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준말. 대승경전(大乘經典)의 하나. 불타의 종교적 생명을 설법한 것으로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
- 662) 일대교(一代教) : 석가의 일생, 일대(一代) 사이의 가르침. 시종(始終) : 종시(終始). 처음과 끝.
- 663) 무상원(無常院) : ① 죽음을 앞둔 병자들을 모아 정토를 가르치고 영불을 외게 하여 세상의 집착을 버리게 하는 곳. ② 중이나 속인들의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곳.
- 664) 극락왕생(極樂往生) : 정토왕생(淨土往生). 앞에 든 각주 206 참조.
- 665) 마명 보살(馬鳴菩薩) : 마명(馬鳴)을 존대하여 이르는 말. 마명(馬鳴) ; 아슈바고샤의 한자식 이름. 고대 인도의 불교 시인. 초기의 대승불교의 학자로 불교를 소재로 한 산스크리트의 미문체 문학을 창작하여 인도 문학사상 불후의 업적을 남긴 사람. 용수 보살(龍樹菩薩) : 용수(龍樹)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 용수(龍樹) : 나가르주나의 한자식 이름. 남인도의 불교가(佛敎家). 중관학파(中觀學派)의 개조(開祖)로서, 공(空)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대승불교(大乘佛敎)를 선양하

- 666) 제불 화신(諸佛化身) : 여러 부처의 화신(化身). 화신(化身) :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형상을 바꾸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부처의 몸.
- 667) 강적(降跡) : 내려와서 자취를 나타냄.
- 668) 정법안장(正法眼藏) : 석가가 성각(成覺)한 비밀하고 깊은 깨달음으로,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의 묘리.
- 669) 권생극락(勸生極樂) :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함. 앞에 든 각주 206 참조.
- 670) 혜원 법사(慧遠法師) : 중국 동진(東晉)의 중. 백련사(白蓮社)를 창설하여 중국 정토종(淨土宗)의 개조(開祖)가 됨. 법사(法師) : ① 설법하는 중. ② 법주(法主). 심법(心法)을 전하여 준 중.
- 671) 반야경(般若經) :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을 설법한 여러 경전의 총칭. 반야(般若) : 최고의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 모든 사물의 본래의 양상을 이해하고, 불법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하는 지성의 작용.
- 672) 활연 대오(豁然大悟) : 의문을 밝고 시원하게 크게 깨달음.
- 673) 광려산(匡廬山) : 중국의 강서성(江西省) 구강현(九江縣)의 남쪽에 있는 산으로 명승지임. 중국 주(周)나라 때 은사 광속(匡俗)이 은거한 곳으로, 정려(定廬)에 사람을 보냈더니 이미 등선(登仙)하고 빈 집만 있었으므로, 여산(廬山), 또는 광산(匡山), 광려산(匡廬山) 등으로 전해 옴. 결사(結社) :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적인 결합체(結合體)를 조직하는 일. 또는, 그 조직된 것.
- 674) 정(定) : 선정(禪定).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상태.
- 675) 미타 성상(彌陀聖上) :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높이어 이르는 말. 친견(親見) : 친람(親覽). 친히 보는 것.
- 676) 지자 대사(智者大師) : 지의(智顛)의 법명(法名). 중국 천태종(天台宗)의 개조(開祖). 통칭 천태태사(天台太師)라고 함.
- 677) 법화 삼매(法華三昧) :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화경(法華經)을 읽어서 죄업을 참회하는 일. 삼매(三昧) : 잡념을 떠나서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시키는 경지. 이 경지에서 바른 지혜를 얻고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라 함.
- 678) 증득(證得) : 수행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와 공덕을 체득하는 것.
- 679) 영산회상(靈山會上) : 석가여래가 영취산(靈鷲山)에서 제자들을 모아 설법하던 모임의 자리에서.
- 680) 삼관 원수(三觀圓修) : 삼관(三觀)을 완전무결한 궁극적인 교범(教法)이라 이르는 원교(圓教)로써 수행함. 삼관(三觀) : 공(空) . 가((假) . 중(中) 등 삼제(三諦)의 진리를 관찰하는 일 .
- 681) 상품 왕생(上品往生) : 극락 왕생의 아홉 가지 계급 가운데 극락정도의 최상급.
- 682) 해동 신라(海東新羅) : 우리나라인 신라를 발해(渤海) 동쪽의 나라라 해서 일컫는 말. 의상 법사(義湘法師) :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의 스님. 중국 당(唐)나라에 건너가 화엄(華嚴)을 배우고, 귀국 후 왕명을 좇아 부석사(浮石寺)를 세우고 화엄종(華嚴宗)을 강론하여 우리나라 화엄종의 창시자가 됨. 시호는 원교 국사(圓教國師). 계행(戒行) : 계율(戒律)을 잘 지켜 닦는 일.
- 683) 천공(天供) : 하느님의 공양.
- 684) 정토 발원(淨土發願) : 앞에 든 각주 252 참조.
- 685) 좌필서향(坐必西向) : 앉는 데는 반드시 서쪽을 향해서 앉음.
- 686) 서역 동토(西域東土) 현철(賢哲) : 중국의 서방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 및 동쪽 땅의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들.
- 687) 고금 왕생(古今往生) : 예로부터 지금까지 극락정토에 가서 태어남.

- 688) 정토 법문(淨土法門) : 정토문(淨土門). 앞에 든 각주 658 참조. 평담(貶談) : 평론(貶論). 깎아내려 헐뜯는 것. 또는 그런 말.
- 689) 오장왕(烏藏王) : 왕생전(往生傳)』에 나오는 오장국(五長國)의 왕인 듯. 오장왕은 영불한 뒤 죽어서 극락세계로 갔다 함.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② 461쪽, 2005년 참조.) 흥종 황제(興宗皇帝) : 중국 요(遼)나라의 제7대 황제.
- 690) 만기(萬機) : 정치상의 온갖 중요한 기틀. 또는, 여러 가지 정사(政事).
- 691) 왕생 발원(往生發願) : 극락왕생을 바라고 원하는 생각.
- 692) 장한(張翰) : 중국 진(晉)나라 사람. 글에 능하였고, 강동(江東)의 보병(步兵)이라고 불리었음. 왕시랑(王侍郎) : 왕유(王維). 중국 당(唐)나라 때의 시인이요, 화가임. 중국 자연시의 완성자이며, 남종화(南宗畵)의 시조로 불리었음. 시랑(王侍) : 중국의 벼슬 이름. 당대(唐代)의 중서성(中書省) 또는 문하성(門下省)의 실질상의 장관. 후세의 육부(六部)의 차관을 일컬음.
- 693) 공명(功名) : 공을 세워 드러난 이름. 또는, 공을 세워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현달(顯達) : 벼슬. 명성. 덕망이 높아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 694) 환해(宦海) : 관해(宦海). 관리의 사회.
- 695) 왕생업(往生業) : 극락왕생의 소행, 즉 응보(應報). 앞에 든 각주 204 참조.
- 696) 유유민(劉遺民), 주숙지(周淑之) : 중국 진(晉)나라 사람들임.
- 697) 오욕(五慾) : 앞에 든 각주 163 참조.
- 698) 백련 결사(白蓮結社) : 백련사(白蓮社). 중국 동진(東晉)의 혜원(慧遠)이 402년에 만든 영불 수행의 결사. 정토 신앙을 강조함. 결사(結社) : 앞에 든 각주 673 참조. 참례(參禮) : 예식에 참여하는 것.
- 699) 두적 산문(杜跡山門) : 자취를 감추고 절에 들어 출입이 없이 지냄.
- 700) 도연명(陶淵明) : 도잠(陶潛). 중국 동진(東晉)의 시인. 연명은 그의 자(字)임. 팽택현(彭澤縣)의 현령이었으나 41세 때에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남기기고 벼슬에서 물러나 귀향하였음. 당(唐) 이후 육조(六朝)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되었음. 이태백(李太白) : 이백(李白). 중국 당(唐)나라의 시인. 태백은 그의 자(字)임. 시성(詩聖) 두보(杜甫)에 대하여 시선(詩仙)으로 일컬어 왔음. 백낙천(白樂天) : 백거이(白居易). 중국 당(唐)나라의 시인. 낙천은 그의
- 701) 만고 명현(萬古名賢) : 만고에 전할 이름이 난 어진 사람. 만고(萬古) : 오랜 세월을 통해 불변하거나 유례가 없음을 이르는 말.
- 702) 필봉(筆鋒) : 붓의 위세. 곧, 문장 또는 서화의 위세.
- 703) 미타 공덕(彌陀功德) : 아미타불의 공덕. 앞에 든 각주 161과 90 참조. 찬탄(讚嘆) : 칭찬하여 감탄하는 것.
- 704) 왕생 발원(往生發願) : 앞에 든 각주 691과 90 참조.
- 705) 정진(正眞), 도완(道完) : 왕생전(往生傳)』에 나오는 인물들임.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② 462쪽, 2005년 참조.)
- 706) 비구니(比丘尼) : 이승(尼승).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여자 중.
- 707) 수문후(隋文侯), 형왕부인(衡王夫人) : 앞에 든 각주 705의 경우와 같음.
- 708) 재가(在家) : 재속(在俗).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중처럼 도를 닦는 것.
- 709) 여신보(女身報) :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인과응보(因果應報).
- 710) 연대(蓮臺) : 연화대(蓮花臺)의 준말. 앞에 든 각주 249 참조.

- 711) 파계 비구(破戒比丘) : 계율을 어기고 지키지 않은 남자 중. 비구(比丘) :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남자 중.
- 712) 도우(屠牛) : 소를 잡는 일. 웅준(雄俊), 장선화(張善和) : 『왕생전(往生傳)』에 나오는 인물들임.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② 462쪽, 2005년 참조.)
- 713) 지옥고 현전(地獄苦 現前) : 앞에 든 각주 197과 327 참조.
- 714) 임종 일념(臨終一念) : 앞에 든 각주 233 참조.
- 715) 회심(回心) : 사심(邪心)에서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또는, 그러한 마음. 연태 : 연대(蓮臺)의 오기인 듯함. 앞에 든 각주 249 참조.
- 716) 풍기(豐基) :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읍(邑).
- 717) 비자(婢子) : 계집종. 삼생(三生) : ① 화엄종에서 부처가 되는 세 단계. 곧, 견문생(見聞生) . 해행생(解行生) . 증입생(證入生). ② 전생(前生) . 현생(現生) . 후생(後生)을 아울러 이르는 말.
- 718) 건봉사(乾鳳寺)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금강산에 있는 절. 신라 때에 아도(阿道)가 창건한 원각사(圓覺寺)를 고려 공민왕 때에 나옹(懶翁)이 중수하고 개칭한 것임. 만일회(萬日會) : 정토종(淨土宗)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위하여, 천일(千日) 또는 만일(萬日)을 정하여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외며 도를 닦는 불교 의식.
- 719) 별좌(別座) : 불사(佛事)가 있을 때 부처 앞에 음식을 차리는 일. 또는, 그 예물을 차리는 사람.
- 720) 속(贖)하다 : 대갚음으로 바치다.
- 721) 미타 도량(彌陀道場) : 아미타불의 도량. 도량(道場) : 불도(佛道)를 닦는 장소. 또는, 불보살이 성도(成道)를 얻은 곳. 일반적으로 절의 경내를 가리킴.
- 722) 육신 등공(肉身騰空) : 몸이 하늘에 오르는 것.
- 723) 고왕구래(古往今來) : 왕고내금(往古來今). 옛날부터 지금까지.
- 724) 승속 남녀(僧俗男女) : 앞에 든 각주 404 참조. 현우 귀천(賢愚貴賤) : 현명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귀함과 천함. 또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부귀와 빈천.
- 725) 죄악 범부(罪惡凡夫) : 죄악을 저지른 범부. 범부(凡夫) : 앞에 든 각주 649 참조.
- 726) 발심 염불(發心念佛) : 앞에 든 각주 150 참조.
- 727)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경파(萬頃波). 끝없이 너른 바다.
- 728) 유순(由旬) : 유순나(由旬那). 고대 인도의 거리 단위. 소달구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 함. 마갈어(摩竭魚) : 배도 삼킨다는 바다의 경(鯨), 즉 고래를 말함.
- 729) 인린(隣隣) : 인린(鄰鄰). 서로 도우며 시중하는 모양.
- 730) 억억인(億億人) : 수많은 사람을 이룸.
- 731) 기행 수도(幾行修道) : 얼마만큼 도를 닦는 것. 수도(修道) : 삼도(三道)의 하나. 견도(見道)의 다음으로 온갖 지적(智的)인 미혹을 벗어난 단계.
- 732) 구생(求生) : 생명의 안전을 구하는 것. 만불누일(萬不漏一) : 만에 하나라도 빠뜨리지 아니함.
- 733) 사자왕(獅子王) : 서기 5세기로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도의 오리쓰사 지방을 지배한 사자왕조(獅子王朝)의 왕. 결정설(決定說) : 정해진 태도나 뜻이 명확한 견해.
- 734) 연비 연동(蜎飛蠕動) : 지렁이 등의 벌레가 움직이는 모양. 또는, 그러한 벌레들. 미물(微物) : 보잘 것 없는 것.
- 735) 교화 은자(教化恩慈) : 착한 마음을 갖도록 교화하는 은혜와 사랑.

- 736) 만물지중(萬物之中) : 온갖 만물 가운데.
- 737) 자맥 성변(紫陌城邊) : 도성(都城)의 큰길과 성(城)의 주변. 세류안(細柳岸) : 세버들이 있는 언덕.
- 738) 화류(花柳) : 꽃과 버들. 또는, 이를 즐기는 일.
- 739) 춘흥(春興) : 봄이 되어 마음에 절로 일어나는 흥겨움.
- 740) 무정지물(無情之物) : 무정물(無情物). 나무나 돌 따위와 같이 감각성이 없는 물건.
- 741) 상강시(霜降時) : 24절기의 하나인 상강절(霜降節)인 때. 또는 서리가 내리는 때.
- 742) 행화촌(杏花村) : 살구꽃이 많이 피는 마을.
- 743) 봄꽃 : '봄꽃'의 오기인 듯함.
- 744) 적막공산(寂寞空山) : 고요하고 쓸쓸하여 적막한 깊은 산.
- 745) 불여귀(不如歸) : 돌아감만 같지 못하다는 뜻으로 소쩍새 우는 소리를 가리킴.
- 746) 망망(茫茫) : 넓고 멀어 아득함. 성색 도중(聲色途中) : 음악과 여색에 빠져있는 동안.
- 747) 사부 도서(死父悼逝) : 죽은 아버지 돌아가심을 슬퍼함. 군자(君子) : 마음이 착하고 무던한 사람.
- 748) 석양 산로(夕陽山路) : 해 넘어가는 석양 산길.
- 749) 북망산천(北邙山川) : 북망산北邙山). 중국 하남성 낙양(洛陽)에 있는 산. 이곳 산에 무덤이 많았다는 데서 사람이 죽어서 파묻히는 곳을 이름.
- 750) 효자 순손(孝子順孫) : 효자 자순(孝子慈孫). 효성으로써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잘 봉양하는 것.
- 751) 오호(嗚呼) : 앞에 든 각주 2 참조.
- 752) 만고 호걸(萬古豪傑) : 오랜 세월을 두고 기릴 뛰어난 호걸. 호걸(豪傑) :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개와 품모가 있는 삶.
- 753) 장생불사(長生不死) : 오래 살아 죽지 않음.
- 754) 거마객(車馬客) : 거마(車馬) : 수레와 말)를 부리는 명성 있고 여유로운 사람.
- 755) 황천 고혼(黃泉孤魂) : 죽어서 간다는 황천의 외로운 혼. 앞에 든 각주 487과 489 참조.
- 756) 생사 장야(生死長夜) : 사고(四苦)의 시자부터 끝까지의 긴긴밤. 앞에 든 각주 165 참조.
- 757) 출세(出世) : 앞에 든 각주 145 참조.
- 758) 대법고(大法鼓) : 불교의식 때에 부처 앞에서 치는 큰 북.
- 759) 생사 옥문(生死獄門) : 살리고 죽이고 하는 지옥의 문.
- 760) 대비선(大悲船) : 대비원선(大悲願船). 부처의 대자비(大慈悲)를 배에 비유하여 이른 말. 대비(大悲) : 중생의 고통을 가엾게 여겨 구제하려는 부처의 큰 자비. 또는, 자비가 큼.
- 761) 차안 중생(此岸衆生) : 이 세상의 중생. 차안(此岸) : 생사(生死)의 세계. 또는, 이 세상. 중생(衆生) : 앞에 든 각주 68 참조. 제도(濟度) : 앞에 든 각주 556 참조.
- 762) 선가(船價) : 배 탈 때의 임금. 뱃삿.
- 763) 보원침닉(普願沈溺) 제중생(諸衆生) : 흔히 술이나 계집, 또는 노름 등에 빠지기를 원했던 여러 중생들.
- 764) 유심정토(唯心淨土) : 정토(淨土)는 마음의 현현(顯現)으로서, 마음 밖의 실재가 아니라는 것. 곧, 극락정토는 마음속에 있는 경지임을 일컬음.
- 765) 자성 미타(自性彌陀) : 불성(佛性)으로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아미타불. 앞에 든 각주 642와 161 참조.
- 766) 환망 진구(幻妄塵垢) : 허깨비처럼 망령된 번뇌. 진구(塵垢) : 먼지와 때. 번뇌를 일컫는 말.

- 767) 공덕수(功德水) : 알가(闍伽). 부처에게 공양하는 물.
- 768) 탐진 열뇌(貪瞋熱惱) : 탐(貪 : 욕심)과 진(瞋 : 성냄)의 마음 고뇌. 앞에 든 각주 630 참조. 열뇌(熱惱) : 심한 마음의 고뇌.
- 769) 보수음(寶樹陰) : 칠중보수(七重寶樹)의 그늘. 보수(寶樹) : 칠중보수(七重寶樹)의 준말. 극락에 있는, 일곱 줄로 벌여 선 보물 나무. 곧, 금 . 은 . 유리 . 산호 . 만호 . 파리 . 거거 등의 나무. 흘휴(吃虧) : 감하게 함. 이지러지도록 함.
- 770) 아귀도(餓鬼道) : 육도(六道)의 하나이자 삼악도(三惡道)의 하나. 아귀들이 모여 사는 세계로, 늘 굶주리고 매를 맞는다고 함.
- 771) 선열식(禪悅食) : 오식(五食) 또는 이식(二食)의 하나. 선정(禪定)으로서 몸과 마음을 도우며, 낙을 얻어 지혜를 기쁨을 음식에 비유한 말. 표만(臙滿) : 살이 찜. 살짐.
- 772) 지옥도(地獄道) : 육도(六道)의 하나이자 삼악도(三惡道)의 하나. 악업을 지은 중생이 태어나는 지옥의 세계를 이룸.
- 773) 법희수(法喜水) : 법열(法悅)의 느낌을 물에 비유하여 이룬 말. 법희(法喜) : 법열(法悅). 설법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해갈(解渴) :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갈증을 풀어버림.
- 774) 곡향(谷響) : 산울림. 메아리. 설법성(說法聲) : 설법하는 소리. 앞에 든 각주 600 참조.
- 775) 여환법인(如幻法印) : 환영(幻影)과 같은 법인. 법인(法印) : 불교를 외도(外道)와 구별하는 표지. 불법이 참되고 불변 부동(不變不動)한 것을 나타낸 것임. 증득(證得) : 앞에 든 각주 88 참조.
- 776) 공화 만행(空華萬行) : 허공화(虛空華)에 대해 지켜야 할 갖가지 행동. 공화(空華) : 허공화(虛空華). 흐린 눈으로 공중을 바라보면 공중에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본래 실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잘못 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룸. 만행(萬行) : 수행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수습(修習) : 배워 익히는 것.
- 777) 수월 도량(水月道場) : 수월관음(水月觀音)의 도량(道場). 수월관음(水月觀音) : 삼십삼 관음(三十三觀音)의 하나. 달이 비친 바다에 한 잎의 연꽃에서 모양을 한 관음. 재난을 면하기 위해 기원을 하면 영감이 있다고 함. 도량(道場) : 앞에 든 각주 721 참조. 안주(安住) : 영거(寧居).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사는 것.
- 778) 경상 천마(鏡像天魔) : 거울 속에 영상으로 비치는 하늘마군. 천마(天魔) : 천자마(天子魔). 하늘마군. 사마(四魔)의 하나. 사람이 착한 일을 하거나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함.
- 779) 몽중 불과(夢中佛果) : 꿈속에서의 불과. 불과(佛果) : 불도 수행으로 얻는 과보(果報). 성불(成佛)의 증과(證果).
- 780) 구화 방편(漚和方便) : 선교 방편(善巧方便). 부처가 임기응변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기묘한 방법.
- 781) 환화 중생(幻化衆生) : 환화하는 중생(衆生). 환화(幻化) : 우주 만물이 환상(幻像)과 같이 변화하는 것. 중생(衆生) : 앞에 든 각주 68과 461 참조. 제도(濟度) : 앞에 든 각주 556 참조.
- 782) 법성토(法性土) : 삼불토(三佛土)의 하나로서, 법신(法身)으로서 부처를 일컫는 법신불(法身佛)의 법성토임.
- 783) 임운 등등(任運騰騰) 등등 임운(騰騰任運) : 연대로 말긴 운명 아주 높고, 아주 높은 운명 자연 대로 말기는 것.
- 784) 무위 진락(無爲眞樂) : 무위의 참된 즐거움. 무위(無爲) :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생멸 변화(生滅變化)를 떠난 것. 상주 절대(常住絕對)의 진실.

785)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 아미타불에게 귀의(歸依)한다는 뜻으로, 종이 염불할 때에 외는 소리.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